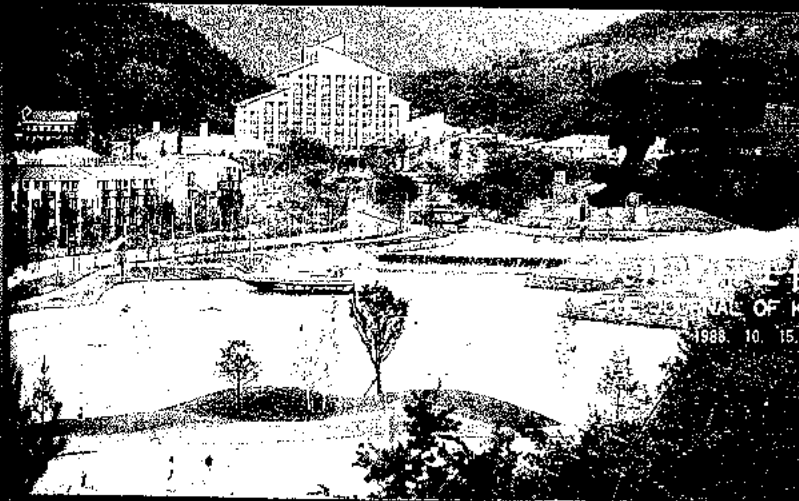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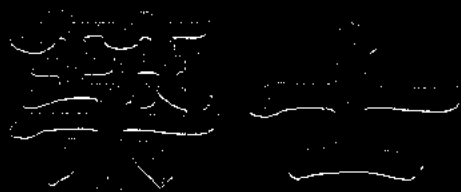




보온단열재
1977년 개발
1982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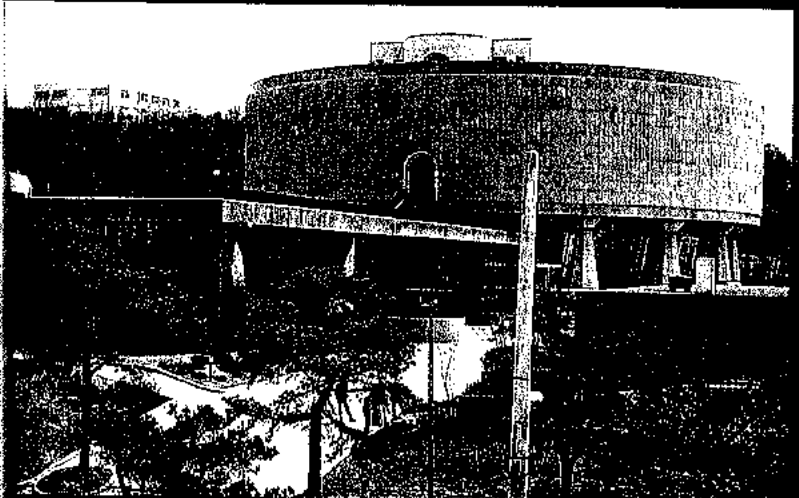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誌 OCTOBER 1988. NO. 235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88. 10. 15. 1985. 12. 31 第3種郵便物(4)級 認可 郵便番號: 13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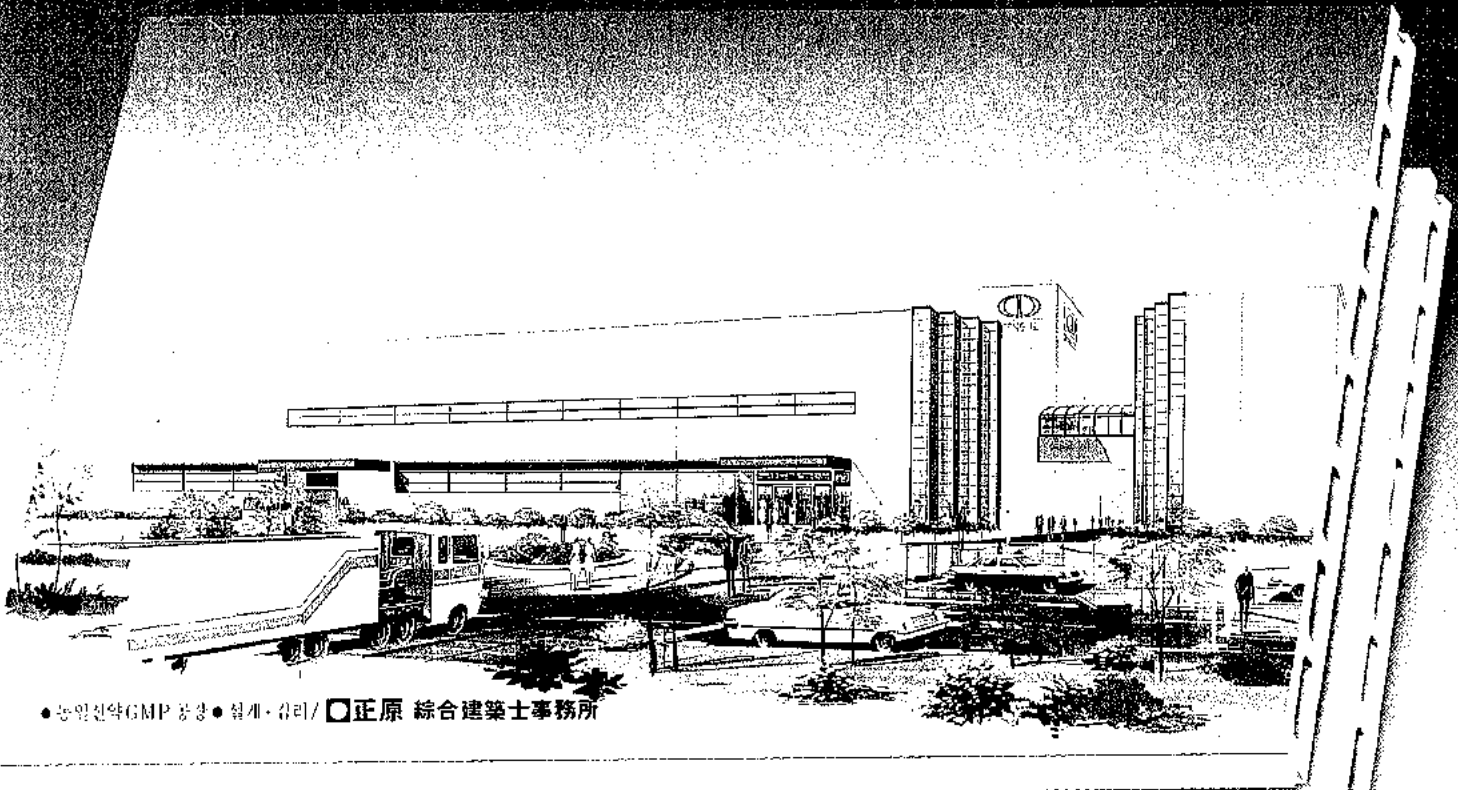
초고온
세리크



건축용 내장재
금강석고보드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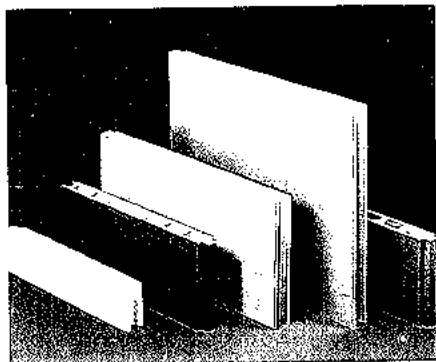
흡음 천정판
1985년 개발





●농업신약GMP공장 ●철계·강리/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율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충격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 · 칸막이 · 계단 · 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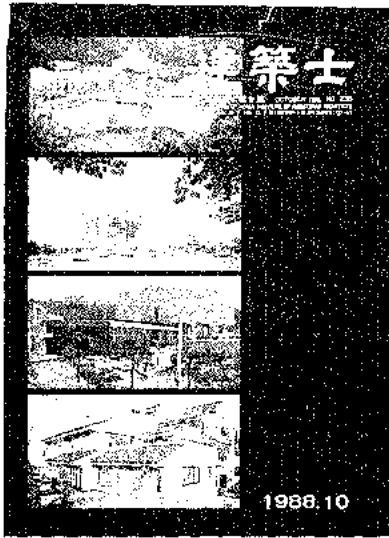
벽산 베이스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9(구내281) 베이스사업부

제3차아시아건축사대회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7-11, NOVEMBER, 1988





표지: 역대 건축사 설계작품
순회전 대상수상 작품

建築士

차 례

1988년 10월호(통권 235호)

發行人: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朴榮翼

副委員長: 尹錫祐

委員: 金琪碩, 卞鎔, 金晶東, 趙聖烈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팩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4-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圭(洸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이달의 詩

- 6 雪朝.....尹一柱

특집 / 제 3 회 아시아건축사대회

- 8 '82-'87건축사 설계작품순회전 대상 수상작 소개

- 8 MBC 여의도 스튜디오.....김성식

- 9 육군박물관.....김중업

- 10 용평 리조트 콤플렉스.....김관욱

- 11 이태원 테라스하우스.....김춘웅

- 12 성균관대 체육관.....윤승중+변용

- 13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조성룡+장기성

ARCASIA 회원국 출판작 소개

- 14 태국편

- 24 파키스탄편

- 36 인도네시아편

- 40 싱가포르편

- 44 말레이시아편

- 55 제 3 차 아시아建築士大會 開催案内

- 61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金枝泰

- 62 ACA-3 서울大會를 맞으며.....吳雄錫

研究

- 64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13).....金晶東

회원기고

- 91 無識한 매스콤과 弘報.....嚴泰雄

- 76 協會消息

- 78 姜大雄 前會長 逝去

- 79 新入會員

- 80 建築行政 中繼室

- 84 立法豫告

- 92 1988년도 建築士資格試驗 合格者 發表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603-55 /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원효동 169-16 / 333-1873
 권역분소 / 권역구본원동 1422-17 / 888-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 191-13 /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81 /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상계동 317-4 /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파라성 1105-5 / 695-0767
 성동분소 / 성동구구파동 232-16 / 446-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원동 101-7 / 923-6213
 중랑분소 / 중랑구월곡동 201-1 / 735-0905
 마포분소 / 마포구도화동 250-4 / 712-8844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 50-12 / 423-9158
 강남분소 / 강남구우정동 11-2 / 252-6507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 129-22 / 712-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 1623-1 / 586-7707
 은평분소 / 은평구응암동 183-12 / 356-7172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 147-79 / 599-6754
 강남분소 / 강남구논곡동 241-6 / 545-0757
 노원분소 / 노원구공릉동 617-6 / 976-1835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 1027-9 / 646-7172
 구로분소 / 구로구방구동 516-11 / 491-0925
 성북분소 / 성북구암사동 5가 410 /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 130-32 / 864-3988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가 1 (부산대파트내) (051) 23-628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가1-8 /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 / (062) 223-7598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 1동 558-1 / (032) 424-0146, 5100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곡로 3가124-5 / (03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9 /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 74-6 / (032) 63-3144

성남분소 / 성남시삼정동 5512 / (0342) 2-5445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182 / (0351) 2-1083

송탄분소 / 송탄시내장동 21 /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동주교리 38번지 16호동 /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2 /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시이천읍동 216-8 / (0336) 2-3396

경남분소 / 경창시경창동 464-7 / 682-2875

김천도지부 / 김천도문현시독천동 39-5 / (0361) 2-2442

원주분소 / 원주시원산동 206 /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 6 / (0391) 2-2252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66 / (0392) 2-5081

원주분소 / 원주시남양동 55-43 / (0397) 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월리 1959-35 / (03732) 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복토로 2가116-168 / (0431) 2-2752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0441) 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원동 8-8 / (0443) 2-6253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거리 139-4 / (0433) 2461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천동 487-1 / (042) 22-4088

원주분소 / 원주시문화동 160-14 /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리리 239-1 / (0451) 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문암리 710-2 / (0463) 2-2217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 (대덕빌딩 508) (0652) 3-3881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 1가 77-22 /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가 85 / (0654) 2-4060

남원분소 / 남원시하장동 106 / (0671) 2-6002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귀포시정동 783-23 (추신회관) (062) 364-7567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동 1번지 / (0631) 43-3346

순천분소 / 순천시정향동 51-11 / (0661) 3-2457

여수분소 / 여수시관동 441번지 / (0652) 64-7023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7285번지 / (053) 425-4904

포항분소 / 포항시북동 96-70 / (0562) 71-9713

경주분소 / 경주시내동 100-1 / (0561) 3-7743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 356-2 / (0546) 52-7903

안동분소 / 안동시북동 29-5 / (0571) 2-6635-6

김천분소 / 김천시제화동 280-1 / (0547) 2-2541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동 470-17 / (0572) 2-4566

원주분소 / 원주시원평동 261-2 / (0581) 2-2706

황주분소 / 황주시남성동 11-3 / (0582) 2-4305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점령동 3가 3 / (0551) 2-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 (0522) 74-8836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 7-20 / (0591) 2-6403, 42-3434-5

충주분소 / 충주시서호동 177-101 / (0557) 2-2504,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무림동 25B-17L / (0594) 2-3155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원동 67-1 /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 483-9 / (0598) 2-3777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남방리 500-3 / (0523) 4-2669

거제분소 / 거제군 선원읍 교현리 139-2 / (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2도1동 1289-6 / (064) 2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 425-1 / (0642) 62-3920, 3322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October 1988 Vol. 235

POEM

Falling down the Snow in the Morning..... Yoon, H.-Joo 6

SPECIAL ISSUE /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ntroduction of Grand Prize in the Local Architects Design Show (From '82 to '87)

MBC Yoido Studio.....	Kim, Jung-Sik	8
Military Museum.....	Kim, Choong-Up	9
Yongpyeong Resort Complex.....	Kim, Kwan-Wook	10
Yitawon Terrace House.....	Kim, Choon-Woong	11
Sung Kyun Kwan University Gymnasium.....	Yoon, Seung-Joong & Byun, Yong	12
Student Center Inha University.....	Joh, Sung-Yong & Chang, Ki-Seong	13

Architectural Works from the ARCASIA Member Countries

Thailand.....	14
Pakistan.....	24
Indonesia.....	36
Singapore.....	40
Malaysia.....	44

Introduction of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Facing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Kim, Chi-Tae	61
Facing the ACA-3 in Seoul.....	Oh, Woong-Suk	62

REPORT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Kim, Chung-Dong	64
-----------------------------------	-----------------	----

ESSAY.....	Hom, Tae-Woong	91
------------	----------------	----

KIRA NEWS

THINKING OF THE LATE KANG, DAE-WOONG.....	78
---	----

NEWLY ADMITTED MEMBER.....	79
----------------------------	----

ARCHITECTURE RELAY STATION.....	80
---------------------------------	----

雪 朝

尹一柱

白樺에 기대서서

太陽을 기다리면,

먼 끝 없는 곳으로 닿으며

아스라히 아스라히 나타나는

나의 흰 그림자,

바람에 불리우는

여윈 그림자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누우치자

白樺처럼 허울 벗긴 나의 모습과

그리고 이웃과 나의 사람과

모든 것을 누우치면

들려오는 닭의 울음,

太陽과 더불어 산을 내려

또 발자욱을 찍으며 가자.

1947



尹一柱

27년 만주 묵간도 출생,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역임,
55년 원건 “문화예술”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NOV. 7-11, 1985, SEOUL, KOREA

1. '82~'87 건축사 설계작품
순회전 대상 수상작 소개
2. ARCASIA 회원국
출품작소개
 - 태국편
 - 파키스탄편
 - 인도네시아편
 - 싱가포르편
 - 말레이시아편

3. 제3 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개최안내
4. 제3 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 金枝泰
 - 吳雄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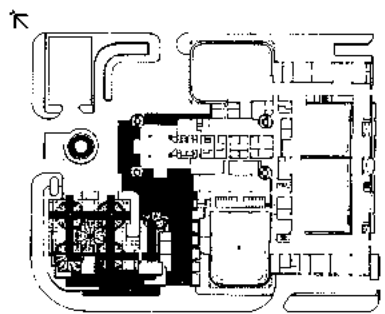
문화방송 여의도스튜디오

□ 위치 / 서울 여의도 □ 연면적 / 43,430㎡ □
1982년 준공 □ 1982년도 대한건축사협회 대상 수상, 서울시 건축상 금상 수상

TV 스튜디오와 제작시스템 그리고 기술부서, 오피스기능을 갖춘 우리나라 유일의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으로서 면모를 갖춘 독특한 개성을 지닌 건축물이다.

지하2층 지상10층의 이 건물은 부근의 단조로운 도시 패턴에 변화를 주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저층의 스튜디오부분을 오피스타워 주변으로 배치하고 넓은 광장을 건물전면에 배치했다. 쾌적한 옥외공간과 타건물과의 사이를 넓게 보이도록 반사유리를 사용했다.

대중문화의 선도적역할을 하는 매스컴의 진취적 이미지 표출에 노력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MBC Yoido Studio

□ Location/Yoido, Seoul □ Arch. Area/43,430m² □ Date Completed/1982 □ Won '82 grand prize of KIRA Award and gold prize of SCA Award.

The only private broadcasting building with T.V. studio, manufactory, technical part and offices has some special characters.

Its exterior walls were finished with mirror-glasses in order to be seen more wide and pleasant.

The appearance of it conveys an image of broadcasting station as an agency of leading the public culture.

It won the grand prize of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ward and the gold prize of the Seoul City Architectural Award in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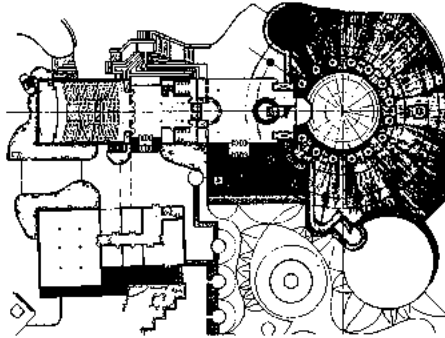


육군박물관

□ 소재지 / 육군사관학교내 □ 건축면적 / 3,051.26㎡ □ 연면적 / 6,000.38㎡ □ 용도 / 강당·전시장·사무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재 / 화강석 및 전돌

나의 연구소가 만 25주년이 되는 해인 81년 세아침에 김복동 교장이 꾸집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 전통깊은 육사구내에 영원히 남길 육군박물관을 구상하라는 요청이다. 연구소도 새로이 단장했고 알뜰한 제자들도 모여들었으니 꼭 건물을 짓고 싶을 때였다.

건축물 자체가 기념성이 풍부해야 하고 전시공간이 극적이어야 하고 빛과 물이 어울려 더욱 돋보여야 한다. 귀여운 자식같은 제자들과 수많은 밤을 지새며 열심히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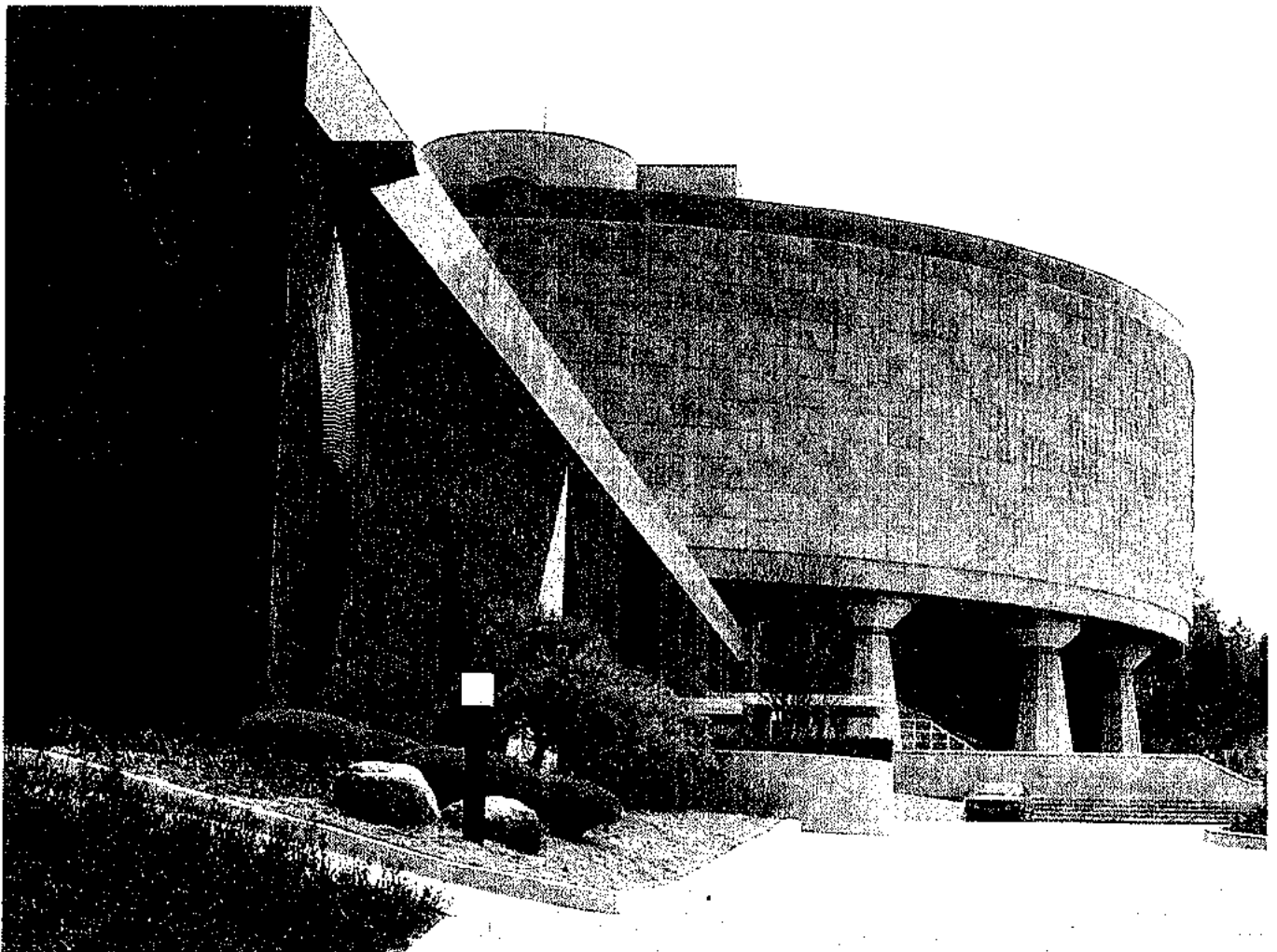
1층평면도

MILITARY MUSEUM

□ Location / Korea Military Academy □ Bldg Area / 3,051.26m² □ Archi Area / 6,000.38m² □ Structural System / Reinf. Concrete □ Exterior Material / Granite & Jeon brick

I thought it was a right time for me to make a masterpiece as the associates had newly been done and a number of trusty disciples were gathered under me.

A building itself should be full of memory, and the space for exhibiting should be dramatic and even be looked outstanding with the mixture of light and water. I did put all my efforts on the design with my young disciples for many nights.



용평 리조트컴플렉스 Yongpyong Resort Complex

□ 위치 / 강원 평창군 □ 연면적 / 49,585.16㎡ □
1984년 준공 □ 1984년 대한건축사협회 대상 수상

개천을 따라 전원에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이 건물군은 휴양시설의 기능을 갖춘 콘도미니엄, 호텔, 커뮤니티 센터, 스키장 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의 건물군이다.

각 건축물들은 전원적 특성에 맞추어 박공형 지붕을 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중앙의 호텔을 중심으로 지형에 따라 선형의 불규칙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외벽 재료도 흰벽과 목재를 주로 사용하여 전원과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

□ Location / Pyongchang-gun, Kangwon-do □ Archi. Area / 49,585.16㎡ □ Date Completed /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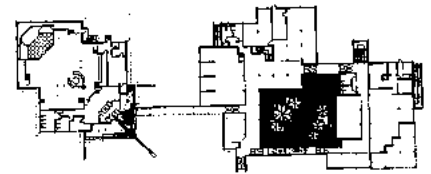
The Complex building built in the suburb has recreation facilities such as condominium, hotel, community center and sky-run.

In order to harmonize with surrounding suburban characteristic, it formed gable roof and every unit

arranged irregularly around central hotel.

The exterior walls were finished with wood and painted white.

It won the grand prize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ward in 1984.



1층 평면도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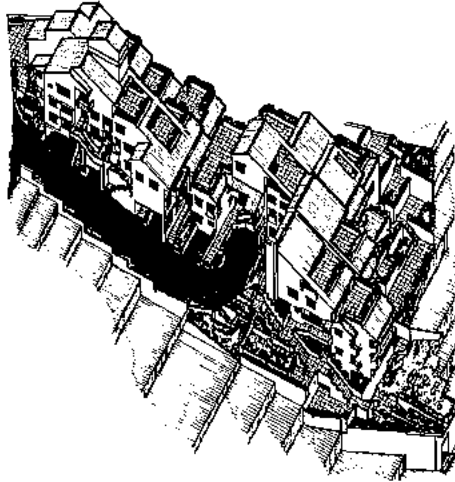
□ 위치 / 서울 용산구 □ 연면적 / 3,742.96㎡ □
1985년 준공 □ 1985년 대한건축사협회 대상수상

자연형태의 경사진 대지를 원형 그대로 살려 변화성을 최소화시켜 기존의 주변환경에 순응해서 지어진 공동주택가운데 하나이다.

건설부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단지내의 세대간 결합성을 증대키 위해 비접지층 각 세대는 단독주거와 동일하게 지면으로부터 진입하게 했다.

변화있는 입면형태를 위해 기준 최하단 레벨이 대지 최상단 레벨과 차이가 나는 것을 층고 및 조건에 따라 접지층 높이를 배분하고 유니트모듈을 설정하여 유기적으로 접합시켰다.

경사지에 따른 테라스는 가급적 대지와 간나도복 도모한 아기자기한 공동주택으로 꼽힌다.



엑스노메트릭

Itaewon Terrace House

□ Location/Yongsan-gu, Seoul □ Archi.
Area/3,742.96m² □ Date Completed/
1985 □ Won '85 KIRA Award.

Accommodating to its surrounding circumstance, the building was constructed on a inclined and ever existed site.

Every residence had entrance way on the ground like individual residence.

Terrace was designed to face on the ground and it was noticed one of a pretty public residential building.

It won a grand prize of '85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ward.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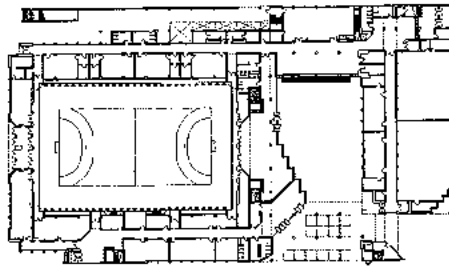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성대캠퍼스 내 □ 연면적 / 10,150㎡ □ 규모 / 지상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파이프트러스 □ 외장 / 세라믹타일, 반사유리 □ 1984년 설계 □ 1986년도 대한건축사협회 대상 수상

대한건축사협회가 주는 86회원건축설계 작품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 체육관은 이 동식 객석 및 무대를 갖춘 스포츠센터로서 독특한 외양을 보여주고 있다.

세라믹타일과 18밀리반사유리 그리고 식면수지피복강판 지붕으로 외부를 단장한 이 건물은 대학의 체육관으로서 체육교육·연구기능을 우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체육관은 대학생들의 부수적인 활동 즉 대단위 집회, 공연, 여가선용과 지역사회에 개방해서 체육진흥에 기여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목적별공간과 장소의 확보 그리고 부수기능의 원활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기존지형의 높이 차이를 이용한 내외진입의 공간분리, 자연채광, 통풍확보를 가능케 했다.



평면도

S.K.K.Univ. Gym., Su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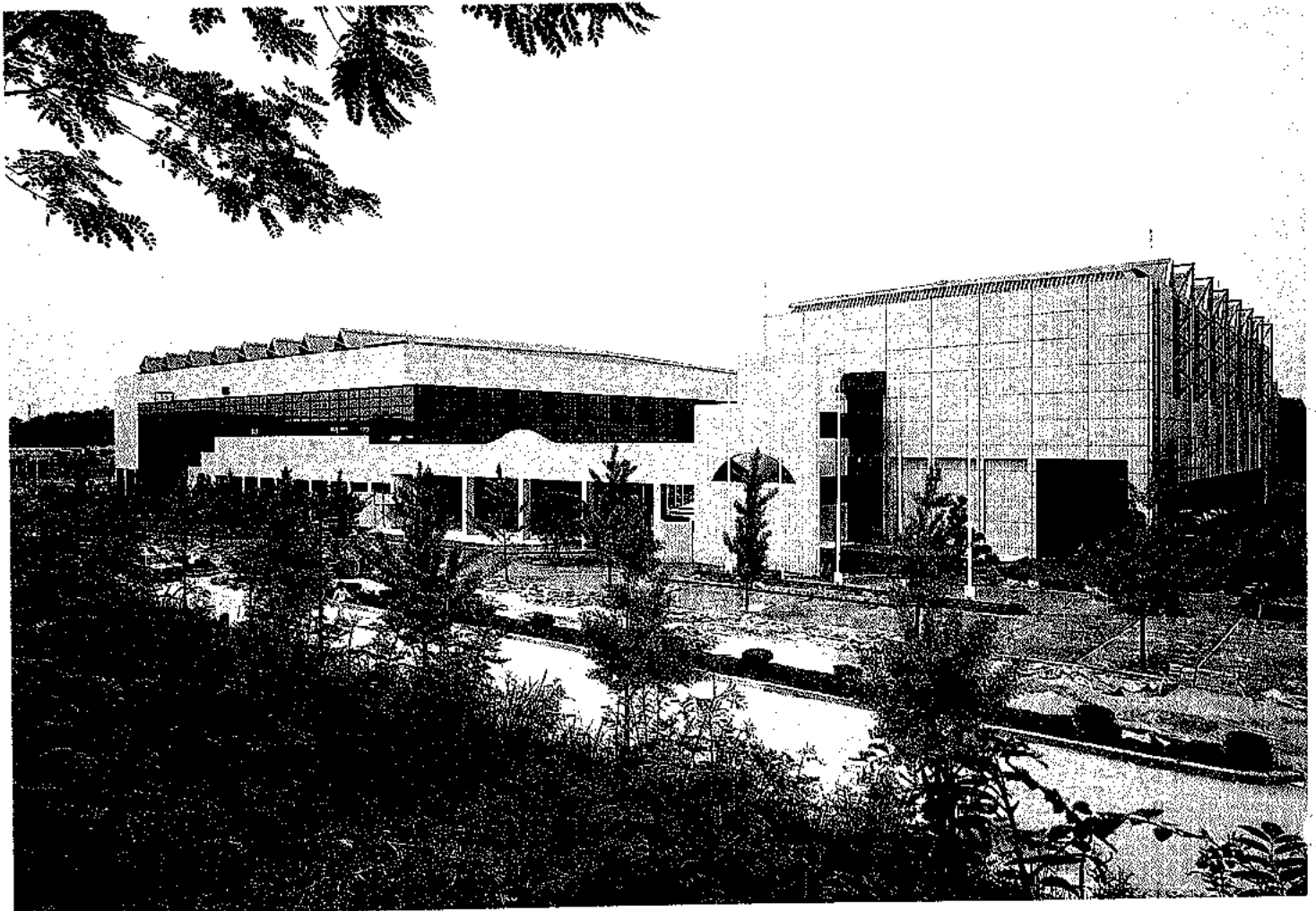
□ Location/In the Suwon campus of S.K.K.Univ. □ Archi. Area/10,150m² □ Structural System/Reinf. concrete and pipe truss □ Exterior Material/Ceramic tile and reflective glass □ Date Completed/1984 □ Won '86 KIRA Award.

The gymnasium with movable seats and stage has a peculiar exterior.

The building finished with ceramic tile, reflective glass and asbestos covered pipe roof was established for physical education and study.

It was also designed for incidental activities and contribution to the physical development.

For these purposes security of needed spaces, division of in and out entry and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were emphasized.



인하대 학생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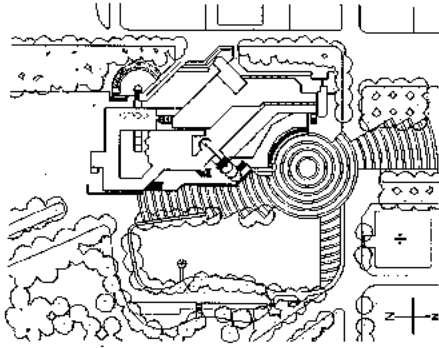
□ 위치 / 인천시 남구 인하대 구내 □ 대지면적 / 398,081㎡ □ 건축면적 / 3,697㎡ □ 연면적 / 15,760㎡ □ 규모 / 지상6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1986년 준공 □ 1987년도 대한건축사협회 대상 수상

이 회관은 캠퍼스내의 작은 인공호수와 상징탑 그리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1천4백평의 기존 회관 개축과 3천3백평의 증축부분을 합하여 모두 4천7백평 규모로 4개층의 저층부와 2개층의 고층부분으로 이루어졌다.

87년도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설계작품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기능상의 활성화와 쾌적한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적극적 시도가 돋보이고 있다.

외부의 이노 부분에서든지 연결이 용이하도록 계획된 여섯개의 출입구가 건물의 모든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배지도

Student Hall, Inha Univ.

□ Location / In the campus of Inha Univ.
 □ Site Area / 398,081m² □ Bldg. Area / 3,697m² □ Archi. Area / 15,760m² □ Structural System / Reinf. concrete. 6 storeys □ Date Completed / 1986 □ Won '87 KIRA Award.

The building is located on a beautiful landscape surrounded with artificial lake, symbol tower and a thick woods.

With reconstruction of existing hall the extension of hall was consisted of 4 lower parts and 2 upper parts.

Lively function and pleasant community were highly praised.

Six entrances connected to every where to outside were located to every dir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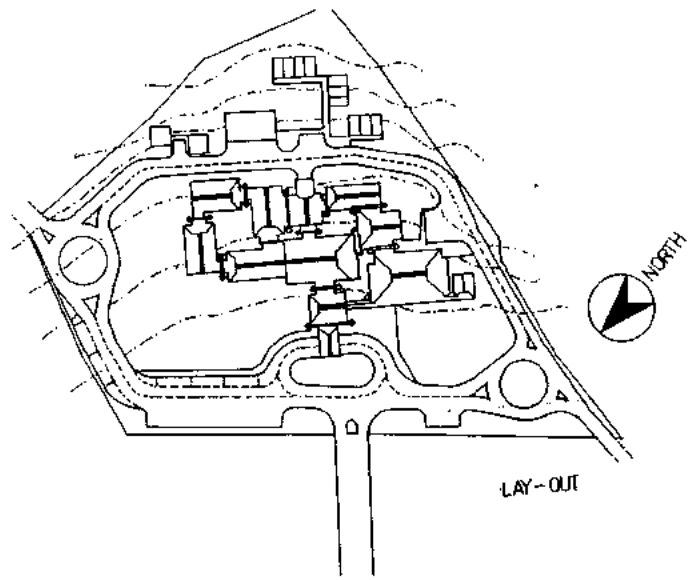
It won the 1987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ward.



태국국립박물관

Thalang National Museum

by Udom Sakulpanich



Thalang National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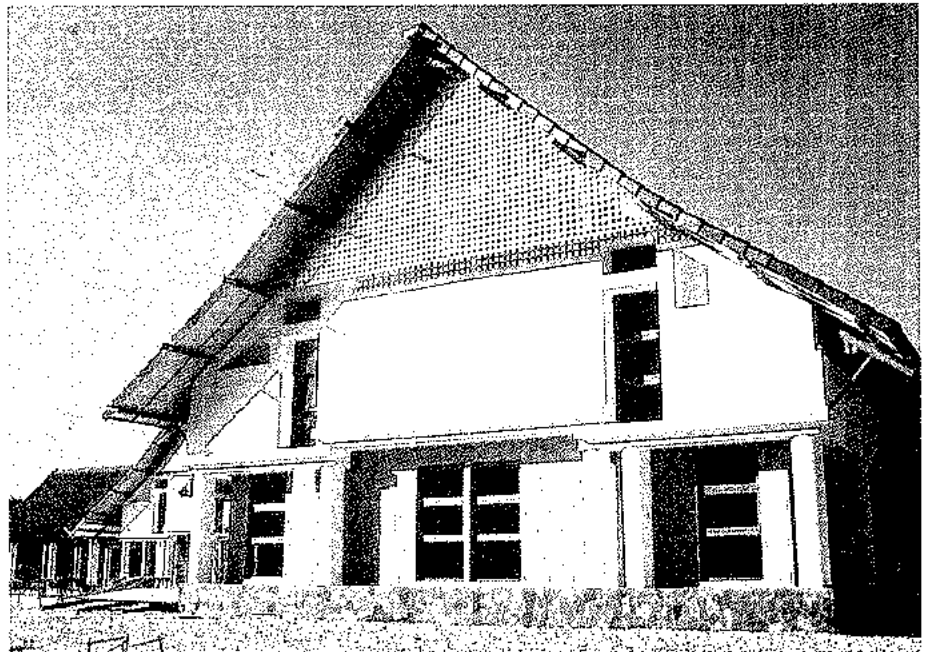
Thalang Museum은 Phuket 남부 Talang, Srisoontorn에 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힌두교, 불교, 모슬렘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문화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런 영향은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물론 현존하는 생활풍습과 건축물에까지 커다랗게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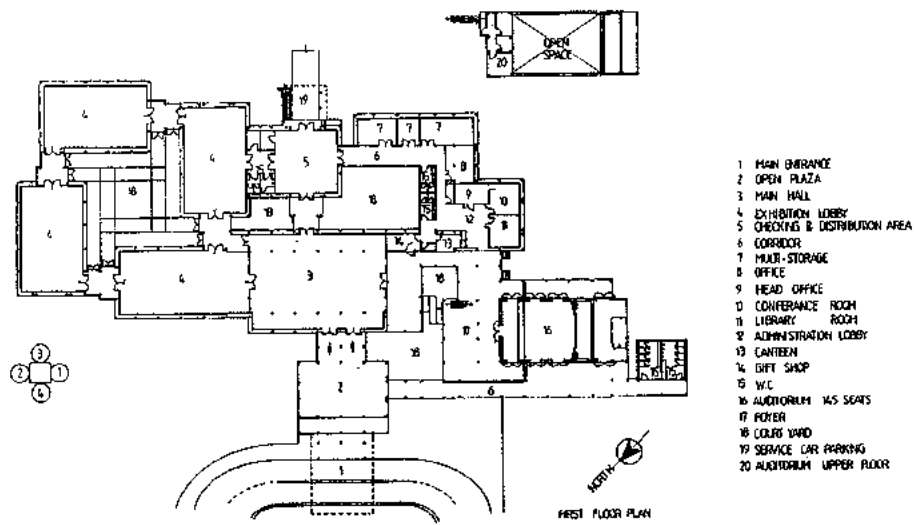
Thalang Museum은 이런 바탕위에 지어진 것이며 설계자 또한 이 점을 심분 고려하였다.

"THALANG NATIONAL MUSEUM"

The building for the Thalang National Museum is located at Srisoontorn, in Talang which is a town in the southern province of Phuket. This region of Thailand has a distinct ethnical and cultural evolution which originated through the assimilation of Hindu-Buddhist and Moslem religious cultures since ancient time. The continual development of these socio-cultural traditions through the ages bares great influence in the quality of life, in the customs of the community, the contemporary culture and regional architecture today.

The design of the museum complex is based upon these important considerations; as well as upon the designer's perceptions of the indigenous characteristics of the manner by which structures and forms had been organized to create spaces. All these aspects have been modified and incorporated into the spatial organization and design expression of this new museum complex, to accommodate its utilized function as a building for displaying historical objects of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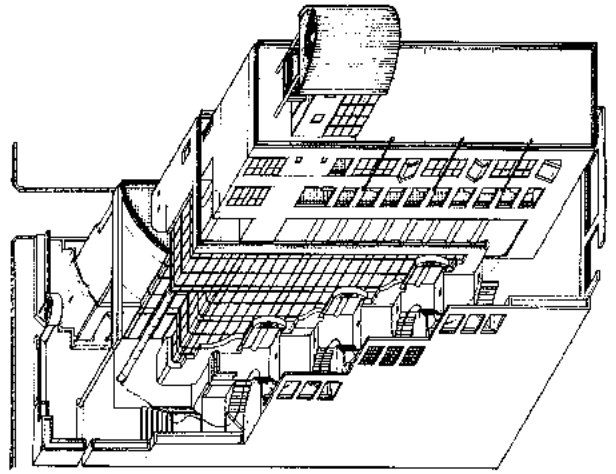


◆
 설계작품 / 국립박물관 (Thalang Phuket)
 위치 / Tambon Srisoontorn, Thalang, Phuket
 소유주 / Phuket Provincial Authority and Department
 Fine Art
 건물면적 : 1,238.4m²
 설계비용 / 5,750,000바아트
 설립년도 / 1986
 건축사 / Udom Sakulpanich
 구조설계사 / Sutin Charoensawat
 시스템 엔지니어 / Thavee Somloke
 계약자 / V.S. Construction Co., Ltd.

Project : National Museum: Thalang Phuket.
 Location : Tambon Srisoontorn, Thalang, Phuket
 Owner : Phuket Provincial Authority and
 Department Fine Art
 Building Area : 1,238.4 SQM
 Construction Cost : 5,750,000 Baht
 Year Completed : 1986
 Architect : Udom Sakulpanich
 Structural Engineer : Sutin Charoensawat
 System Engineer : Thavee Somloke
 Contractor : V.S. Construction Co., Ltd.

사무실 건물

Office building



설계취지

• 고유의 양식과 창의성을 살린 건축물로서 지역주민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주로 한다.

궁극적으로 Plans 그룹과의 “유대감”을 갖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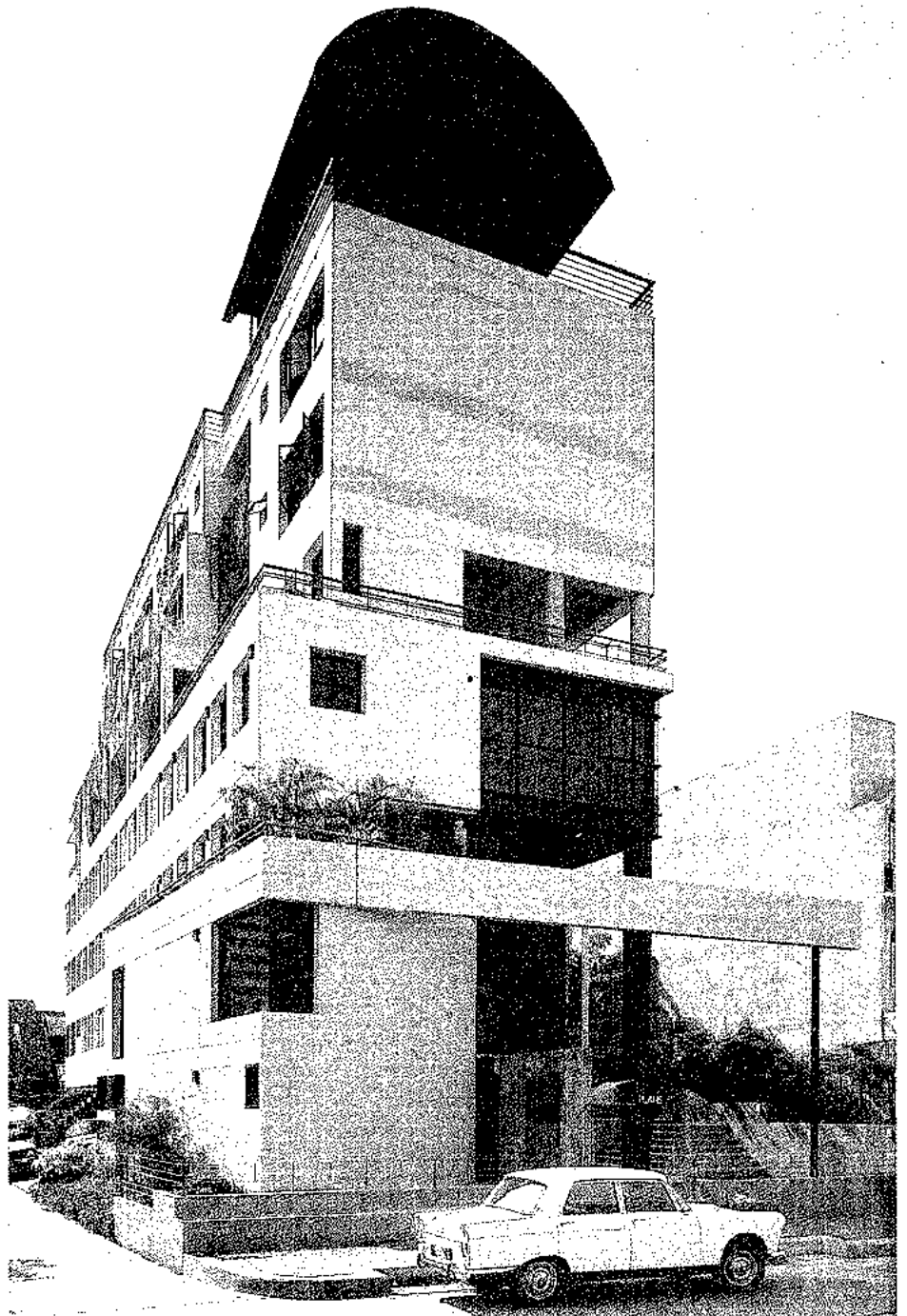
• 값진 유적과 예술품 보관, 전시를 그 기능으로 하며 도시환경 미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람들의 심미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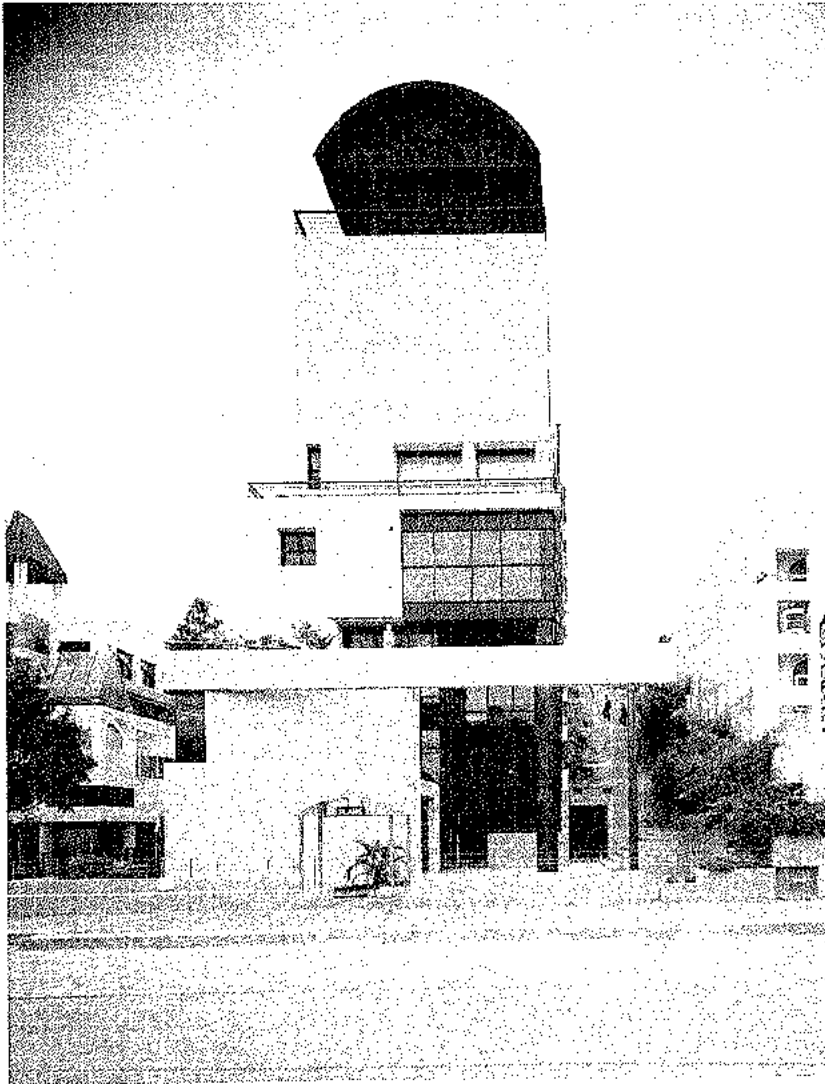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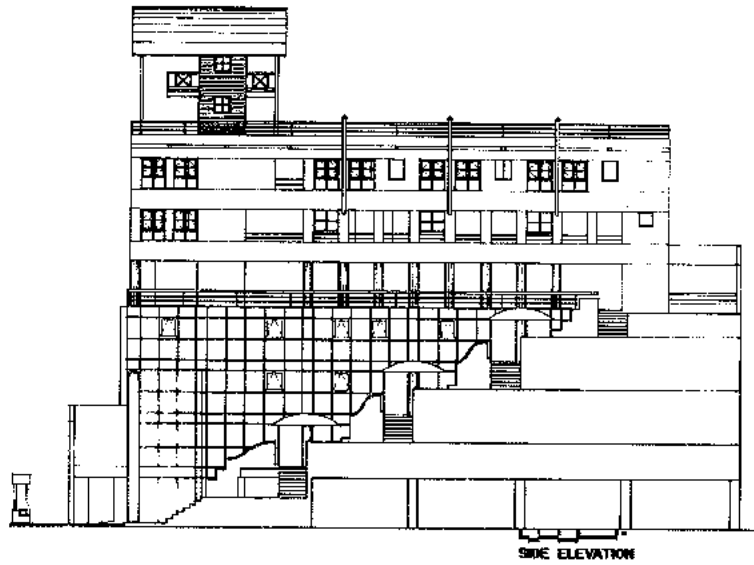
설계개념

1. 주위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2. 도로와 인접지역, 박물관 경내와 건물, 건물외곽과 내부, 전시실 등을 상호 일관된 흐름으로 연결하여 규모와 공간이 관람객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의 열거한 각 부분을 외곽의 돌출계로 연결하여 다른 건물과 다른 개성을 강조한다.
3. 작업장 (Working Area) 은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일에서 오는 긴장감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4. 건물의 구조는 단순하고 복잡한 요소를 세심하게 조화시켜 생동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자체의 통일성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5. 건물내에서도 가용면적은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일반대기실, 도서관,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사회적 접촉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도록 한다.
6. 전체건물은 Plans기업의 Image “인간위주의 기업”을 대변하도록 하여 품위와 친근감, 성실함과 명랑함, 위대함과 정중함이 어울리도록 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한다.
7. 색깔이 주는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서정성과 상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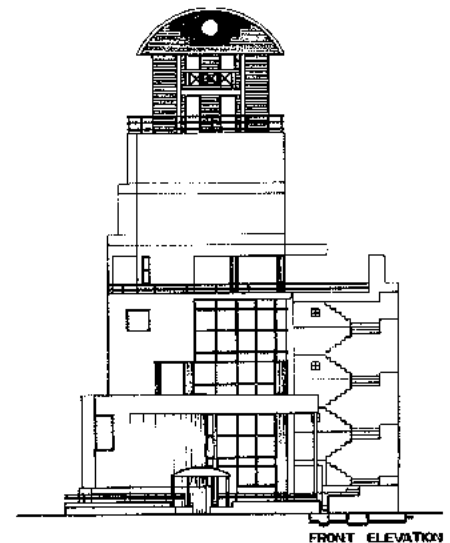
설계목적

1. Plans 그룹산하 4개 기관이 입주하여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일반에게 예술과 문화의 제공원이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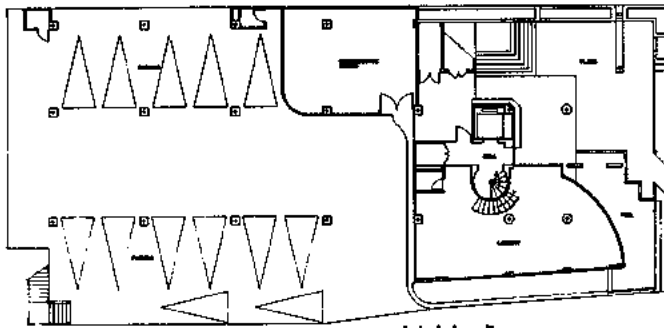


3. 영상편집 (ex : 사진) 이 가능한 시설을 마련한다.
 4. 전시, 영화, 세미나, 회의 및 기타 모임의 장이 되도록 다목적 개념을 부여한다.
 5. 주차장, 창고시설, 휴게실을 구비한다.
 6. 아파트 5개동과 휴식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한다.
- 기타 Plans Group 의 기업이념과 Image 에 부합하도록 설계에 주안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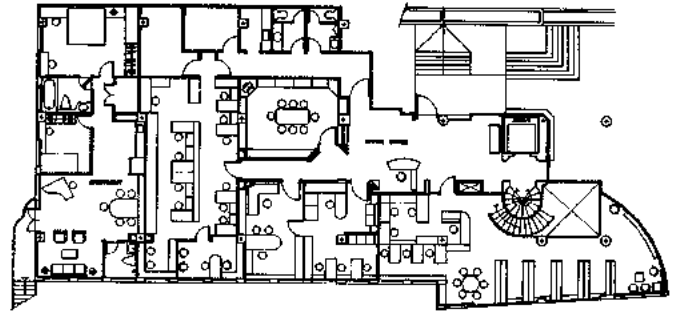


Project : Office building with 3 units apartment atop
Location : Soi Suksawittaya, North Sathorn Road, Bangkok
 Thailand
Owner : PLANS group (10 affiliated companies)
Construction cost : 10,000,000.00 baht
Time of completion : 1985
Scope of work :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Project area : 1,655 m²
Office area : 615 m²
Parking lot and multi-purpose area : 660 m²
Grand total : 2,930 m²
Construction specification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Floor: Slab on Precast joist

◆ 설계작품 / 사무실빌딩 (상층 : 아파트)
 위치 / Soi Suksawittaya, North Sathorn Road,
 Bangkok, Thailand
 소유주 / PLANS Group (10개 관련회사)
 설계비용 / 10,000,000.00바이트
 설립년도 : 1985
 설계면적 : 1,655m²
 사무실면적 / 615m²
 주차장 및 다목적면적 / 660m²
 총면적 / 2,930m²
 설계내역 / 콘크리트 보강구조



GROUND FLOOR PLAN



2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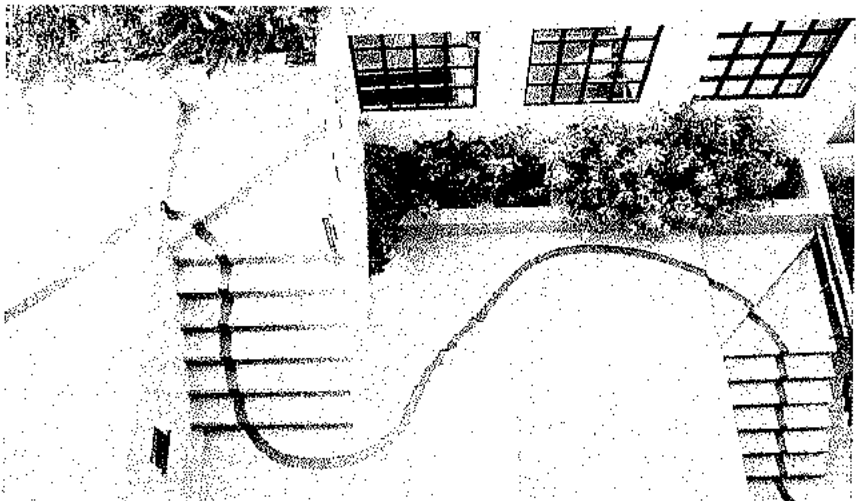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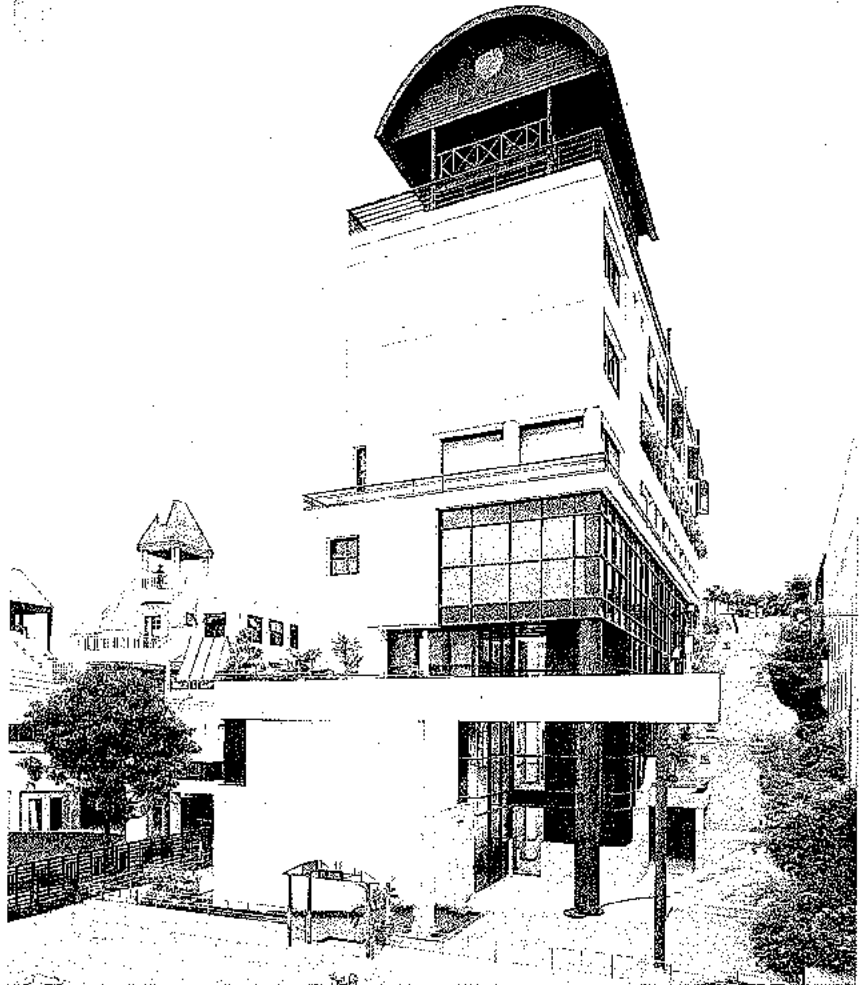
DESIGN OBJEC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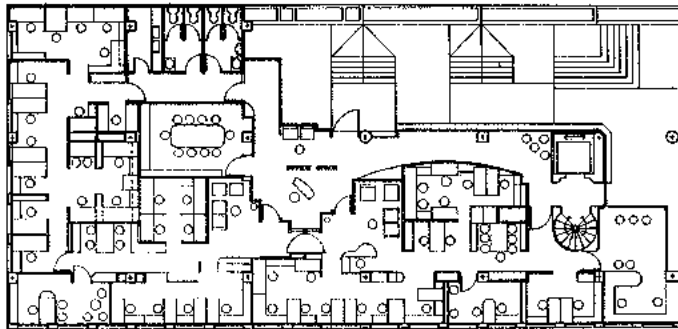
To create:—

- Building that provide proper environment; having its own characteristic of spirit and creativeness; a place where a number of folks are convinced by the building's physical conditions to work together with liveliness under creative environment, which eventually becomes "Corporate Culture" of PLANS group companies
- Building that owns precious value of art and design and, simultaneously, helps beautifying environment of the city: the building that attract people's sense of bea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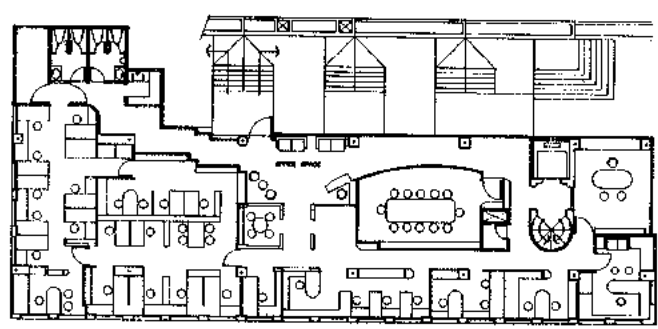
DESIGN CONCEPT

1. With respectiveness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building relatively separates its character out of others.
2. The importance of various design ideas of mass and space has been recognized equally to create the warm feeling of visitor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ad and the reaching area, the reaching area and the building, the outside and the inside, and finally reaching working area. All of those mentioned were created wisely by the outside stone stairway connecting every floor,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buildings.
3. Working area should have the air of nature connecting as much as possible to release work tension.
4. The architectonic composition is full of liveliness by various simple and complex architectural elements which wisely coordinate to create the building identity clearly and properly.
5. Usable area should contribute to good social interaction amongst, staffs; such as common area, public library, chatting area at the n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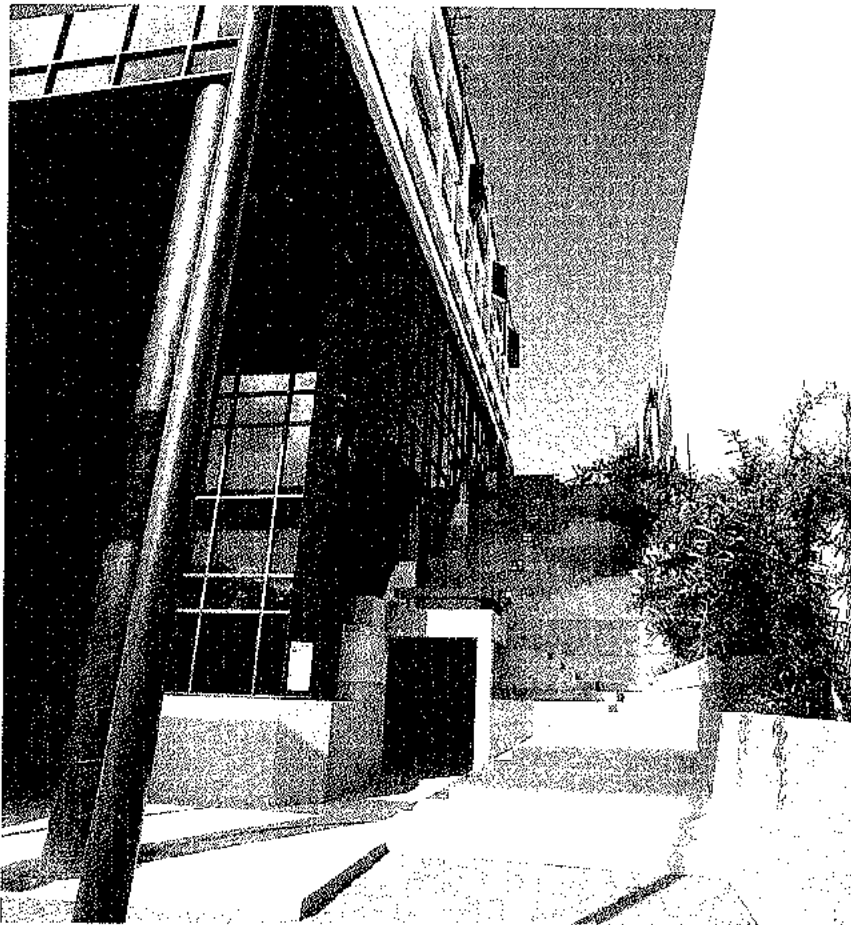




3rd FLOOR PLAN



4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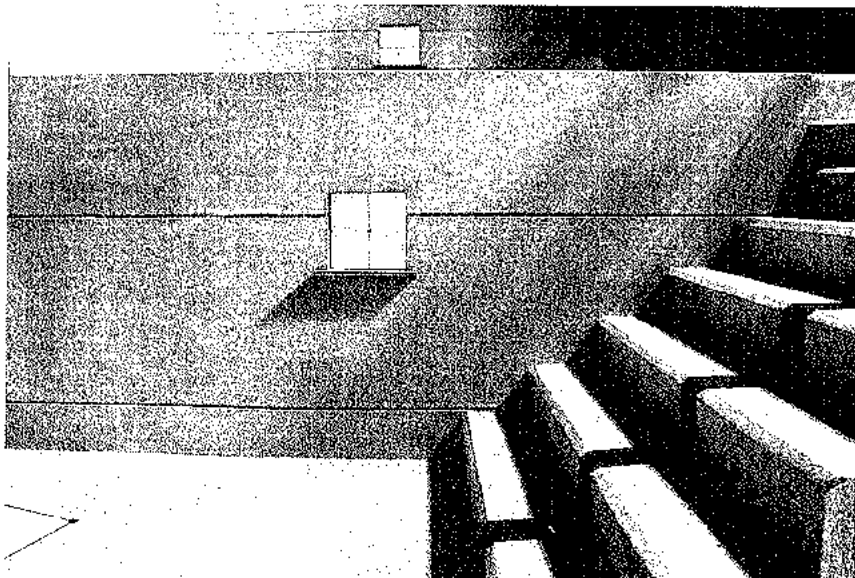
stairway of each floor.

6. All physical conditions can interpret the company's total image to be "Institution of Human"; graceful but friendly, hard-working but delightful, great but polite. At this place, everybody gets together in planning where and how to go, hand in hand.
7. Let colours play its role of beauty creator at its best to contribute to architectural meaning, emotion and imagination.

OBJECTIVES OF THE PROJECT

1. To be business office of 4 affiliated company of PLANS Groups.
2. To offer art and culture library service to the public.
3. To be Photography Studio.
4. Multi-purpose part for exhibition, movie, seminar, conference or other meetings etc.
5. Parking lot, storage room, rest rooms.
6. Apartment 5 units with common area for re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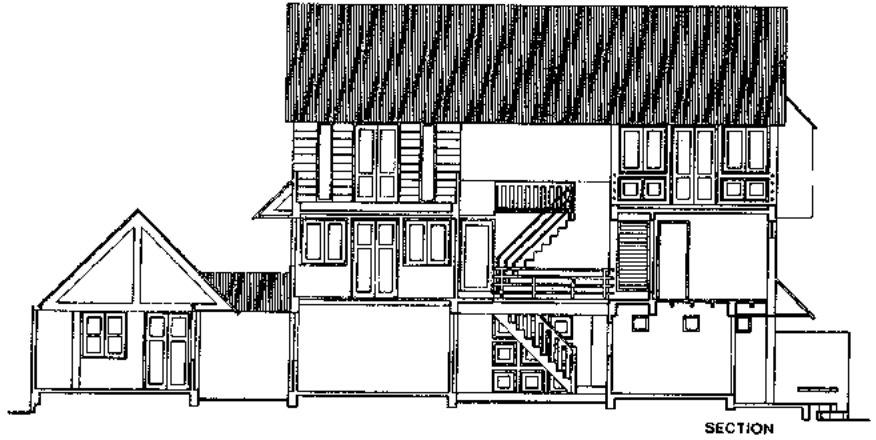
Moreover, the architectural design of this building should go well together with the philosophy and the image of PLANS group companies.



상가주택

Shop House

by Veera Inpant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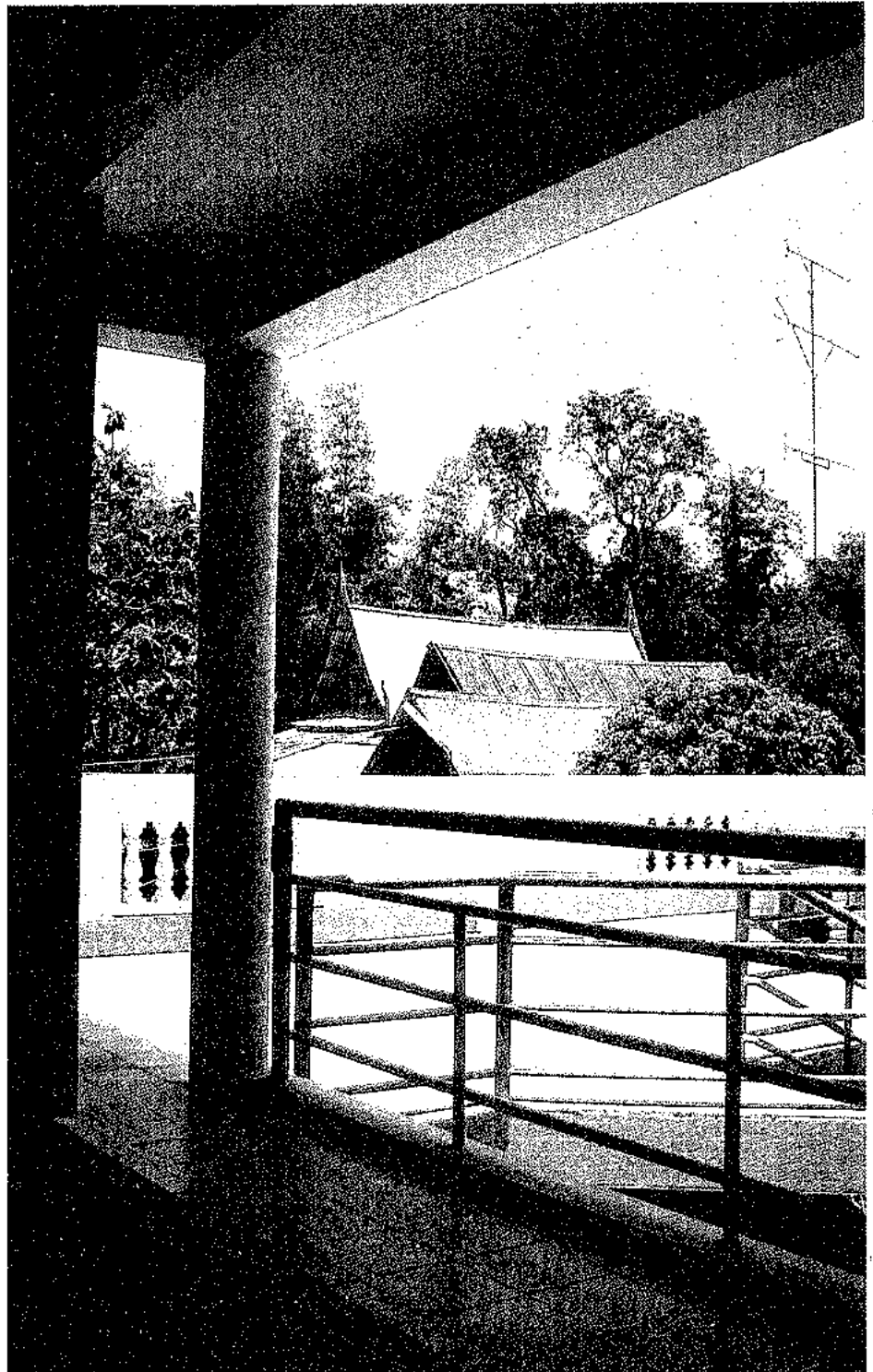
◆
설계작품 / 상가주택
위치 / Baan Wat, Tumbon Bho Phra, Petchburi
소유주 / Jaras-Suguan Inparting
설계면적 / 305 m²
설계비용 / 2,000,000바야트
설계년도 / 1986
건축사 / Veera Inpantang
계약자 / Local Contractor

설계개념

4인 가족과 일단의 작업자들이 사용할 주택으로써 타이 고유의 주택가에 위치한다. 타이의 고유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공간배치와 조형미를 추구하여 기존주택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 주택은 별도의 2개의 건물로 되어 본체는 3층의 주택이고 하나는 1층으로 된 작업실로 하여 통로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본체의 설계에 있어서는 사방이 Terrace로 트인 정방향의 배치를 하여 타이 고유양식을 원용하였고 타이주택이 좌의 45° 경사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3층의 자연목으로 마감한 벽면은 주위환경을 고려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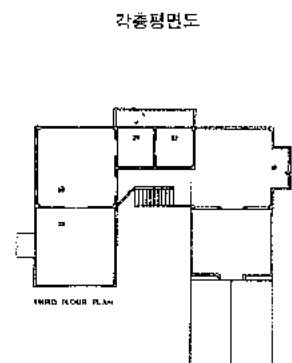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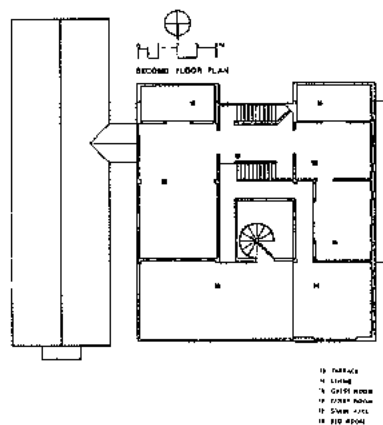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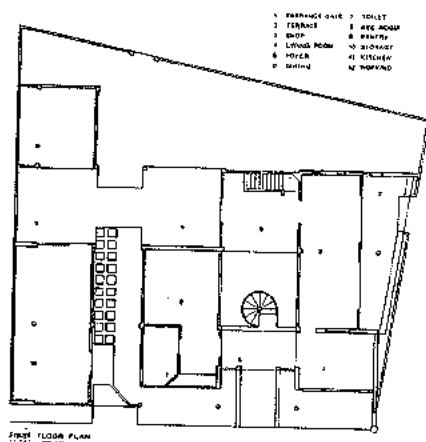
DESIGN CONCEPT

This house for a family of four and a group of workers is located on a corner site in front of the original Thai traditional style house. The design concept has been aimed to create a space and form that representation of Thai spirit, so that, the new one is designed to harmonizing with the existing house. The house is separated into two buildings, the main three-stories house and the one-story working quarter, combine together with covered way. The plan of the main house is a square configuration which the room setting around the open terrace gives a quality to the space at once reminiscent of Thai traditional style house. The 45 degree gable roof relates to the gable shape of the roof of the existing house while the natural wood walls of the third floor are used to relat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Project : Shop House
 Location : Baan Wat, Tumbon Bho Phra, Petchburi
 Owner : Jaras-Suquan Inpartang
 Building Area : 305 SQM.
 Construction Cost : 2,000,000 Baht
 Year Completed : 1986
 Architect : Veera Inpartang
 Structural Eng.
 System Eng.
 Contractor : Local Contractor
 Concept.



태국건축사협회본부 신관 건물

The New Headquarter Building for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by Jackarin Maneekul

태국 건축사협회본부 신관건물

본 작품은 1988년 7월 Design 공모전에서 입상한 Jackarin Maneekul의 것으로서 가까운 시일내 착공이 되어 태국 건축사협회의 본부로 사용될 예정이다. 건물이 들어설 대지는 방콕수도 동편에 예전 화폐주조국자리였으며 가로 17.50m 세로 75.40m의 다소 협소한 편이다. 새 청사는 행정실과 부속사무실, 회의장, 휴게실, 전시관, 도서실 등을 수용하며 행정기능 이외에 소속 건축가와 방문객들이 만나 Workshop, Seminar, 회의, 전시등을 수시로 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건물의 입안과 설계에 있어서는 다음 3가지 예로사항이 있었는데, 협소한 대지와 대지형태, 대지위치, 한정된 예산등의 문제를 안고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과 Project 의 요건을 살리는 절충을 시도하여야 하였다. 각각의 공간들이 전체 구조와 수시로 맞물려 확장, 축소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고, 단순기능 처리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여 건물로서의 제반요건에 부응하도록 함은 물론 주변단지의 개발계획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물의 전체적인 개관은 정면이 북향과 남향을 보도록 하여 건물내부의 순환은 최대한 자연조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편의 출입구를 동으로써 문순(우기) 때의 악천후에도 건물 본축이 지지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으며 정문입구에서 각층의 Terrace 까지의 동선은 건물내외부가 단절없이 교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대기후에는 이런 Design이 가장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최단의 공법과 절제된 현대감각을 살리면서 동적인 Design과 활기넘치는 형태를 유지하여 신비한 느낌을 주도록 하였다.

"THE NEW HEADQUARTER BUILDING FOR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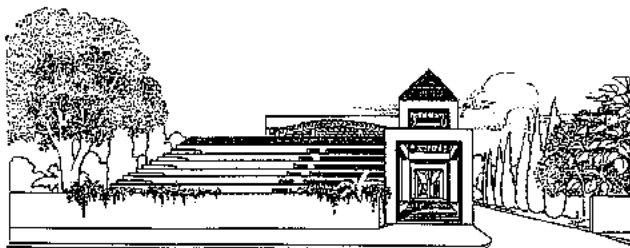
It is an award-winning project of the National Design Competition held in July, 1988; by Jackarin Maneekul, a young architect who has graduated from the Faculty of Architecture at Chulalongkorn University 3 years ago. The project which will be constructed in the very near future, will become the new headquarter for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The building itself will be located within a small site of approximately 17.50 m. x 75.40 m., situated next to the old Minting-House in eastern district of Metropolitan Bangkok.

This new Headquarter will accommodate the administrative offices, the secretariat, the conference hall, the meeting rooms, an exhibition space, and a library. In addition to its main function as an administrative center, it is intended to serve as a resource center and meeting place for member architects and guests where group activities such as workshop, seminar, conference and architectural exhibition could take place at frequent intervals. The planning and design of the building have to take into considerations 3 major constraints -- the limited size and shape of the site, the location with reference to the environmental scale of the surroundings, and the limit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s. In view of these factors, without having to compromise on the basic function and requirements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to define the separation of spaces as flexible and integrated as possible to the system of structures. By applying this planning logic to the simplicity of a post-beam structural system, 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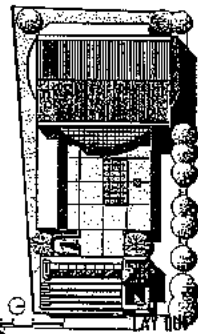
optimum spatial organization is attained; and the maximization of building requirements, as well as site development could be achieved.

The orientation of the building, with its main facades facing north and south, provides maximum flows of ventilation for natural cooling of interior spaces of the building. The location of the main entrance on the east-side of the building serves to protect the approach axis from turbulent climatic condition during the monsoon season. The progression of levels from the main entrance leading up by steps through terraces of semi-covered opened space creates a continuous flow and continuous connections between exterior and interior spaces. This element is most desirable in tropical design.

Regardless of its modest applications of high-industrialized technology, and unobtrusive marketization of modernity, the design brings to life the enigmatic qualities of dynamic order, and the timeless spirit of animated fo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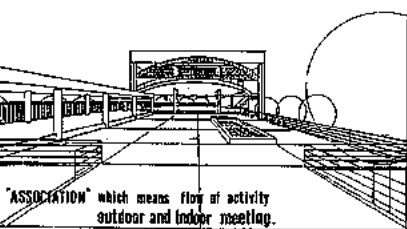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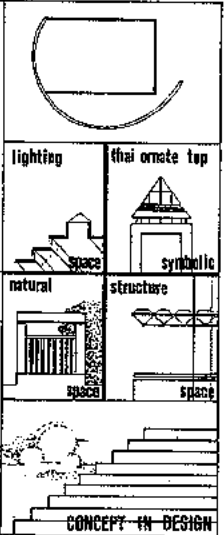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



FUNCTIONAL 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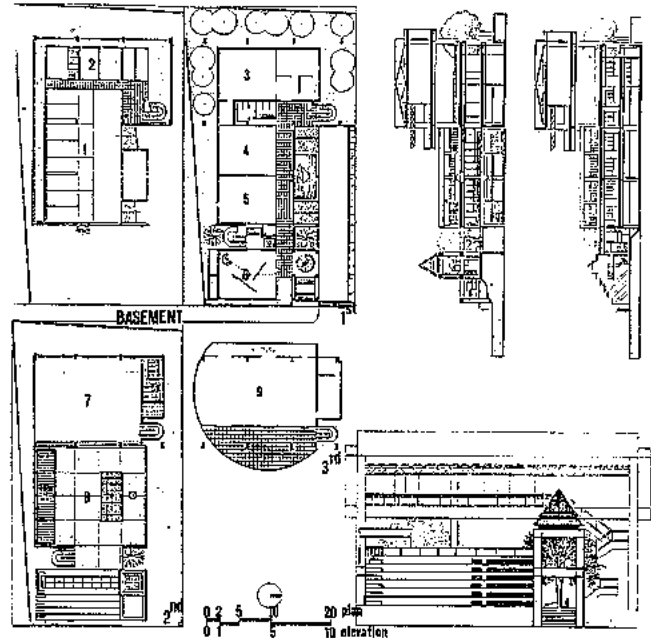
1. parking
2. service
3. conference room
4. office space
5. library
6. exhibition hall
7. multi-purpose
8. outdoor space
9. conven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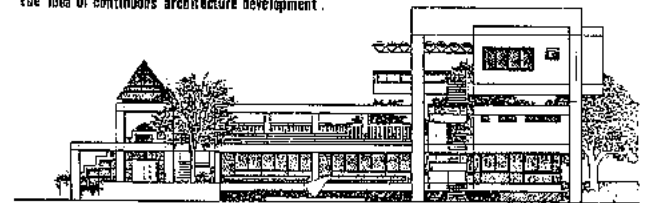
"ASSOCIATION" which means flow of activity outdoor and indoor meeting.

CONCEPT - I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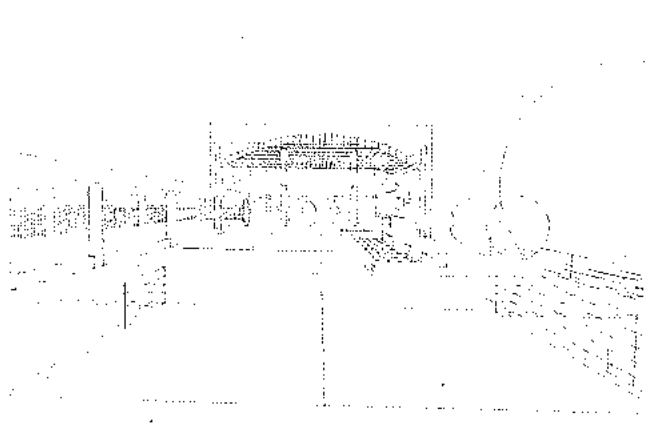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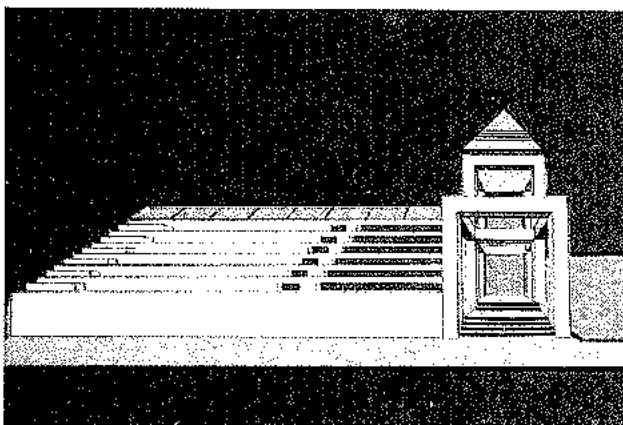
REGARDLESS OF TIME, this building will always present its meaning and character.



"AT the frontage of the building" Steps are used to present the idea of continuous architectur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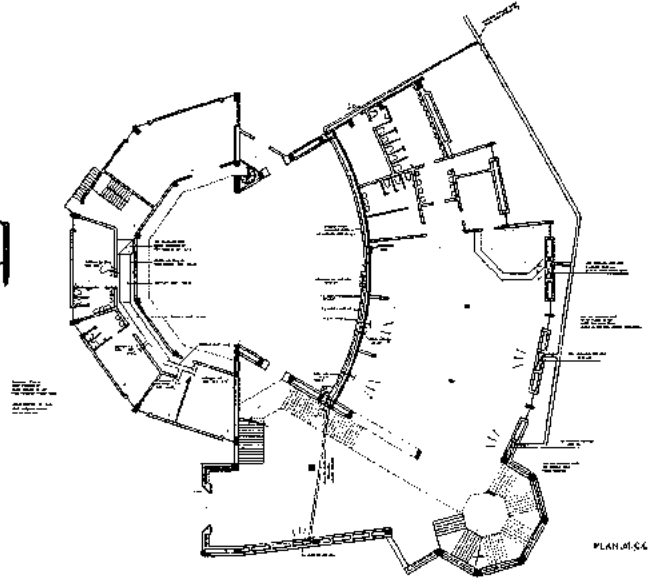


ARCHITECT Jackarin maneekul Bangkok, Thai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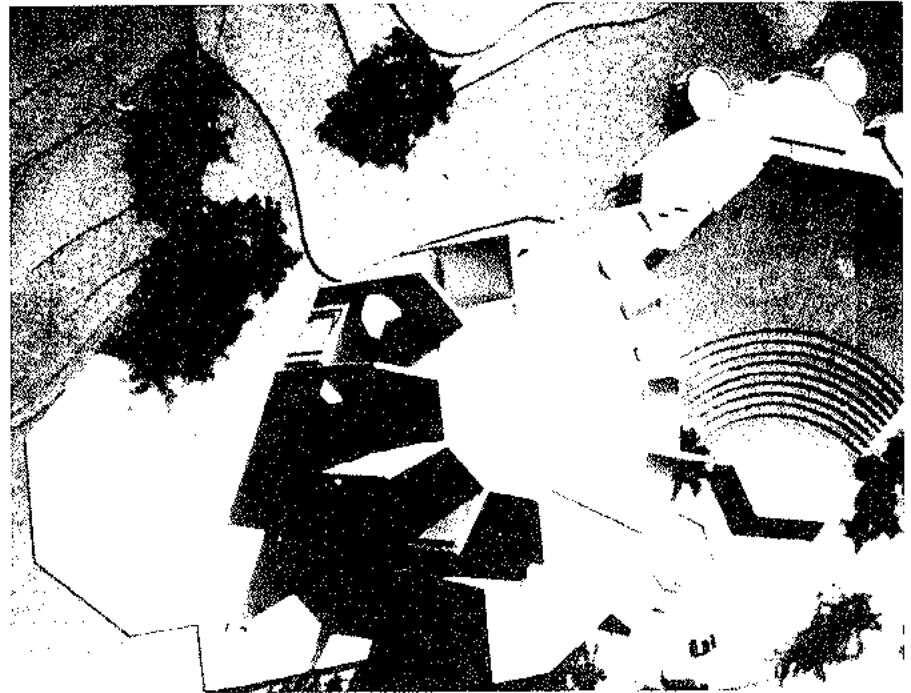
ABASIN 예술 협의회

ABASIN Arts Council



예술 협의회 건물은 Peshawar의 옛 도시의 윤곽과 문화에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부채모양의 건물설계에는 모든 현대식 오락설비와 무대 뒤 설비를 갖춘 아주 편리한 공연장이 하나 포함되어 있다. 공간이 넓은 실내장식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 그 고도의 요새앞에 있는 Peshawar의 스카이라인에 우뚝 솟아있다. 그 외부의 특이한 모습은 그 지역의 고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룬다. 좋은 벽돌을 사용할 수 없었던 관계로 벽돌벽은 치장 벽토로 덮여 있다.

Abasin 예술 협의회는 내장은 풍부하나 외장은 소박한 건물로서 Peshawar의 현재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높이가 높은 현관 로비는 대형 축하연과 전람회를 위하여 설계되었다. 유동공간이라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수평과 수직으로 흐르면서 살아났으며, 예술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용도 및 미술에 가장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외장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용어가 침착하고 경제적인 표현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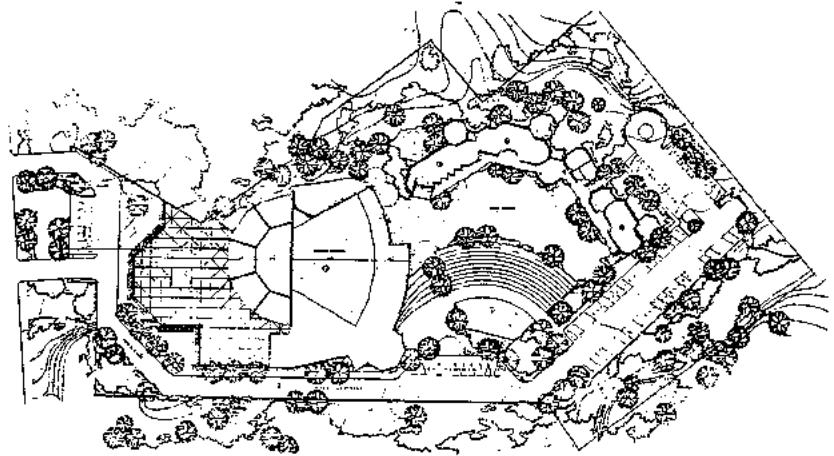


The Arts Council building is conceived to fit in the contours and culture of the old city of Peshawar.

The fan shaped plan takes care of an extremely efficient Auditorium, equipped with all the modern amenities of the Hall and back stage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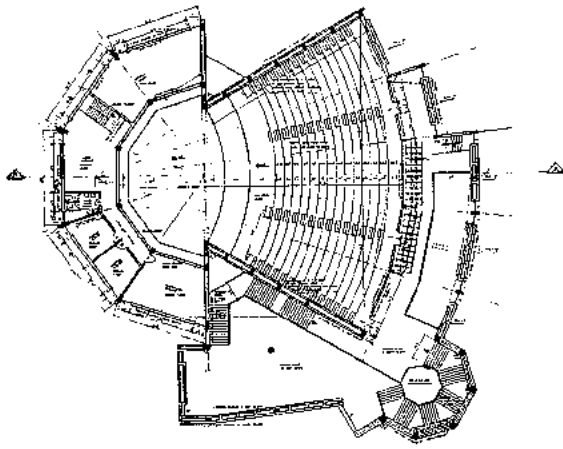
A modern building with spacious interiors, dominates the skyline of Peshawar in front of the Old Fort. The external character responds to the ancient architecture of the region. Due to non-availability of good brick, the brick walls are covered with stucco. Abasin Arts Council is a building with rich interiors and a rustic exterior, harmonizing with the existing environment of Peshawar.

Tall Foyers are designed to take care of large congregations and large exhibitions. A quality of fluid space has b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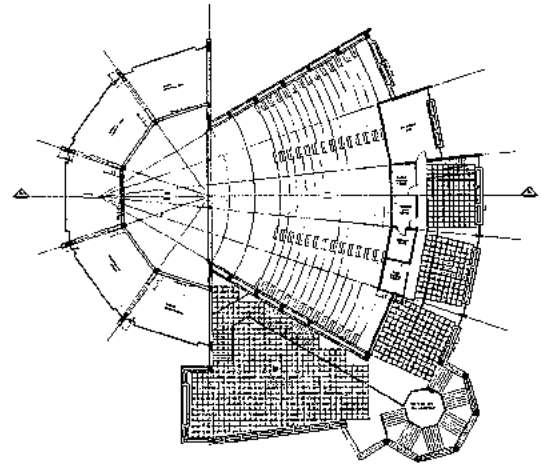


achieved, in these areas flowing both horizontally and vertically, best suited for multiple use of performing arts, and fin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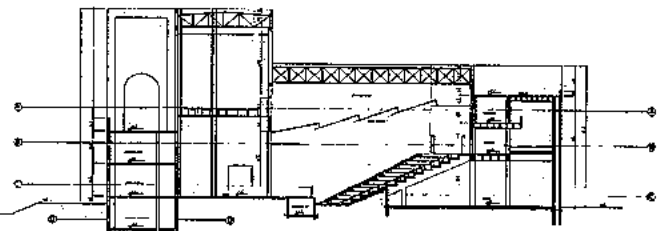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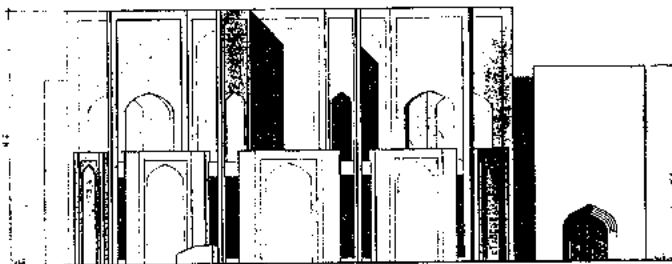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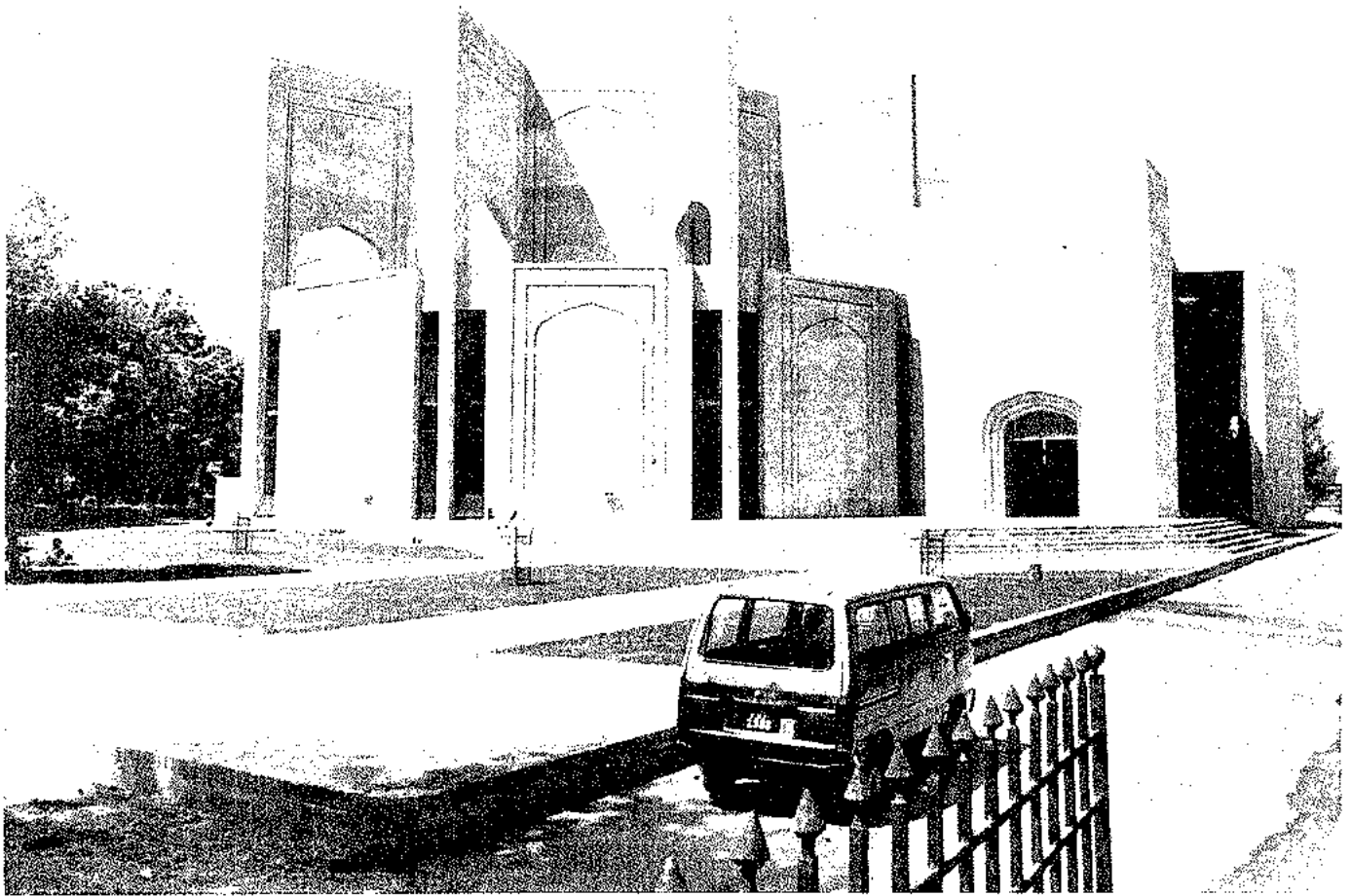
Traditional language in the exterior has been used with discretion and caution, maintaining the repose and economy of expression.



PLAN A1-B-B



PLAN A1-A-A



SECTION A1-A-A

상업조합사무실 건물

Commercial Union Regional Office Building

by Habib Fida Al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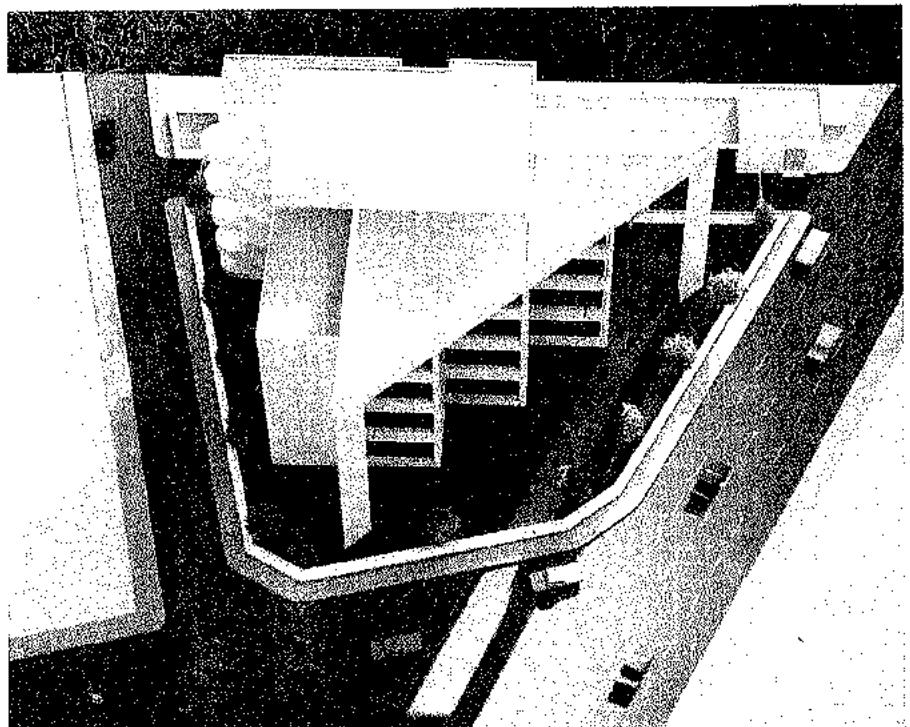
◆
설계작품 : 상업조합사무실 건물
위치 / 파키스탄 카라피
의뢰인 / Commercial Union Assurance
건축사 / Habib Fida Ali
설계자문 / Fahim, Nanji & De Souza
착공년도 / 1983년 12월
완공년도 / 1990년
배치계획면적 / 1,500m²
설계비용 / 1,500,000루우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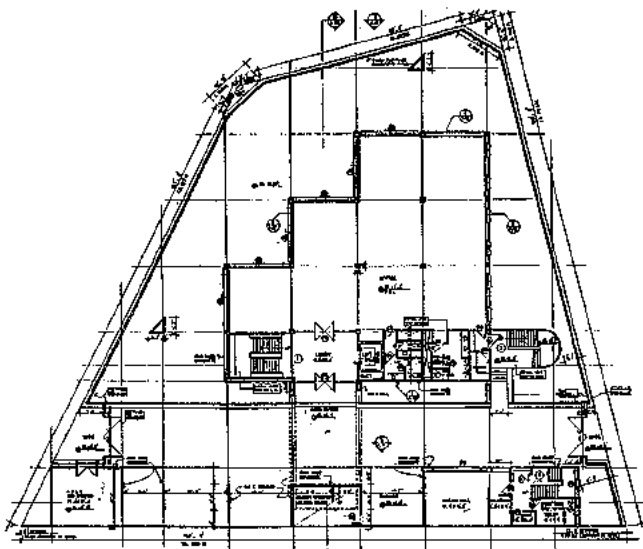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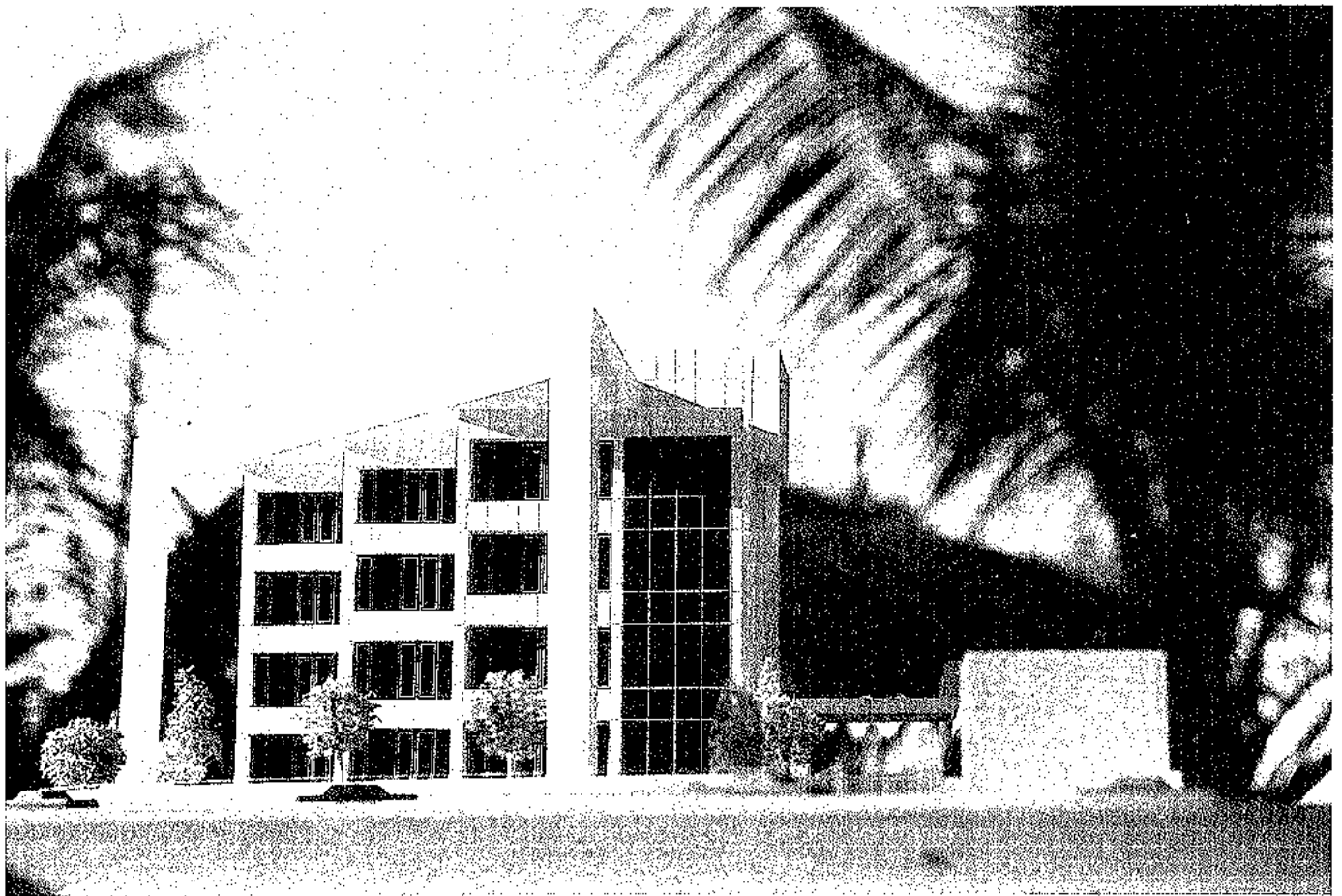
Project : Commercial Union Regional Office Building
Location : Karachi, Pakistan
Client : Commercial Union Assurance
Architect : Habib Fida Ali
Consultants :
Structural, Mechanical, Electrical: Fahim, Nanji & De Souza
Date of Conception : December 1983
Expected Date of : 1990
Completion
Area of Plot : 1500 sqm
Estimated Total Cost: Pak Rs. 1.50 million
Description : It's a ground plus 3 building. It has a triangular form which responds to its site. A canopy comes on top of the building which acts as a shading device. The canopy responds to the regional climate. It also frames and defines the building. The building is centrally air-conditioned and is finished in fairfaced concrete. It has an ancillary building which house services, such has, generator room, car park, dining facility and praying room. The main building is raised on 50ft deep pile foundation.

작품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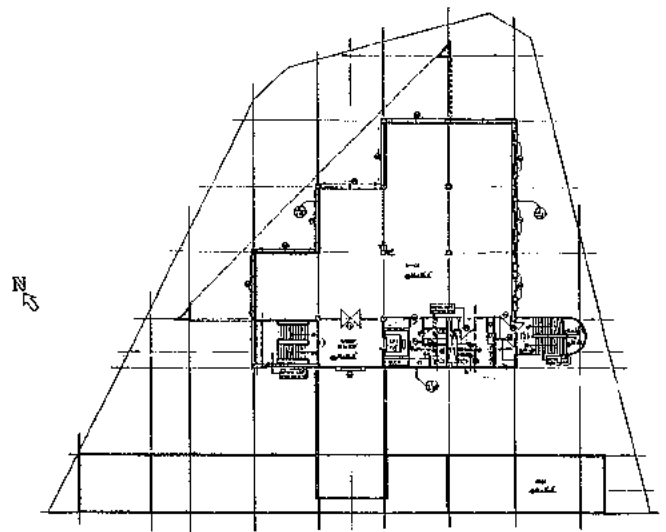
이는 지상3층 건물이며 이는 부지형태에 따라 삼각형으로 된 건물이다. 건물의 꼭대기에는 캐노피가 있는데 이는 차양 역할을 한다. 캐노피는 그 지방의 기후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또한 건물의 틀을 이루는 것이며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 건물은 중앙 냉방식이며 외관이 아름다운 콘크리트로 외장되어 있다. 이에는 발전실, 주차장, 식사시설 및 기도실과 같은 여러 용도로 쓰이는 보조건물이 있다. 본관건물은 50피트 깊이의 기초공사 위에 건설되었다.





Ground Floor Plan



Typical Floor Plan

BAGH-E-QUAID-E-AZAM

◆ 설계작품 / BAGH-E-QUAID-E-AZAM
위치 / QUAID'S MAZAR 카라치 - 파키스탄

작품개요

설계국이 개발한 Quaid의 Mazaar 소재 가든에 대한 설계 제안은 이슬람세계, 특히 금욕주의 세계의 주요 묘원에 대한 연구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슬람 묘원의 기본원칙 및 그 주요특징, 즉 보도, 수로, 늪지, 샘, 인공폭포, 녹지, 휴식공간, 갈리 및 플로어 패턴은 리듬, 균형미 및 선형미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본 설계 제안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부지의 특징, 윤곽, 묘지의 형태, 크기 및 위치등을 고려하였다. 본 부지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것은 묘지이기 때문에 주요 묘지형태와 상충되는 수직 모양물이나 건축물은 전혀 설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묘지와 더불어 묘원설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최하부 주춧돌의 크기 (250, 250 피트) 가 설계 모듈로서 채택되었다. 동 설계안은 동일한 크기의 여러 녹지를 보도와 수로로 경계짓고 있다. 이러한 수로에는 모두 분수가 있다. 이러한 수로의 교차지점은 모두 대형 분수로 표시되어 있다. 녹지는 다시 중앙이 높여진 직선보도나 중앙에 수직의 작은 인공폭포가 있는 앉아 있을 수 있는 낮은 지대로 구분된다. 전면에 있는 전체지역은 5개의 레벨 (RL, 2, 4, 6, 8 피트) 로 층이 지어 있다.

세부 설계작업은 완벽하여 동 프로젝트의 공식 서류들은 완벽되어 정부에 제출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설계국 - KDA 에서 시행허가 및 자금이 유용해지는 대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Quaid의 Mazaar 에 있는 묘원 조성안의 특징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DESIGN CONCEPT

The design proposal for the Garden at Quaid's Mazaar developed by Design Bureau is derived from the studies done on principal mausoleum gardens of the Islamic World, specially of the sub-contin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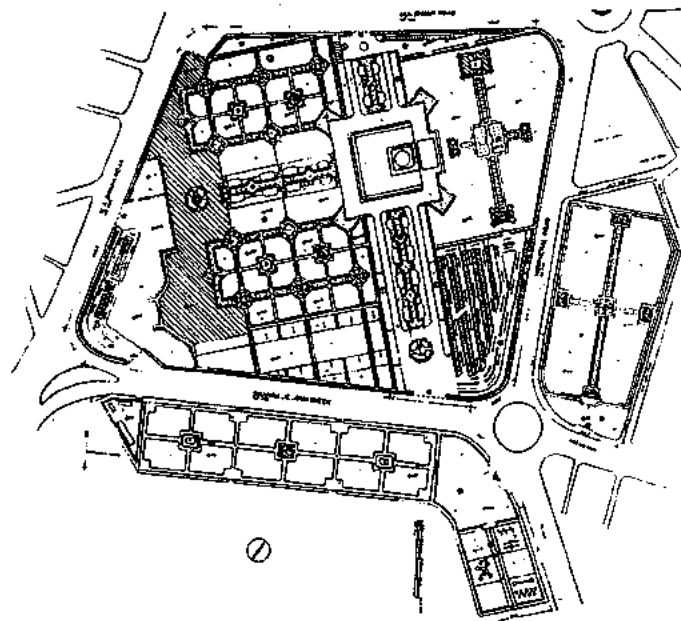
The basic principles of Islamic gardens and its main features namely the walkways, water channels, water ponds, fountains, water cascade, green areas, rest plat-forms, jali and floor patterns have been used to create rhythm, symmetry order and linearity.

In preparing the design proposals, the site features, contours, the form, size and placing of the mausoleum have been considered. As the mausoleum is the most prominent and important feature on the site it was decided that no prominent vertical feature/construction would be included in the design which would compete with the main mausoleum structure.

To integrate the garden design with the

Mausoleum, the size of the podium (250 x 250 ft) was adopted as a design module. The proposed design has divided into the equal sized green areas bounded by walkways and water channels. These water channels are provided with fountains. Every intersecting point of these channels is marked by a large fountain. The green areas are again divided by straight walkways with a raised platform at its centre or submerged sitting areas with vertical cascades in the center. The entire area in front is terraced into five levels (RL, 2, 4, 6, 8 f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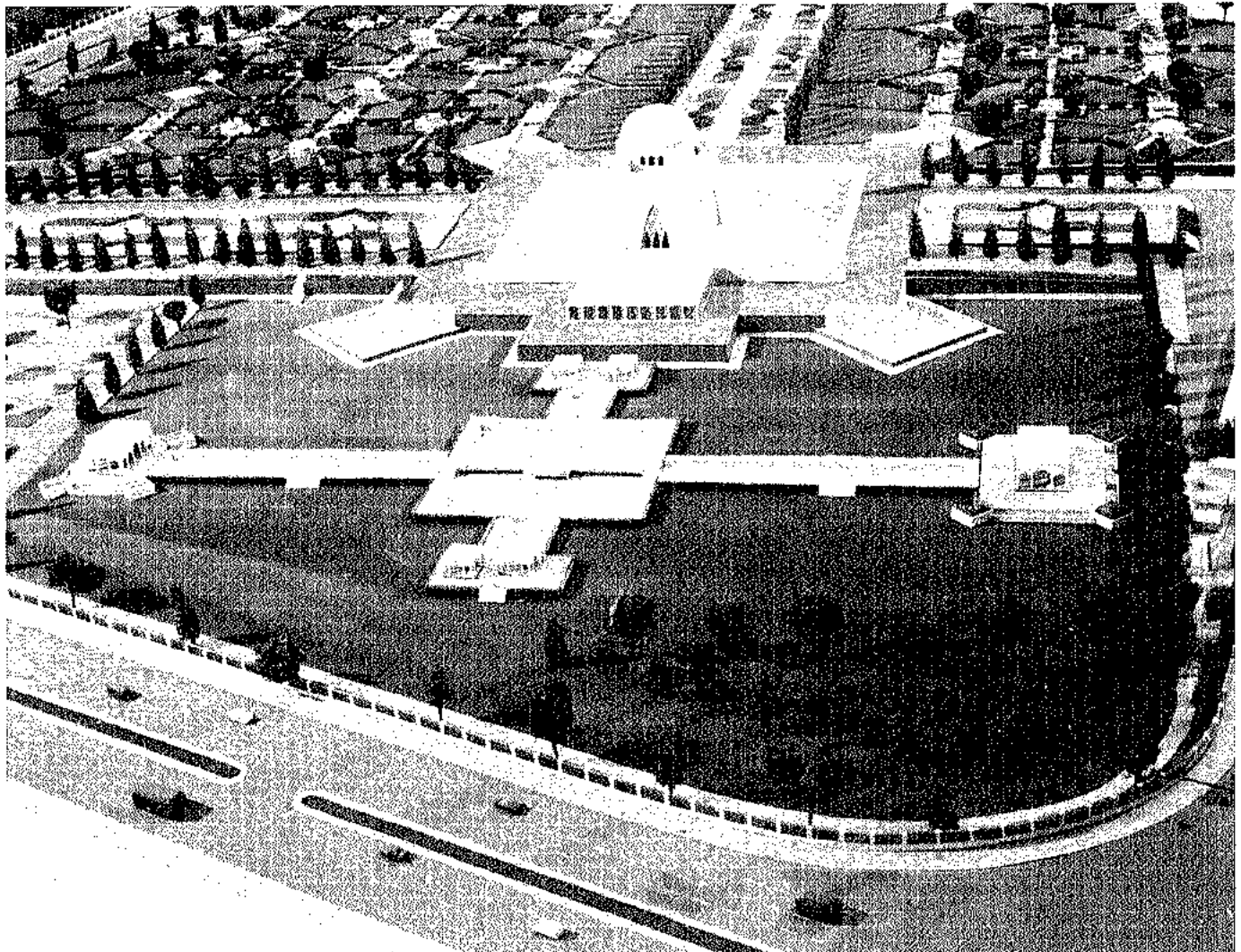
The work on design details is complete and the projects formal documents have been prepared and submitted to the Government. The project is ready for implementation, as clearance and funds are made available to Design Bureau - KDA for implementation. Salient Features of the Proposed Land-scaped Garden at Quaid's Mazaar are given below.



**SALIENT FEATURES OF PROPOSED DESIGN
FOR SHALAMAR TYPE GARDEN AT QUAID'S MAZAAR**

MAJOR ITEMS:	AREA/NOS.	COST
01. Garden Area	90.00 acres	
02. Lawns	36.00 acres	3,758,400.00
03. Platforms	3.02 acres	7,681,392.50
04. Walkways	10.13 acres	7,616,558.22
05. Parking Area (2765 cars)	10.85 acres	4,452,736.00
06. Baradari (Large 2 Nos.)	3619 S.Ft	1,041,759.00
07. Baradari (Small 14 Nos.)	5912 S.Ft	4,681,098.22
08. Kiosks/Public Toilet	6100 S.Ft	762,500.00
09. Fountains	800 Nos.	2,800,000.00
10. Water Channel	5810 R.Ft	19,953,002.00
11. Trees	10,000.00 Nos.	2,000,000.00
12. Water Ponds	87600 S.Ft.	3,219,226.00
13. Potable Water	85100 Gallons	
14. Treated Effluent	0.25 Mgd	
15. Special Park	3 Nos.	
16. Flower Bed	83080 S.Ft.	
17. Estimated Project Cost	112.00 Million	
19. Cost per acre for 90 acres	1.24 M/acre	
20. Comparative cost for Prestigious Buildings (Rs. 200 million) on 13 acres in the Peripheral area	Rs. 15.38 M/acre	

NOTE: The cost figures shown above are for major items only.



농업대학

Northwest Frontier Province Agricultural University

by Skidmore Owings & Merrill(U. S. A.)

Ahed Associates(Pakis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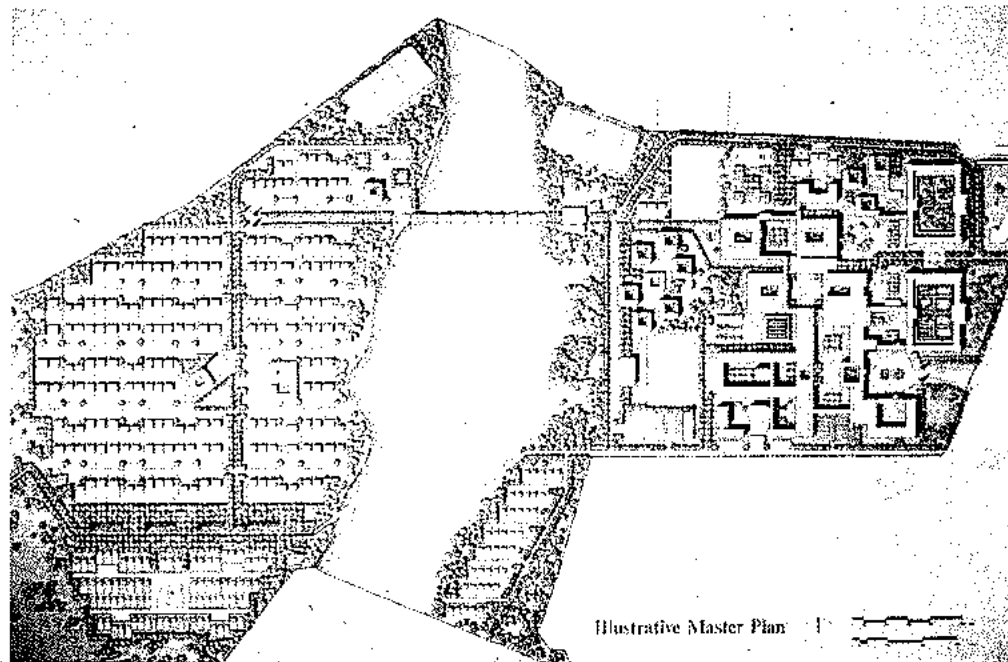
◆ 설계작품 : 농업대학
 위치 / 파키스탄 페샤와
 소유주 / 파키스탄 정부
 완공연도 / 1991년 (1단계)
 건축사 / Skidmore Owings & Merrill (미국)
 Ahed 종합건축사사무소 (파키스탄)
 설계면적 / 45,000m² (1단계)
 설계비율 / 미화 30,000,000달러

작품개요

Skidmore Owings & Merrill이 개발한 1983년의 마스터 플랜은 설계우수상에 천거되어 수상한 바 있는데, 이는 원래 학교건물, 교수숙소 및 학생 기숙사로 구성되는 170ha 캠퍼스중 제1단계 설계 및 건축의 기본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본 대학은 1200명의 학생을 수용할 것이며 광범위한 지식탐구활동 및 지속적인 교육 교육프로그램을 맡을 것이다.

학교 건물은 시각적인 인식수단 제공뿐만 아니라 심미적이고 마이크로한 분위기조절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도로포장과 분수로 장식한 대형 의례적 모습을 갖춘 출입구 주위에 계획되었다.

다른 소규모 정원들이 학교건물 단지 중앙을 통해 뻗어있는 일련의 보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정원들은 그 주위의 용도에 맞게 크기와 특성이 다양하다. 건물은 6m x 6m 그릿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석재로 전면 처리한 국내생산 벽돌로 설계되어 있다. 세심하게 설계한 목재 스크린이 보도를 따라 넓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여름 태양을 차양시켜 주며, 자연 통풍을 극대화시켜 준다. 도로, 급수, 하수, 가스 및 전력망 이외에 지원 시설에는 계절에 따라 증감하는 하상위에 설치된 보행자 적교도 포함되어 있다.



BRIEF DESCRIPTION OF PROJECT:

The 1983 Master Plan developed by Messrs. Skidmore Owings and Merrill which has been commended and received a design excellence award, forms the basis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hase I of the 170 hectares Campus which primarily is composed of Academic buildings, Faculty housing and Students hostels. The University will accommodate 1200 students and will undertake extensive outreach activities and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me. The Academic buildings have been planned around a large ceremonial entrance courtyard, landscaped with special paving and water features to serve aesthetic and micro climate control objectives as well as to provide a means of visual orientation. Other smaller courtyards are linked with a series of pedestrian paths extending through the centre of the Academic Complex. Each of these courtyards vary in size and character to suit the uses

which surround them. The building are planned on a 6m x 6m grid with reinforced concrete frame structure and locally produced bricks with a facing of locally available stone. Carefully designed wood screens are extensively incorporated along the pedestrian paths to provide summer solar shading and maximize natural ventilation. Infrastructure work besides road, water supply, sewerage, gas and power network includes also a pedestrian suspension bridge over a seasonal river bed.



Project : Northwest Frontier Province Agricultural University,
 Peshawar, Pakistan
Owner : Government of Pakistan
Completion : 1991 (Phase I)
Architects : Skidmore Owings & Merrill, USA in Association with
 Ahed Associates, Karachi, Pakistan
Partner Incharge (SOM) : Robert P. Holmes
Partner Incharge (AA) : Ejaz Ahed
Built up Areas : 45,000 SQM (Phase I)
Total Cost : US\$30,000,000.00

노동자숙소

Workerhousing, Steel Town, Pipri Karachi

by Ahed Associates

◆
설계작품 / 노동자 숙소
위치 / 카라치 피프리 스틸타운
소유주 / Pakistan Steel Mills Corporation
설계년도 / 1980
건축사 / Ahed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면적 / 30,720m²
설계비용 / 미화 3,300,000달러

작품개요

본 노동자 숙소는 카라치의 교외지역인 Pipri에 있는 파키스탄 최대 제철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부양 가족들을 위해 개발된 35만 인구를 수용하는 전시가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곳이다.

본 숙소는 노동자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그 건축개념은 4m×4m짜리 구조 모듈위에 조립식 구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한 저층 아파트 구조의 점착지역개발 개념이었다.

아파트의 각 블록에는 각각의 넓이가 약60평방미터인 세대 16개가 들어있다. 각 세대는 세대당 화장실과 주방시설에 추가하여 세대별 테라스와 더불어 방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세대간 프라이버시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며 이는 아주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각 세대의 계단식 특성에도 불구하고 각층에 대한 서비스 서가는 수직으로 배치되었다. 세탁, 자전거와 모터 사이클 주차, 쓰레기 수거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공동시설은 각 블록의 지층에 있다.

본 단지는 이러한 아파트 32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블록간에는 지역간 상호교류 원활화를 위해 운동장과 보행자 보도들이 개발되어 있다. 전 지역에 조경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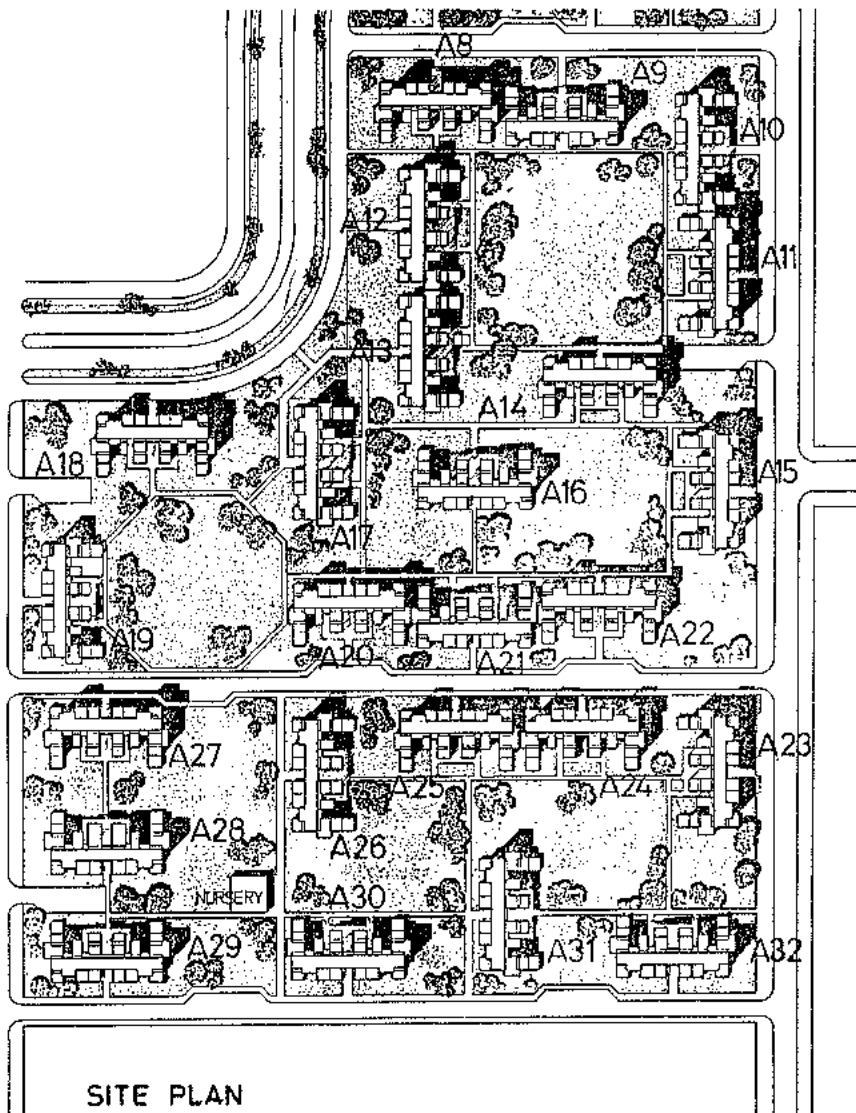
Project	: Worker Housing, Steel Town, Pipri, Karachi
Owner	: Pakistan Steel Mills Corporation
Completion	: 1980
Architects	: Ahed Associates, Karachi
Part Incharge (Design)	: Ejaz Ahed
Engineers	: Mushitq & Bilal, Karachi
Mechanical Engineers	: Ahed Associates, Karachi
Electrical	: Progressive Planners, Karachi
Built up Areas	: 30,720 SQM
Total Cost	: US\$3,300,000.00

BRIEF DESCRIPTION OF PROJECT:

This Worker Housing forms part of new town of 350,000 population developed for the workers and support population for Pakistan's largest steel mill at Pipri, a suburb of Karachi. This particular housing was developed for the workers and the concept was a cohesive community development in low rise apartment structures which was originally conceived for prefabricated component use on a 4m x 4m structural module. Each block of Apartments comprises of 16 units of approximately 60sqm each. Each unit consists of 2 rooms with a private terraces in addition to private toilet and kitchen facilities.

Full concern for privacy had to be ensured between units which has proven to be very successful. Despite the terraced nature of the units service stacks for each floor have been vertically aligned. Common facilities for clothes washing, cycle and motorcycle parking and garbage collection and other services are provided on the Ground level of each block.

The complex comprises of 32 such apartment blocks which have play area courtyards and pedestrian pathways developed for smooth community interaction between blocks. Landscaping has been appropriately developed in the whole area.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 건물

Office Building at Islamabad

by Ahed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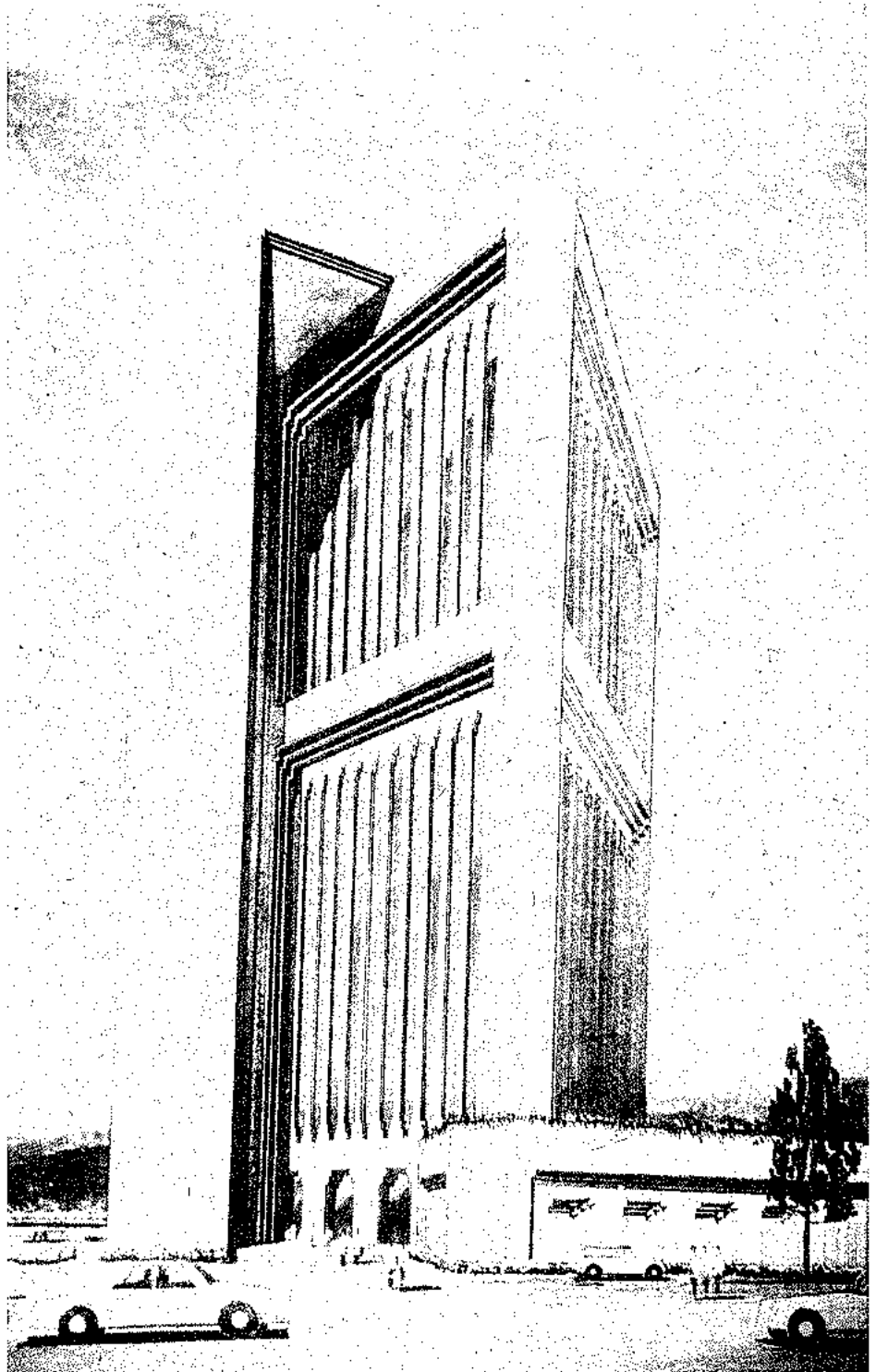
작품개요

본 건물은 벽 내부를 채우고 수직 리본형 창문을 가진 17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아름다운 도시 이슬라마 바드 (파키스탄 수도) 에 있는 그림과 같은 풍경의 Margalla Hills 의 기슭에 위치한 싱그러운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계조작실이 가용 사무실 면적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불필요한 태양열을 차단하여 사방이 파노라마와 같은 경관을 갖고 있다. 중심부에 있는 주 엘리베이터 이외에 건물의 한쪽끝을 따라 전망 엘리베이터 한대가 가동되고 있다. 1층에는 은행지점용 공간과 오디오 및 비디오장비를 갖춘 직원훈련용 및 회의 개최용 강당이 위치해 있다. 지하실에는 자동차 주차공간과 함께 전기, 기계 및 다른 지원설비들이 갖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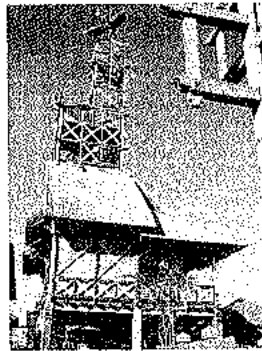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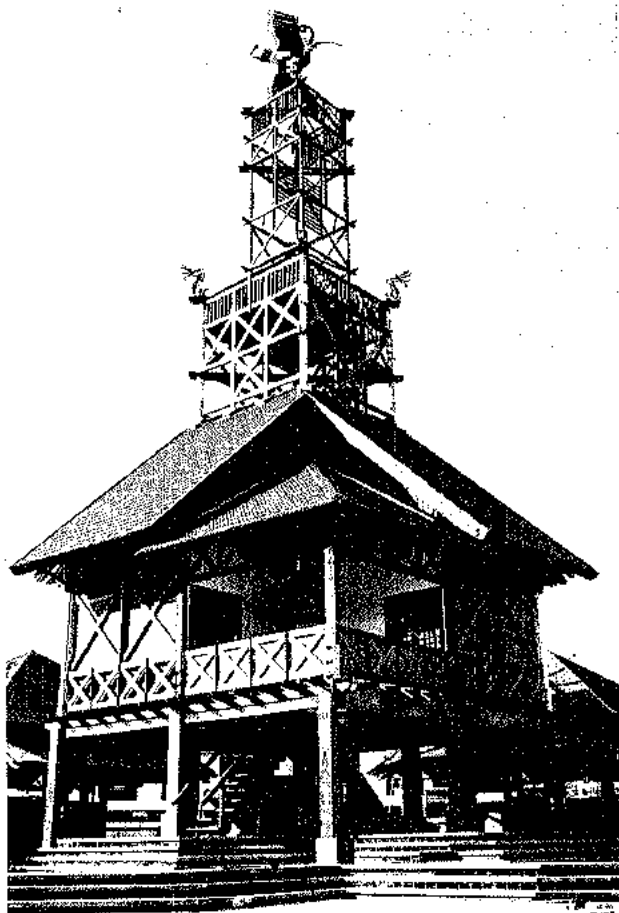
BRIEF DESCRIPTION OF PROJECT:

The building is a 17 storeyed reinforced concrete frame structure with infill walls and vertical ribbon type windows, located in a lush green area at the base of the picturesque Margalla Hills in the beautiful city of Islamabad (capital of Pakistan) with the service core separated from the usable office area, allowing panoramic views all around without allowing unnecessary solar loads.

Besides the main elevators in the core a panoramic elevator has been provided running along one edge of the building. On the ground floor are located spaces for a bank branch and an auditorium for staff training and holding conferences alongwith necessary audio-visual aids. The electrical, mechanical and other support service alongwith car parking space has been provided in the basement.



CITRA NIAGA 상업센터



“퇴거없는 통합 도시재개발”

“CITRA NIAGA” 상업센터는 East Kalimantan 주 Samarinda 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공공부지 2.7헥타아르 상에 건설된다. 그곳은 실로 메마르고, 위험한 화재가 빈발하며, 황폐하고 미위생적인 빈민지역이었다. 사실 이 지역은 1971, 1975, 1979년에 여러차례 화재로 큰 피해를 당하였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은 Samarinda 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East Kalimantan 주의 수도이므로 당당한 수도시로서의 적절한 인상을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질 못하였다. 1971년 이래로 이 구역을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나 노력도

없어왔다.

1983년부터 혁신적인 도시재개발계획인 “Citra Niaga” 가 슬럼지역이었던 이곳을 잘 계획된 훌륭한 도심지로 바꿔 놓았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사기업 부문의 통합된 노력의 결과일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참여의 결과였다. 그것은 Samarinda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80억 루피아 상당의 도시재개발 계획이었다.

“거리행상안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Citra Niaga” 프로젝트의 원래의 아이디어는 East Kalimantan 주의 前주지사인 H. Soewandi 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또한 Lumajang

Region 의 “부파티(지배자)”였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헌신함으로써 “Kaki Lima 와 부파티” (저소득 수레행상꾼들의 부파티)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아이디어 저변에 깔린 것은 대부분의 대규모 도시 재개발사업에서 흔히 쫓겨나는 기존 저소득 행상꾼들의 복지를 지향한 “퇴거없는 도시재개발”이다. 그리하여 Citra Niaga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건설한 경제구역으로서 Citra Niaga 는 고소득에서부터 저소득층까지의 모든 경제적 수준의 인구를 한곳에 수용하여 공존공영하도록 계획되었다. 그것은 도시재개발 계획내에 “교차보조 (cross subsidy) ” “독자적 재정 (self financing) ” “자가발전 (self generating) ” “원조대부 (recourse loan) ” 원칙들을 통한 종합적이고도 혁신적인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주택 · 상업 · 시장 · 레크리에이션 시설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종합 재개발 사업이다.

I 단계에서 III 단계에 걸쳐 그 프로젝트는 141개 점포(경제적 강자를 위한것), 25개 소점포, 54개 플라자(중산층을 위한것), 224개의 저소득 수레해상(kaki lima) 을 위한 세급면적 구역(space) 을 완성하였다.

“참여적 프로젝트 계획수립 (planning)”

Samarinda 시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도시의 성장의 특징은 전체 도시 노동력의 70% 정도를 비공식 부문이 구성하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이다. 거리행상(“Kaki Lima”) 이 비공식부문 노동력의 태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종합적 “도시개발 계획안”에 그들을 전체시스템의 일부로 포함, 승화시키도록 특수한 프로젝트 및 운영계획이 도입되었다.

일단의 이상주의자와 젊은 전문가 그룹이 이 개발에서 개발자로 PT.PANDURATA가 그리고 프로젝트 계획고문으로 PT.TRAICO WIDYA CIPTA 가 지방정부 및



"An integrated Urban Redevelopment without Eviction"

The "Citra Niaga" Commercial Center is built on a 2.7-hectare public land, in the heart of the city of Samarinda, East Kalimantan. It was virtually a blighted, dense, hazardous fire prone, depleted, an unhealthy slum area. In fact this area was razed by several fires in 1971, 1975 and 1979.

Ironically, it is located in the heart of Samarinda, and it is the provincial Capital of East Kalimantan, which is supposed give a proper image of any dignified CAPITAL City but wasn't. Since 1971, there seems to be no light and effort on how to redeveloped this zone.

Starting in 1983, "Citra Niaga" as an innovativ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has transformed this former slum area into a well-planned, high quality urban center. It was a result of an integrated effort not only among the local Government, Central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but it also include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t was an eight-billion-rupiah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hich has created a new hope for the people of Samarinda.

"A new Hope for the Street Vendors"

The original concept of the "Citra Niaga" project was initiated by former Governor of East Kalimantan H. Soewandi. Also a former

"Bupati" (Regent) of Lumajang Region, he had been popularly known as the "Bupati of Kaki Lima" (Low Income Street Hawker's Bupati), indicating a strong concern and commitment to the welfare of the poor.

His underlying idea is "Urban Development without Eviction" on which he was directing at the welfare of the existing low income street hawkers which are commonly evicted by most large urban redevelopment scheme. And so Citra Niaga project started.

As a compact economic zone, the Citra Niaga was designed to accommodate all economic levels of the population, from the high to the low income to a place which mutually-benefitting their co-existence. It is a project within the urban development planning with a complex and innovative financing scheme through a mix of "cross subsidy", "self financing", "self generating" and "recourse loan" principles.

It is a multi-complex integrated development consisting of housing, commercial, urban plaza,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s of Phase I through Phase III, the Project has completed 141 shop-houses (for the economically stronger population), 25 small shops, 54 plaza-shops (for the middle income group), and 224 units of space provided free-of-charge to the lower income street hawkers (kaki lima).

"Participative Project Planning"

Urban growth in Indonesian cities,

including the city of Samarinda, is characterized with a high rate of urbanization where the informal sector makes up about 70% of the total urban workforce. Since the street hawkers ("Kaki Lima") constitute the bigger bulk of workforce of the informal sector, special project/management planning was employed in this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scheme" to include and promote them as part of the total system. It is within this scheme that a team of idealists and a young group of professionals through PT.

PANDURATA as the Developer and PT. TRIACO WIDYA CIPTA as the Project Planning Consultant, work out what they called as "Participative Project Planning"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banks in which their aspirations are the basic ingredients to the development process to ensure satisfactory results as a "Win no lose" or an "everybody happy" situation.

Preliminary studies indicate that the develop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alone will not solve the urban problems. A new structure should be created to maintain the continuity of the "place", the prevention of its decay, the harmonious co-existence and the economic advancement. Thus the project does not only stop in its physical development but also prepares for the "continuity" though the development of a "Cooperative" as a vital component. The preparatory social-work and the social technical assistance are coordinated by "L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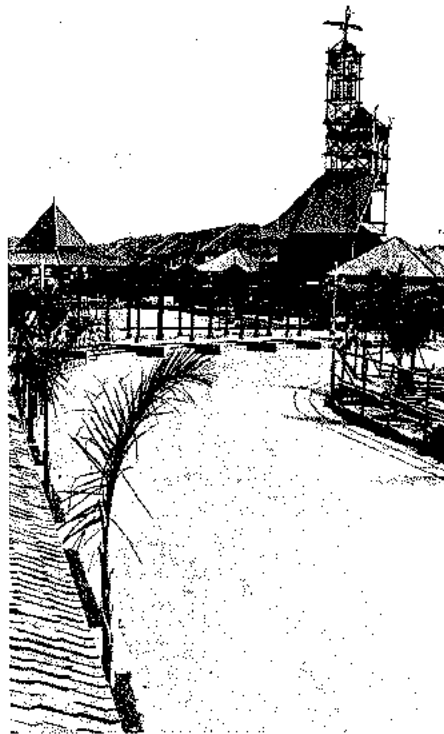
지방은행과 협조하여 소위 “참여적 프로젝트 플래닝”을 산출하였다. 그들의 열망은 소위 “패자없는 승리(Win no lose)”나 “모두가 행복(everybody happy)”한 상황을 보장하는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비조사 결과 물리적 하부구조의 개발만으로는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어야 “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그 붕괴를 막으며, 조화로운 공존과 경제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물리적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상호협조(cooperative)”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연속성”을 배려 하였다. 예비적 사회작업과 사회적 기술협조는 전국적 민간·비영리 조직인 “LSP JAKARTA”(개발연구기관)가 조정하였다. 또한 전문적인 “지역기관단체(Local Authority Body)” (Badan Pengelola)가 설립되어 이 지역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역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 비영리 단체(NGO)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개념은 “Citra Niaga” 프로젝트가 “참여적이고, 종합적이며, 복합기능적”인 특성을 띠도록 하였다. 실로 그것은 인류주거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approach)으로서 인도네시아 전역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도시 대부분에 적용될 만한 것이다.

“모범적 프로젝트 (A model project)”

“Citra Niaga” 프로젝트의 성공의 열쇠는 계획, 재정, 단체설립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참여를 끌어들이는데 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개발노력이 오로지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주민은 기다리기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정부는 여기서 그 제한된 재원으로 오직 “조정자” 내지 “감독체”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재조정하였다.

“Citra Niaga” 프로젝트는 정부에 하나의 돌파구로 인식되어 지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국적으로 모범 프로젝트로 사용되고 있다.

그 프로젝트는

○ 저소득층을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시개발의 종합적 일부분으로 중요시하였다.

○ 제한된 정부재원에 짐을 부과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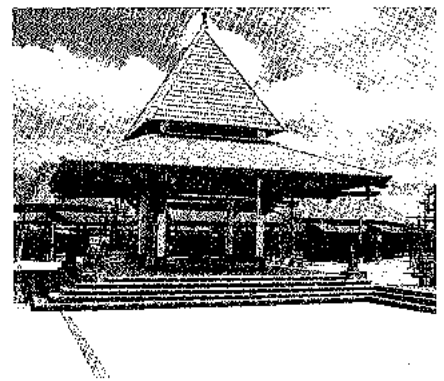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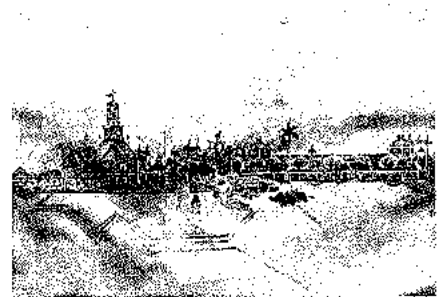
○ “협조기반”의 중요성을 인식, 주민의 복지향상, 특히 저소득 빈곤계층을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 원리로 보았다.

○ 주민 내지 사용자에 의해 대표되고 자치권을 갖는 전문적인

“도시운영체(Urban Management)”를 설정하였다.

“Citra Niaga”는 그리하여 전에는 황량했던 지역을 모두에게 희망적이고 보다 좋은 장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경제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PT.PANDURATA, PT.TRIACO WIDYA CIPTA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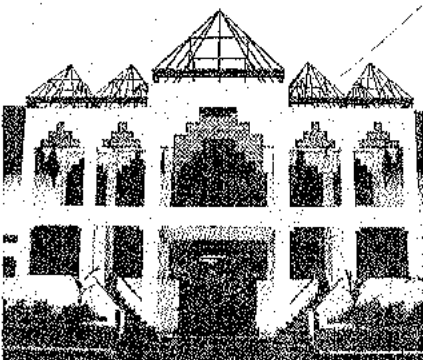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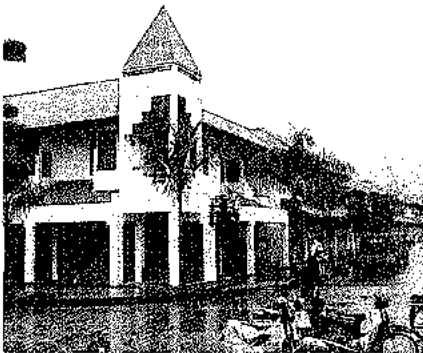


LSP-JAKARTA 가 Samarinda 주변은 물론 “보다 인간적인 재개발”을 위하여 크나큰 자부심을 갖고 제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Community)의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의 표본이다.

이 프로젝트는 아래 사람들의 진지한 참여없이 존재할 수 없다.

1. 각 지역 사회
2. 그들의 비공식적 지도자(informal leader)
3. Samarinda 시청
4. PT. Pandurata Indah (개발자)
5. PT. Gryantara (건축가 겸 감리)
6. PT. Triaco (건축가 겸 건축시공자)
7. Lembaga Study Pembangunan (개발연구기관)
8.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기타 많은 기관 및 개인



JAKARTA" (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a national

wide Non-Government/Non Profit Organization.

A professional "Local Authority Body" (Badan Pengelola) which functions are to maintain this zone was also established, consisting representation of not only of the formal local Government but also from the community itself, and a Non Government-Non Profit Agency (NGO).

The above mentioned new concept gives the "Citra Niaga" Project a unique character of being "Participative, Integrated, Multi Fuctional". Indeed it is a new approach of dealing with the Human Settlement Problems which are shared not only all over Indonesia but also in most of the Third World Cities.

"A Model Project"

The key success of the "Citra Niaga" Project is nevertheless the inclusion of community active participation from planning, financing and its institutional building process.

This project has proven that not all Development Efforts has to be done solely by the Government where the People just waits.

The Government here with her limited funds has readjusted its role to acts as only a "Regulator" and "Directive" body to this Urban Development.

The "Citra Niaga" Project is recognized as a break-through by the Government and now used as a national demonstrational project because:

It does not victimize the lower income population but instead

regards them as an integral part of urban development.

It does not burden the limited Government funds.

It plac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Cooperatives Base" as a viable and necessary economic institu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ople, especially a prerequisite for the lower and weaker economic groups.

It sets a model of professional "Urban Management" represented also by its own dwellers/users which has its own autonomy. The "Citra Niaga" so has been developing as a new economic entity from an old blighted area to a promising and a better future for all.

It is, with great pride, which PT. PANDURATA, PT. TRIACO WIDYA CIPTA and LSP-JAKARTA

presented their work the people of the city of Samarinda as well as for creating a more HUMANE URBAN RE-DEVELOPMENT.

This project is an example of an urban renewal done through community participation.

This project will never exist without the sincere participation of:

1. Society of the respective area
2. Their informal leader
3. Municipal Government of Samarinda
4. PT. Pandurata Indah (Developers)
5. PT. Gryantara (Architects and Engineers)
6. PT. Triaco (Architects and Construction Manager)
7. Lembaga Study Pembangunan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y)
8. Many other institutes as well as individuals which are not mentioned here.

건축사와 1980 년대의 싱가포르 건축

Architects and Architecture of Singapore in 1980's

현재의 10년은 1981년에 P. W. D. 가 설계한 벤자민 시어즈 브릿지와 Changi 국제 공항의 개통으로 시작되었다. 이 이후 1983년 10월에 대중 고속 수송 시스템의 구축이 개시되었다. Ieoh Ming Pei가 설계한 Raffles시와 John Portman이 설계한 Marina 광장은 최근에 1986과 1987년에 각각 개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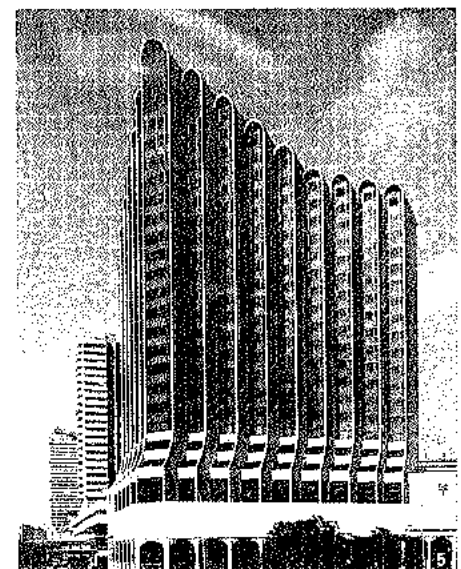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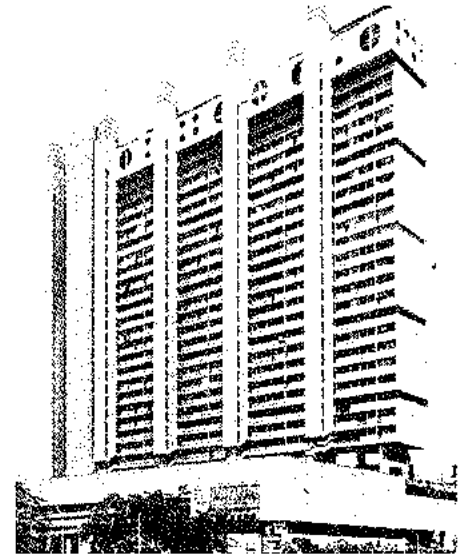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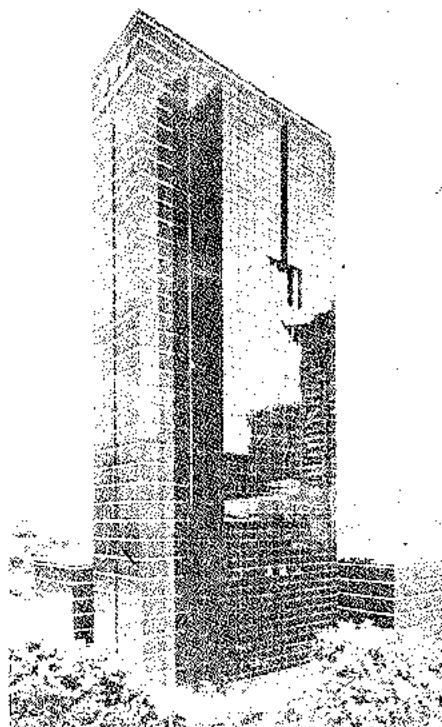
싱가폴은 대중 고속 수송 시스템이 1987년 11월에 그 첫 서비스를 개시하여 Yio Chu Kang을 Toa Payoh와 연결하고 5개의 역을 커버함으로써 현대식 수송 체계의 신기원에 돌입하였다. 1990년까지는 제2단계 계획에 의해 22개 역 모드가 연결될 것인 바, 이는 동 세대의 건축 발전에 독특한 기여를 기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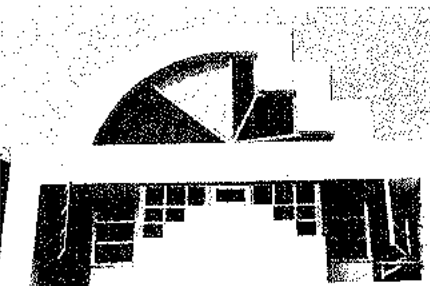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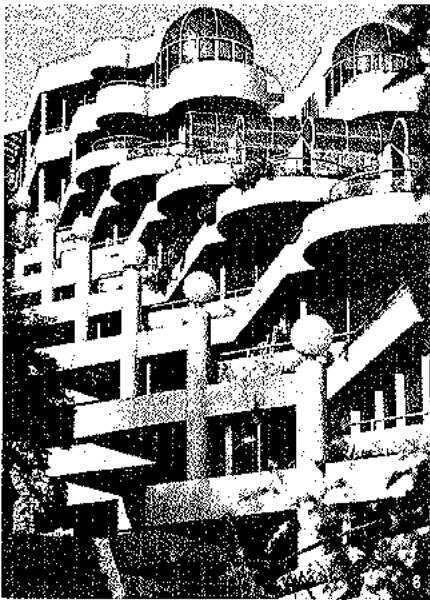
1973년에 국립 스타디움을 설계한 Kenzo Tange 라는 회사가 오버씨즈 유니언 뱅크 센터, 전신 전파 통신센터, 난양 기술 연구소 및 오늘날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형성이 높은 United Overseas Plaza 등의 완공 임무를 떠맡았다.

다국적 기업들의 지점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도시 여건은 건축 분야의 다른 외국 건축가들의 활동을 유인하였다.

1986년에 완공된 싱가포르 재무성 건물은 국내 회사인 Architects 61과 보스턴의 Hugh Stubbins & Associates의 합작 작품이었다. 아파트와 메이저 베트가 빈갈아 들어있는 쌍둥이 건물은 Orchard 가의 외곽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Moshie Safdie 의 작품이었다. Palisades (그림 59) 와 크리스탈 코트는 인터내셔널 프로젝트 컨설턴트의 Phillip Conn 및 Geoffrey T. Malone 이라는 호주인들의 작품이었다.

아시아 출신으로는, 개인 솜씨들도 또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이에는 타일랜드 출신의 Boonchai Sompolpong 과 Manop Phakinsri, P & T Architects의 Alan Low K. G. 와 동업 관계인 Hajima Kinoshita, 인도 인도네시아 출신인 Djohan Sutanto, Tang Sheau Chun 및 Johan Tanny 일명 John Tjan Hian Ka 등이 있었다.





PART IV: THE DECADE OF THE 1980's

The present decade began with the opening of the Benjamin Sheares Bridge and the Changi International Airport, designed by the P.W.D. in 1981.

Following this was the commencement of the construction of the Mass Rapid Transit system in October 1983. The Raffles City, designed by Ieoh Ming Pei and the Marina Square, designed by John Portman were recently opened in 1986 and 1987 respectively.

Singapore entered its epoch in modern transportation when the Mass Rapid Transit system began its first service in November 1987, linking Yio Chu Kang with Toa Payoh, serving five stations. By 1990, Phase II would have linked all the 22 stations, resulting in a unique contribution to the architectural development of the dec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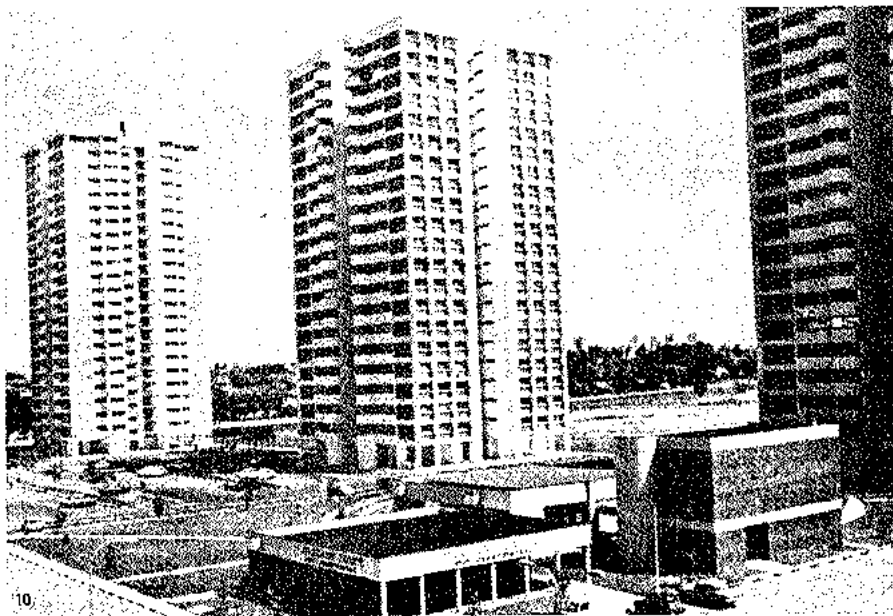
The firm of Kenzo Tange which designed the National Stadium in 1973, undertook the task of completing the Overseas Union Bank Centre, the Telecommunication Centre, the Nanyang Technological Institute, and the United Overseas Plaza which is reputedly the tallest building in South-East Asia today.

The urban situation in Singapore, as the seat of multi-national regional offices, has attracted the work of other foreign architects in the building scene. The Singapore Treasury Building, completed in 1986, was the work of Hugh S. Robbins & Associates of Boston in association with Architects 61, a local firm. A twin tower comprising of alternate apartments and maisonettes, off Orchard Road, was the work of Moshie Safdie from the U.S.A. The 'Palisades' (Fig. 59) and 'Crystal Court' were the work of Australians, Phillip Conn and Geoffrey T. Malone from International Projects Consultants.

From Asia, private practices have also sprung up, including individuals like Boonchai Sompolpong and Manop Phakinsri from Thailand, Hajime Kinoshita in partnership with Alan Low K.G. at P & T Architects and from Indonesia: Djohan Sutanto, Tang Sheau Chun and Johan Tanny alias John Tjan Hian Ka.

A force of local architects who have made inroads to commissions, traditionally enjoyed by government and expatriate offices are: Akitek Tenggara (Tay Keng Soon and partner), Alfred Wong Partnership, Achiplan Team (Chao Tse Ann & partners), Architects Team 3, (Kok Siew Hoong & partners), Consultants Incorporated Architects & Planners (Edwin Chan & partner), Descon Chartered Architects and Planners, (Tan Kah Hoe & partners), Edwin Choo & Partners Architects, Kumpulan Akitek (Victor Chew, Sonny Chan & partners), OD Architects (Meng Ta-Cheang), Ongchinbee Architects, Timothy Seow & Partners. Others include Lee Siang Teck Chartered Architects, Ho Kwong Yew & Sons, Chung Swee Poey & Sons, Ong & Ong

- 1 Serangoon Garden Country Club, Akitek Tenggara, 1980's.
- 2 Wisma Atria, DP Architects, 1980's.
- 3 Diffusion Plant, Design-Environment Group, 1980.
- 4 People's Park Complex, Design Partnership, late 1960's.
- 5 Furams Singapore Hotel, Alfred Wong Partnership, 1980's.
- 6 'Palisades', International Project Consultants, 1980's.
- 7 'andalay Terrace Housing, Tangguanbee Architects, 1980's.
- 8 Unit 8, William Lim Associates, 1980's.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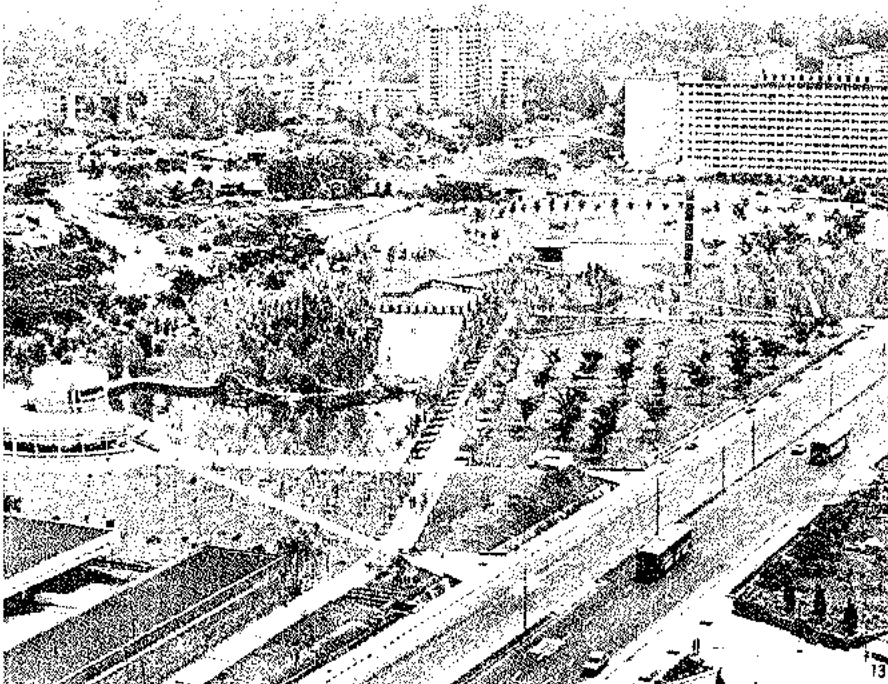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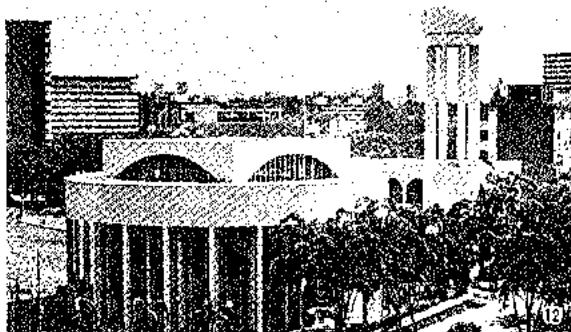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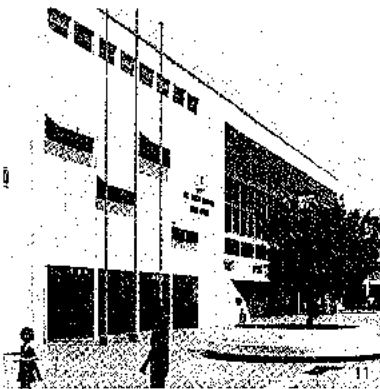
- 9 Condominium, 5 Balmoral Park, Kumpulan Akitek, 1980's.
10 Neptune Court, HDB architects, 1980's.

정부와 외국인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향유해온 커미션에 대하여 방해책동을 벌여온 내국인 건축가들로는 Akitek Tenggara (Tay Keng Soon과 그 동업자), Alfred Wong Partnership, Achiplan Team (Chao Tse Ann 및 그 동업자), Architects Team 3 (Kok Siew Hoong 및 그 동업자), Consultants Incorporated Architects & Planners (Edwin Chan 및 그 동업자), Descon Chartered Architects and Planners (Tan Kah Hoe 및 그 동업자), Edwin Choo & Partners Architects, Kumpulan

Akitek (Victor Chew, Sonny Chan 및 그 동업자), OD Architects (Meng Ta-Cheang), Ongchinbee Architects, 및 Timothy Seow & Partners 등이 있다. 또한 Lee Siang Teck Chartered Architects, Ho Kwong Yew & Sons, Chung Swee Poey & Song, Ong & Ong Architects, Architects 61 (Yang Soo Suan) 등이 있다. 전통적인 외국인 회사인 James Ferrie & Partners와 Swan & Maclaren 및 RSP Architects & Planners (Albert Hong, Allan Choe & Ho Pak Toe)와 같은 이전의 외국인 회사들은 계속 번창해왔다.

P. W. D. 는 계속 높은 수준의 작품들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작품으로는 1987년에 건축한 Scotts Road에 위치한 Environmental 빌딩이다. 이것은 현재 승객 터미널 건물 제2단계 작품인 Changi 공항에 포함되어 있다. 주택 개발원 (E. D. B.) 은 현재 제6차 5개년 건설 계획 (1986 - 1990년) 의 3차 년도를 착수하고 있는데, 동 계획의 목표는 총 15만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1986년 3월 현재 주택 개발원은 총 인구의 84%에 대하여 공동 주택을 완공하였다. 설계 측면에서는 광범위하게 통용될 수 있는 건축 특성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의 주택 개발원의 건축술은 주택자에 대한 주체성을 창출하면서 인류학적인 테마로써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국은 도시 재개발로부터 Emerald Hill 및 오늘날에는 보다 야심적으로 Tanjong Pagar, China Town 및 Little India에 있는 상점 및 테라스식 주택의 보존으로 전환하였다. Stamford 및 Bras Basah가와 Orchard가에 있는 Istana를 '문화권'으로 연결하면서 Empress Place 및 Raffles Place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연구는 싱가포르의 역사적 도시 Raffles의 몇가지 주요 특징을 강조할 것이다.



Architects, Architects 61 (Yang Soo Suan) etc. Traditional expatriate firm, James Ferrie & Partners and former expatriate firms such as Swan & Maclaren and RSP Architects & Planners (Albert Hong, Allan Choe & Ho Park Toe) have continued to prosper. The P.W.D. continues to produce high quality works, the latest being the Environmental Building at Scotts Road, built in 1987. It is currently involved with the Passenger Terminal Building Phase II, Changi Airport. The Housing & Development Board (H.D.B.) is currently embarking on its third year of the Sixth 'Five-Year' Building Programme (1986-1990) which targets to build a total of 150,000 dwelling units. As at March 1986, the Board has completed flats for 84% of the country's population. In design terms, it maintains a wide currency in architectural character. In particular, H.D.B. architecture of the 80's is strongly evocative with ethnic themes, creating identity to its housing estates. Likewise, 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have turned from urban renewal to conservation of shop and terrace houses at Emerald Hill and more ambitious today, at Tanjong Pagar, 'China Town' and 'Little India'. Feasibility studies on conservation between Empress Place and Raffles Place linking the 'culture belt' with Stamford and Bras Basah Roads and the Istana at Orchard Road will highlight some of the principal features of the historical city of Raffles' Singapore.

- 11 Toa Payoh Town Centre — Area office with community hall, HDB architects, 1980's.
- 12 Queenstown Mosque, HDB architects, 1980's.
- 13 Toa Payoh Town Centre — Town garden, HDB architects, 1980's.

말레이시아건축에 대한 고찰

A Review of Malaysian Architecture

독립후 첫 10년간 1957~1967 통치권을 잡다

독립후 첫10년은 새로운 나라가 자신의통치권을 잡은 시기였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독립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국가는 주로 주요생산품의 가격하락에 기인한 단기간의 경기 후퇴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의 팽배했던 분위기는 흥분과 새로운 기회, 민영애의 기대, 그리고 필연적으로 점증하는 민족주의였다.

독립 당시에 이미 많은 말레이시아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주로 영국과 호주에서 건축교육을 받고서 귀국해 있었다. 새로 건축가자격증을 부여받은 이들 그룹은 자기들의 새기술과 능력을 주장하고 파시하는데 열심이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들의 최초의 노력이 초기에는 고국을 떠난 사기업부문의 건축사무실의 파트너로부터 지배권을 빼앗는대로 향하여 갔다. 이때는 말레이시아 건축가들이 국가의 주요 건축 프로젝트의 전권을 부여받기 시작한 시기였고, 각종 전국적인 건축활동이 집중적인 시기에 막집어들려고 하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주요 건축회사들은 여전히 고국을 떠난 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자연히 그들은 영국 무역회사들로부터 주문을 획득하였다. 이 시기의 건축은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경향이였다. 비록 말레이시아 건축의 개념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서 초기적 토론 모임이 있었지만, 건축 도급을 많이 받는 대형회사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건축회사의 대다수는 당시의 영국건축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스미드슨(Smithson), 라스튼(Lasdon)의 작품 1950년대의 브루탈리스트운동(Brutalist movement), 그리고 1960년대초의 하이테크의 영향 등등 외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대기후에 맞춰 디자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각종 스타일의 열대관이 출현하였다. Maxwell Fry와 Jane Drew의 아프리카, 아시아에서의

작품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 기간의 공공부문 및 기관의 건축은 발전하는 국가의 가속적수요에 부응할 하부구조적건축, 교육용 건축이었다. 1959년도에 말레이시아 대학의 Kuala Lumpur 본교가 설립되어 얼마후 말레이시아 대학교가 되었다.

독립후 둘째 십년간 1968~1977 단언의 시기(The period of assertion)

독립후 두번째 10년간은 급속성장과 단언의 시기였다. 이 기간에 많은 수의 말레이시아 건축가들이 해외유학에서 돌아와 이 성장의 시기에 발생한 수요에 부응하여 가장 많은 수의 건축 회사가 전국에 설립되었다. 일련의 국가계획이 국가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간의 기간에 마련되었다. 1차 말레이시아 국가계획은 1967년에 도입되었다. 2차 말레이시아 국가계획(1971-75)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산업건설에 중점이 두어졌다. 계획은 또한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을 구체화시켰고 현대화와 경제의 다변화, 특히 농업가공등의 형태를 통한 농촌 산업화에 중점을 두었다. 말레이시아로 관광객이 홍수처럼 유입함에 따라 많은 수의 호텔들이 지어졌다: KL 힐튼과 에콰토리얼 호텔, 리젠트호텔 및 홀리데이인 등. 그밖에 페낭에는 Rasa Sayang Hotel, 체라팅에는 클럽 매디터레이니가 있다.

이기간 중에는 전국에 아주 많은 건축이 행하여졌다. 은행, 정부공사, 무척청사와 같은 주요 기관 건물도 이십년간 동안에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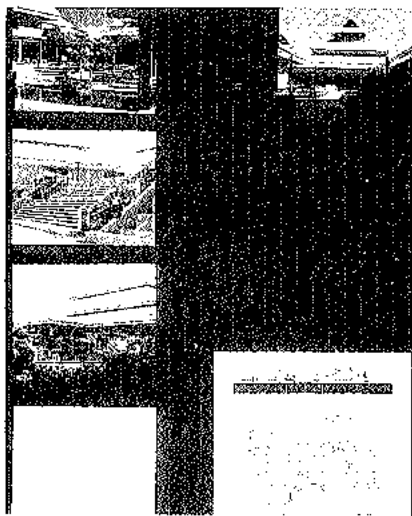
이 기간의 작품과 논의들은 종속적인 자아관을 추구케 하고 마는 말레이시아 건축 및 문화의 서구적 해석을 거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훌륭하면서도 건축에 있어서의 말레이시아 주체성을 발전시키려는 초기의 시도는 풍부하거나 믿음만한 결과를 낳지 못하였다. 몇몇 칭찬할 만하지만 이상스런 시도후에야 이러한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더우기 건축의 형태와 디자인은 원리원칙을 필요로하고, 새로운 형태와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모순 없는 디자인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의지를 넘어 더높은 사상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형태와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모순 없는 디자인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단순한 의지를 넘어 더높은 사상을 필요로 한다. 제3기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건축이 명백히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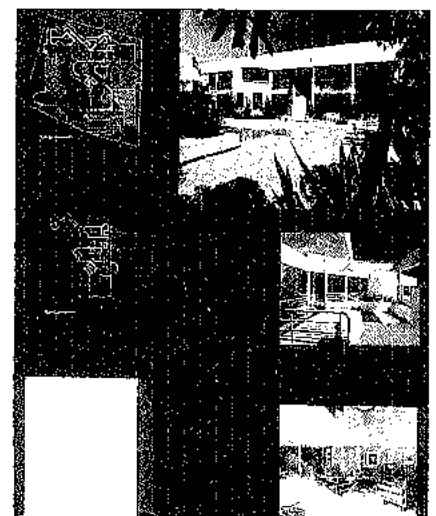
독립후 세번째 10년간 1978~1987 가속화된 성장 및 둔화

이 독립후 세번째 10년간에는 가속화된 건축붐이 최고조(peak) (내략 1978에서 1984년까지)에 달했다가 경기후퇴적 둔화시기가 이어졌다. 초기의 왕성한 건축열은 사적부문과 공적부문 양부문으로부터 자본의 대량 투입에 의해 전국적 규모로 야기되었다. 제4차 말레이시아 국가 계획과 제5차 말레이시아 국가계획이 시작되었다. 1985년까지 경제는 주변국과 선진국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고율성장을 구가하였다. 이것이 나아가 주민의 자신감을 고무하여 소비증가, 대규모 외부차관, 그리고 옛날에는 고려하지도 않았던 공·사적 부문에 의한 거대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었다.

가중된 작업부하와 단기준공 때문에 국내 건축가들은 대단한 중압에 시달렸다. 작업부하의 증가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건축회사도 동시에 증가되었다. 1978년에 130개 건축회사가 있었던 것이 1987년에는 330개 건축회사가 영업중이었다. 이 시기는 또한 완성에 몇번씩 걸리는 500여이커 이상의 대단위 주택건설의 시기였다.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테라스 하우스의 건물외관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많은 사기업부문 주택 프로젝트에 있어서



Slide 1



Slide 2

THE REVIEW OF MALAYSIAN ARCHITECTURE

THE FIRST DECADE AFTER INDEPENDENCE 1957–1967

Taking hold of the reins

This first decade after independence saw the period in which the new nation took hold of its own reins. In the years that led to Independence since the Second World War, the country had been able to maintain a high level of growth despite the short spells of recession mainly due to the fall in prices of the primary commodities. The common mood then was one of excitement, new opportunities, expectations of prosperity and the inevitable increasing nationalism. By the time of Independence, a number of Malaysian architects had already returned home having received their architectural education overseas particularly in U.K. and in Australia. This group of newly qualified architects was assertive and keen to demonstrate their new skills and capabilities. However it soon became clear that much of their initial energies would be directed in the early years to the wresting of control from the expatriate partners of the private sector architect firms.

This is the period in which the Malayan architects were beginning to be given full responsibilities for the major building projects in the country and stood at the verge of an extended period of prolific nationwide building activity. However the major architectural firms were still controlled by

expatriates and naturally they obtained commissions from the British trading houses here. The architecture of this period tend to remain international modern. Although there were early discussion sessions held at PAM on the idea of a Malayan architecture, there was little emphasis given to this particularly by the large firms which had a major slice of the architectural commissions. The majority of the architects' firms was considerably influenced by the contemporary British architecture : the work of the Smithsons, Lasdun, the Brutalist movement in the 50's and the hi-tech influences of the early 60's. Albeit the external influences, most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designing with the tropical climate and the tropical versions of various styles appeared.

Maxwell Fry and Jane Drew's work in Africa and Asia was an important influence.

Public sector and institutional buildings in this period were basic infrastructural and educational buildings that were needed to meet the needs of the accelerating demands of a developing nation. In 1959, the Kuala Lumpur branch of the University of Malaya was set up and soon after it became the University of Malaya.

THE SECOND DECADE AFTER INDEPENDENCE 1968–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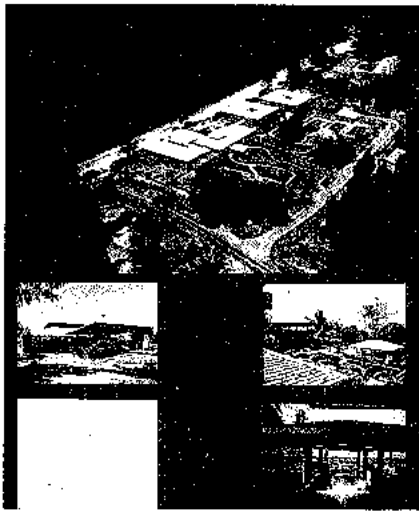
The period of assertion

The second decade after Independence was a period of rapid growth and assertion. In this period

a large number of Malaysian architects returned from overseas study and concurrent with the demand arising from this period of growth, the largest number of architect firms were formed in the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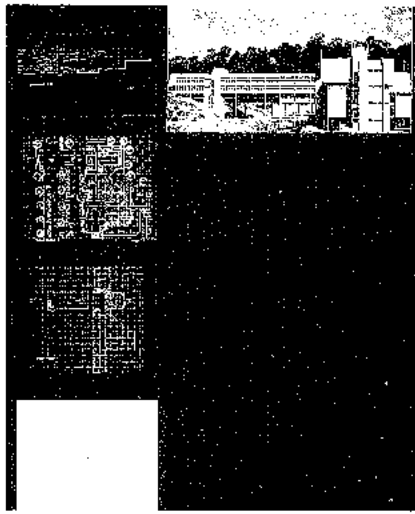
A series of national plans were prepared at 5 years intervals to give directives for national development. The First Malaysia Plan was introduced in 1967. The 2nd Malaysia Plan from 1971–75 gave emphasis to the building industry designating it as the engine for growth for the economy. It also incorporated the New Economic Policy (NEP) and laid stress on modernising and diversifying the economy, with special emphasis on encouraging rural industrialisation in the form of agricultural processing. With the influx of tourists into Malaysia, a number of hotels were built : KL Hilton and Equatorial Hotel, Regent Hotel and Holiday Inn. Elsewhere in Malaysia are the Rasa Sayang Hotel in Penang, Club Mediterranee in Cherating. This period saw a very prolific output of buildings in the country. Major institutions like banks, government agencies and Ministry headquarters were constructed during this decade.

The work and the discussions in this period also had indications of the beginning of the rejection of the Western interpretation of the Malaysian architecture and culture leading to the pursuit of an independent identity. Early intentions to try to develop a Malaysian identity in architecture, while commendable, were not matched by fluent and credible



Slide 3

일정 퍼센티지(비율)의 주택은 통제된 가격에 다 비용이 적게 드는 주택이어야 했다. 이것은 계획인가의한 조건이었다. 이로 인해 성면이 좁고 (narrow frontage) 비용이 적게드는 주택(예를 들면 15 ft frontage) 이나 소형 저유지비 아파트(예를 들면 800 평방피트)가 도입되었다. 국가당국은 저유지비 아파트를 지을 많은 근대화된 빌딩시스템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고층화의 시기였다. 이 짧은 10년만에 Kuala Lumpur 의 면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었다. 상업적 빌딩은 전보다 훨씬 대규모로 지어졌고 당시 실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타일로 각각 지어졌다. 주요 회사와 은행들은 자사의 주요건물이나 회사본부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들 건물들의 상당수는 자사의 수요를 훨씬 넘는 건평을 가지고 있었다. 1986년도에 이르러서는 사무실 공간 (office space) 의 공급과잉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는데 공급과잉이 최소한 앞으로 10년 또는 그 이후까지도 계속되리라 추산되었다. 이들 타워들의 건설과 함께 Kuala Lumpur 시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DBKL 의 청산할만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희망의 도시 (horizontal city) 가 아니게 되었다. DBKL 은 시의 가속화된 수직적 도시화에 맞춰 도시의 경관을 살리고, 통행도로의 포장과 도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KL 분산계획) 그밖에도 시의 전통적 특징과 거리배치는 근본적으로 불변인채 유지되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시의 주체성은 상황의 교정을 위해 즉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업적 빌딩은 그전10년 동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만들어 졌다. Hijjas Kasturi 협회가 설계한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 은행 본점은 국전 수상작의 결실이다. Putra 세계 무역센터는 Kumpulan Akitek 가 설계하였는데 이건물은 세계무대에 이정표를 남기려는 정치적 확신의 요체이다. 빌딩의 보존은 1982년 Badan Warisan의 형성과 함께 전면에 대두되었다.



Slide 4

이 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아마 빌딩의 보존과 기타 우선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미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데 있었다. 회의의 결과 "보존을 위한 국가정책선략"이라고 제목이 붙은 서류가 1986년 초안되었다. 1986년 일찌기 국가의 성장을 가속화 시키던 주요상품의 높은 가격이 상당히 하락되었다. 일련의 은행과 자본단체의 경영실패가 발생하였고 이 모든 현상은 건축산업에 영향을 끼쳐 건축산업이 침체되고 경기후퇴가 결국 발생하였다. 건축가들이 맡은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따라서 건축가들은 먹고 살 궁리를 하게 되었다 : 즉 아주낮은 가격으로 반복적으로 가옥과 아파트를 짓거나 중간정도의 가격이들게 다양하게 짓거나 또는 실내장식의 혁신을 하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제국주의자의 영향을 놀라울 정도로 거의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80년대초의 호경기에 세워진 대부분의 주요 고층건물 개발은 자금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하였으며, 지역내 투자자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결과 외국건축가들이 설계한 몇몇 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의 건물은 지역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고문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자에 얽매인 조건은 없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외국 건축가의 임명이 재정계획과 결부되어 지역건축가사회가 외국 건축가들의 유입통로인 군대에 속해 있는 필리핀이나 태국과는 다른 것이다. 건축가 사회와 그들의 고객의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말레이시아에의 여행객이 증가하며, 빠른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 수단이 도입됨에 따라 최근의 건축아이디어와 건축양식 및 기술의 개발이 지방의 건축산업가에 알려지는 데 발생하는 시차는 상당히 단축되었다. 말레이시아 건축 환경에 대한 세계 조류와 아이디어의 영향은 점점 즉각적이 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최선의 현대적 외관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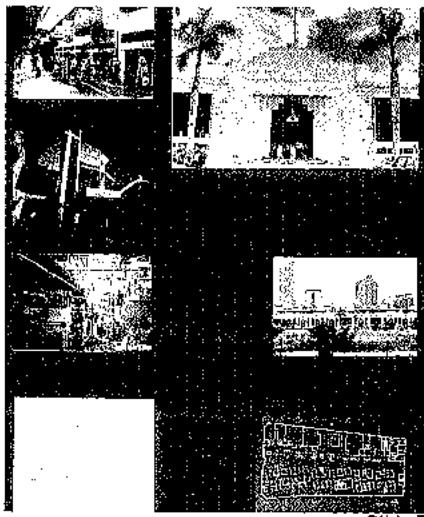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인테리어(내장)에도 반영된다. 건축에 있어서의 기술 이전의 요구는 8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통신시스템의 결과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1987년 쿠알라룸푸르는 경계를 확장하여 그 면적이 96평방마일로 늘어났으며, 인구는 거의 백만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건축 미래의 상징인 이 도시는 열대지방의 지역적 이상에 따른 몇개의 영웅적 도시와 함께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도시는 이제 더 이상 거리에서 사람을 관계하지 않을 정도로 개발되었다. 만약 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한다면 그때 새로운 디자인 응답이 도시의 보행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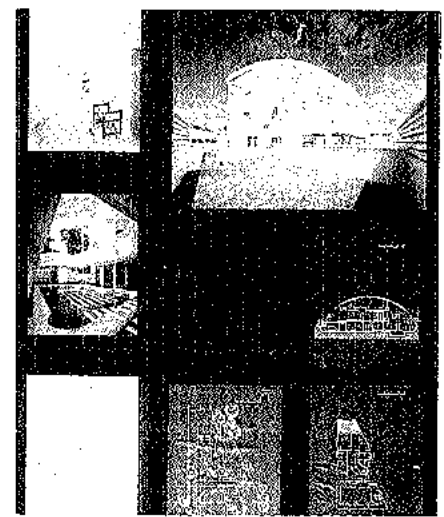
즉 우리의 기후와 문화에 적합한 설계를 개발하여 플라자호텔보다는 거리가, 자동차보다는 보행자가, 그리고 빌딩보다는 경치가 더욱 강조되는 우리 말레이시아 건축 환경에 주체성을 주는 그러한 설계를 말한다.

국제수준에 비교하여 말레이시아 건축가들이 높은 수준의 건축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한 반면 건물설계에 있어 능력의 과시라는 면을 넘어서 그것들에 교훈적 요소를 주입시키려는 사려가 거기에는 없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이 교훈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 나라에 있어서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자주적 사고에 바탕을 둔 자주적 건축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Slide 5



Slide 6

results. After several laudable but awkward attempts, it became clear that this cannot be achieved overnight. Furthermore, architectural form and design require axioms, and the pursuit of new forms and identity require compatible design premises not yet fully developed. These require further thought beyond intentions alone. It was not until the third decade that an emergent architecture became ev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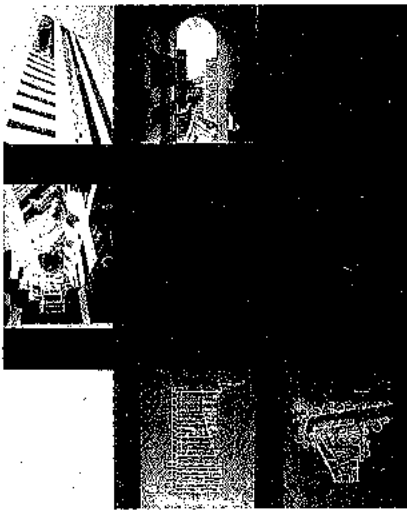
THE THIRD DECADE AFTER INDEPENDENCE 1978–1987

Accelerated growth and the slowing down

This third decade after Independence saw the accelerated building boom reach its peak (generally from about 1978 to 1984) followed by a recessionary slowing down period. There was the initial proliferation of construction at a national scale motivated by the massive injection of capital from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Fourth Malaysia Plan and the Fifth Malaysia Plan were launched. Up until 1985, the economy enjoyed a high growth rate that was the envy of the surrounding and the developed nations. This further encouraged the confidence of the community and resulted in increased spending, larger external loans being made and the undertaking of huge projects by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had previously not even been considered. With the increased workload and short delivery times, the local

architects were under tremendous pressure. The increase in workload coincided with the increase in architect firms in Malaysia. In 1978 there were 130 architect firms whereas by 1987, there were 330 architect firms in business. This is also the period of the mega-housing developments of 500 acres and above, which take several years to complete. In order to enhance sales, more attention was directed to the creation of variety in building facades in the terrace houses. In many of the private sector housing projects, a certain percentage of the units built had to be low-cost houses with controlled prices. This was a condition given in the planning approvals. This led to the introduction of narrow frontage low cost house (e.g. 15 ft frontage) and small low cost flats (e.g. 800 sq. ft.). The State Authorities also entered into contracts with a number of industrialised building systems suppliers to build low-cost flats. This is the era of the high-rise development. In this brief decade the face of Kuala Lumpur changed beyond recognition. Commercial buildings were built of a considerably larger scale than the previous decade and in virtually every internationally known style of the time. The major companies and banks set out to build their flagship or corporate headquarters. Many of these buildings had floor areas far exceeding the inhouse rental requirements of its owners. By 1986 the glut in surplus office space reached such irredeemable proportions that it was projected

that the surplus would continue for at least another decade or more. With the construction of these towers, the city of Kuala Lumpur, in a short period of a decade, ceased to be a horizontal city despite the commendable efforts by DBKL, which to match the accelerated vertical urbanisation of the city, responded by increased urban landscaping and the provision of paved pedestrian walkways and road construction (KL Dispersal Scheme). Besides these, the city's traditional character and street disposition remained radically unchanged for which a new urban identity would need to be quickly sought to redress the situation. Commercial buildings were built of a much larger scale than the previous decade. The Malayan Banking Headquarters in Kuala Lumpur designed by Hijjas Kasturi Associates was the result of a winning entry, in a national competition. The Putra World Trade Centre designed by Kumpulan Akitok was the epitome of political confidence in seeking to make a mark on the world stage. Building conservation also came to the fore with the formation of the Badan Warisan in 1982. The organisation's most important achievement was probably in being able to subtly influence the attitudes of the Government towards conservation issues and priorities. As a result of a conference, a document entitled, "A Strategy for a national policy for Conservation" was drafted in 1986. By 1986, the high prices of primary commodities which had earlier fueled the nation's accelerated



Slide 7

슬라이드 1 : Kota Darulnaim(Kelantan 주 사무국), Kelantan

완공연도 : 1986

설계자 : Arkitek MAA Sdn Bhd

설명 : 이 건축물은 개성 (identity) 의 추구와 독특한 팔레이시아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이다. 이것은 관공서 건물이므로 정치적이고도 건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정치물은 야외에 세워지고 링크공법에 의해 연결되도록 감각적으로 설계된 구조물조합 (complex of pavilions) 은 그러한 시각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다. 이 구조물들은 Kelantan 건축양식의 특이한 요소들이 혼합된 전통양식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현대적 기능과 전통 형식 및 요소의 합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을의 분위기가 자유분방함은 회관을 중심으로 한 외형적인 접근을 중시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슬라이드 2 : M House, Petaling Jaya

완공연도 : 1985

설계자 : Pakatan Re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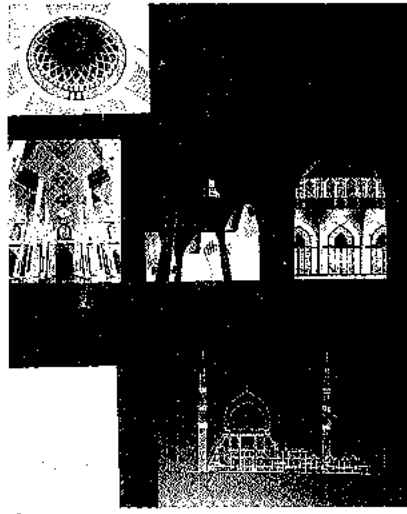
설명 : 조용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한적한 시골지역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수영장이 있고, 그 주위로 모든 공간이 개방되어 있다. 이 주택은 재미있는 기하를 이루는 연속적인 병렬형태로 설계되었고, 열대지방의 특색을 가진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스타일 (international Modernist Style) 로 설계되었다.

슬라이드 3 : Hyatt Kuantan 호텔, Pahang

완공연도 : 1979

설계자 : Kumpulan Arkitek

설명 : 개방적인 "Kampung" 양식을 주제로 하여 설계되었고 팔레이



Slide 8

고유의 주택의 특성을 살린 Hyatt Kuantan 호텔은 토속주택의 고유한 양식을 현대적인 호텔시설로 성공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울창하고 청정한 열대의 환경은 깊은 차마와 배란다방식, 목재 등의 사용 및 탁트인 조경으로써 얻어지고 있다.

슬라이드 4 : 관청구역, 팔레이시아 Kebansaan 대학, Selangor

완공연도 : 1977

설계자 : Kumpulan Senireka Sdn

설명 : 건물의 엄격한 남북정향 (a strict North-South orientation of the building) 을 요구하는 설계개념이 건물과 지형사이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천연림의 모습을 완벽하게 살리고 있다.

슬라이드 5 : KL 중앙시장의 적절한 재생, Kuala Lumpur

완공연도 : 1986

설계자 : Architectural Consulting Services & William Lim Associates

설명 : 11시에 있었던 파괴로부터 벗어난 중앙시장은 적절한 재생계획 상의 민간자본육성을 위한 정부의 고(古)건물 민영화정책의 첫 케이스이다. 내부공간은 혁신적으로 재설계되었고 쇼핑 및 공예품 센터로 사용된다. 중앙시장의 외의는 오래된 역사적 건물의 승리를 통해 감각적이고 상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으며 상업적성공으로 환영되고 있다.

슬라이드 6 : Roof-Roof House, Selangor

완공연도 : 1984

설계자 : TR Hamzah & Yeang Sdn Bhd

설명 : Roof-Roof House 는 비전통적인

주택이다. 이것은 전통적 · 현대적 형식과 기능이 재검토되고 재조합된 실험작이다. 이 주택은, 건물의 구성부분들이 부적합한 기후조건을 길러내고 적합한 것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축학상의 소위 "밸브원리 (Valve analogy)" 개념을 기초로 하여 설계되었다. 이 주택의 의의는 밸브개념에 기초한 열대 건물의 필수요건들을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건축방식으로써 융합한 지적인 설계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슬라이드 7 : Plaza Atrium, Kuala Lump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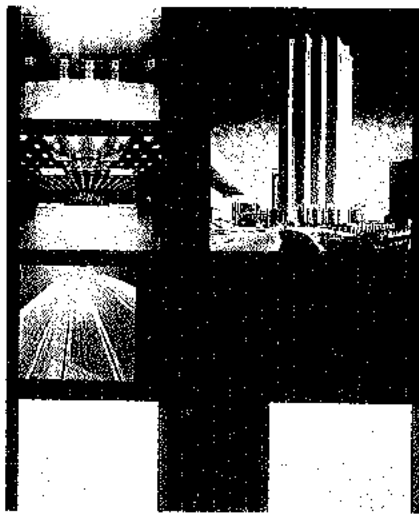
완공연도 : 1985

설계자 : T R Hamzah & Yeang Sdn Bhd

설명 : 잘 선전되고 이분화된

사무실건물 (Office building) 인 Plaza Atrium 은 사무실건물의 전형적인 직선형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을 대표한다. 극히 불규칙한 바닥설계와 여러층의 홀 공간 (multi-storey atrium void) 의 채택은 건축학상의 소위 "밸브원리" 개념에 기초한 대담한 특징들이다. 홀의 지붕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차양작용을, 여러층의 테라스 (multi-layered terraces) 는 통풍작용을 한다. 이와 같은 것은, 팔레이시아 같은 열대지방에서 홀 공간 (atrium space) 은 차양 작용을 하고 전이공간 (transition space) 을 만들 수 있도록 안팎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건축가들의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슬라이드 8 : Masjid Sultan Salahuddin Abdul Aziz Shah (Selangor 주 회교사원), Shah Alam



Slide 9



Slide 10

growth had fallen considerably. A number of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al mismanagements took place, all of which took its toll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slowed down and the recession eventually felt.

The workload of architects dropped and architects returned to the bread-and-butter projects of the profession : repetitive housing and apartments of the low-cost and medium low-cost variety and in interior renovation work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architecture of Malaysia compared to that elsewhere in Asia, is surprisingly free from direct imperialist influences. Most of the major high-rise building developments erected in the boom years of the early 80's have been financed locally and were developed by local investors.

As a result, besides the few foreign architect designed buildings, the bulk of the architecture in Malaysia is designed by local architects as there were no conditions tied to the investment that required the use of foreign consultants. This was not the case in Philippines or in Thailand where the local architectural community is up in arms in the influx of foreign architects whose appointment came tied with the project financing.

With the increase in overseas travel by the architectural community and their clients, the increase in visitors to the country and with the introduction of rapid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ransfer, the time lag in which the latest development in architectural

ideas, styles and technologies elsewhere became known to the local building industry became significantly shortened.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ends and ideas on the Malaysian designed environment became more instantaneous. This is reflected not only in the very up-to-date contemporary appearances of the architecture but also in the interiors of buildings. The apparent need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in architecture became invalid by the 80's as a consequence of the new communication systems.

By 1987, Kuala Lumpur had expanded its boundaries to cover 96 square miles and has a population of nearly a million. This city, symbolic of the Malaysian built future, remains largely a high-rise future with the few heroic attempts at a tropical and regionalist ideal. It has grown and developed into a city that no longer relates to the man in the street. If the situation is to be perceived as optimistic, then the new design responses must seek to return the city to the pedestrian ; to give an identity to our Malaysian built environment in which the street is stressed over the plaza, the pedestrian over the vehicle, and landscaping over buildings while pursuing an inventive design response appropriate to our climate and culture.

While there is without doubt that a high level of competence in the production of buildings comparable to international standards are achievable by many Malaysian architects, there is insufficient thoughtfulness given to designing

buildings to give them a didactic role beyond the demonstration of competence. It is this instructive nature that must be given attention. The fight for Independence in the country must be matched by a fight for an independent architecture based on independent thought.

Slid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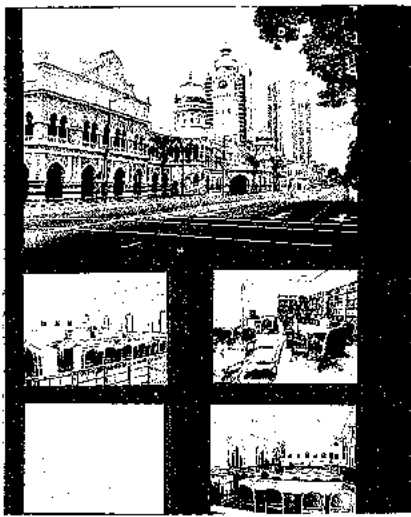
Project : Kota Darulnaim (Kelantan State Secretariat), Kelantan

Year completed : 1986

Architects : Arkitek MAA Sdn Bhd

Description : This is an interesting example of the search of identity and an identifiable Malaysian architecture. That this is a government building makes the approach politically and architecturally necessary.

The result is a sensitively designed complex of pavilions set in landscaped courtyards and connected by linkways. The pavilions are inspired by traditional forms incorporating distinct elements of Kelantanese architecture. The synthesis of modern function and traditional forms and elements appear to work. A village atmosphere and informality is achieved whilst ensuring a formal approach by axis for the Assembly Hall.



Slide 11

완공연도 : 1987

설계자 : Jurubena Bertiga International Sdn

설명 : 36에이커의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한 이 회교사원은 Shah Alam 의 기념물이다. 전통적인 이슬람설계양식에 따라 지어진 중(重)기도실은 직경 170피트의 당당한 돔(Dome) 형으로, 300피트의 높이에 4개의 첨탑에 둘러싸여 있으며, 1만명의 대규모 군중을 수용할 수 있다. 구조물은 천연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되어있고 돔(dome)은 유리 에나멜판으로 되어있다. 안팎의 공간은 모두 이슬람적인 특색과 무늬창살에 끼워진 채색유리로 장식되어 있다.

슬라이드 9 : Dayabumi Complex, Kuala Lumpur

완공연도 : 1984

설계자 : BEP Arkitek Sdn Bhd & Arkitek MAA Sdn Bhd

설명 : 말레이시아가 착수한 가장 야심적인 개발계획의 하나인 Dayabumi Complex 는 사무실건물 (office tower) 과 쇼핑 및 우체국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Dayabumi Complex 의 전체미(美)는 /뾰죽한 아치와 역시 차량작용을 하는 기하부늬창살이라는 이슬람건축양식요소에 기초하고 있다. 사무실 건물은 쿠알라룸푸르의 경관에 있어서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 계획은 외국 건설업체에 의해 "일관도급단기공정"조건으로 완수되었다.

슬라이드 10(2)

프로젝트 : 쿠알라룸푸르, 왈리언 하우스 (Walian House)

완공연도 : 1984

설계자 : CSL 협회

설명 : 여러층의 지붕과 높은 지붕 공간을



Slide 12

갖고 있는 이 건물은 마치 건축가가 향토고유의 건축양식을 발견한 것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맛사지 건물과 양철 준설선과 같은 이나라의 재래의 건축양식에 많이 동조하고 있다.

슬라이드 11

프로젝트 : 쿠알라룸푸르 방구난 술탄 압둘 사마드의 복원

완공연도 : 1984

설계자 : BEP Akitek Sdn Bhd

설명 : 역사적인 건물을 연방법원으로 새로이 사용하기 위한 광범위한 건축작업을 포함하는 도전적 계획. 디자인에 있어서 역사적인 본래의 형태를 보존한 것은 건축가들로 하여금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혼합하도록 고무하였다.

슬라이드 12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타만 툰 Dr 이스메일 방갈로

완공연도 : 1986

설계자 : Gerak Reka Akitek Sdn

설명 :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지붕형태의 흥미있는 상호작용은 일상적으로 무던하게 반복되는 가족설계와 대조적이다.

슬라이드 13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말레이시아 은행 본점

완공연도 : 1987

설계자 : H'ijas Kastur Associates Sdn

설명 : 1979년 개최된 국전 수상작품인 이 건물의 디자인은 말레이시아의 문화공예품으로 부터 유추한 형태를 건축양식의 기초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공예품에는 "Ker s Taming Sar" 나 말레이시아의 영웅적 인물인 Hang Tuah 의 칼과 같은 것이 있다.

슬라이드 14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철도역 확장

완공연도 : 1986

설계자 : Perunding Alam Bina

설명 : 지방 건축가가 식민지시대의 건축물을 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도한 예. 무어식 양식을 혼합하기 위한 주의 깊은 묘사.

슬라이드 15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Putra 세계무역센터

완공연도 : 1985

설계자 : Kum pulan Akitek

설명 : 말레이시아의 집권당인 UMNO 의 본부를 수용한 건물. 주회의실은 전통적인 말레이시아 가옥형태와 현관구조에 영향을 받았다.

슬라이드 16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의 Kompleks Nagaria

완공연도 : 1986

설계자 : Pakatan Reka

설명 : 이 건물은 지역적 또는 국제적인 다양한 건축의 영향을 자유롭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규제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 건물은 걸어 올라가는 테라스와 병들여진 커튼, 그리고 색상으로 흥미로운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

슬라이드 17

프로젝트 : 네가라 박물관(국립박물관)

완공연도 : 1963

설계자 : Ho Kwong Yew 와 그 아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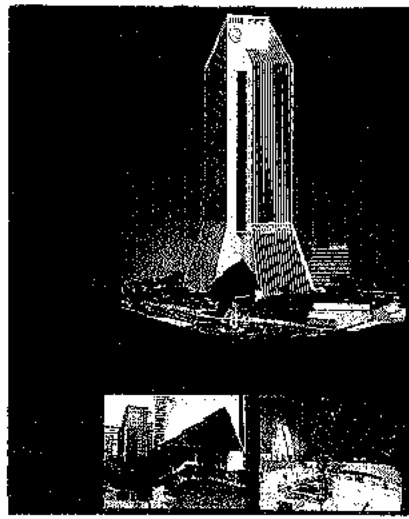
설명 :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의 전통 건축양식 중 특히 지붕형태의 특징을 혼합하여 만든 최초의 대형 건물이다.

슬라이드 18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Chartered 은행

완공연도 : 1964

설계자 : BEP Akitek Sdn Bhd



Slide 13

Slide 2

Project : M House, Petaling Jaya

Year completed : 1985

Architects : Pakatan Reka

Description : Located in a quiet residential area, the house is organised around a corner courtyard space in which a swimming pool is located and around which all principal spaces open out to. The house is planned based on a series of shapes juxtaposed to create interesting geometries and designed in the International Modernist Style with tropical features.

verandahways, use of timber materials and ample landscaping.

Slide 4

Project : Administration Block,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Selangor

Year completed : 1977

Description : The design concept called for a strict North-South orientation of the building, close fit between buildings and topography and not to disrupt the natural forest sky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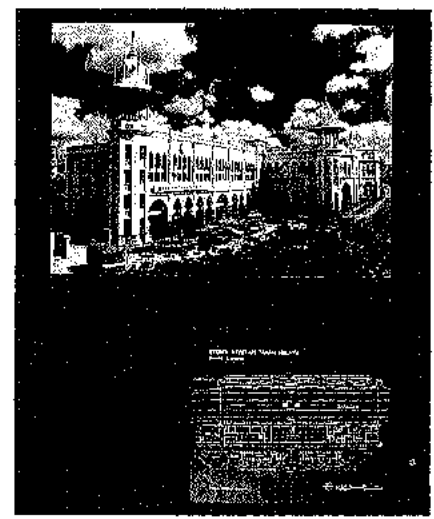
Slide 5

Project : K L Central Market
Adaptive Reuse,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6

Architects : Architectural Consulting
Services & William Lim
Associates

Description : Saved from demolition in the eleventh hour, the Central Market is the first example of the Government's privatisation of an old building for a private commercial development in an adaptive reuse scheme. The interior space was innovatively re-planned and used for the purpose of shopping cum an arts and craft centre. The



Slide 14

significance of the Central Market is in the triumph of an old landmark building being sensitively and successfully revitalised and proved to be a commercial success.

Slide 6

Project : Roof -Roof House,
Selangor

Year completed : 1984

Architects : T R Hamzah & Yeang
Sdn Bhd

Description : The Roof-Roof House is an unconventional house. It is an experimental work where conventional and modern forms and functions were re-examined and re-assembled. The house was designed based on a concept that the Architect called "valve analogy" where elements in the building were designed to filter out undesirable climatic elements and allow in desirable ones. The significance of this house is that it illustrates an intellectual approach of design fusing tropical building requirements based on "valve concept" with an international modern architectural language.

Slide 3

Project : Hyatt Kuantan Hotel,
Pahang

Year completed : 1979

Architects : Kumpulan Akitek

Description : Designed with the theme of the open "kampung" layout and utilising the characteristics of Malay vernacular houses, the Hyatt Kuantan has successfully reinterpreted the domestic form of vernacular houses into modern hotel uses. The rich and lush tropical environment was achieved with the use of deep eaves,



Slide 15

설명 : 이 건물은 야수파적인 기둥과 상인방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내면을 온화하게 비추주는 유리창에 의해 외부적으로 표현된다. 은행의 주홀은 부분적으로 중이층인 2층 공간이다.

슬라이드 19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힐튼호텔

완공연도 : 1973

설계자 : BEP Akitek Bhd

설명 :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알려진 거래중심 구역의 정점을 형성하는 중요한 건물. 이 건물의 활력과 국제 호텔로서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입구현관에 있는, 현저하게 표현이 풍부한 지붕형태와 모든 객실에 딸린 전망이 보이는 발코니와 같은 향토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슬라이드 20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Ampang 공원 쇼핑센터

완공연도 : 1973

설계자 : S P CHOW 와 RaKan

RaKan 이 공동한 디자인 조합(1975. 11에 D.P.

Architects Pte 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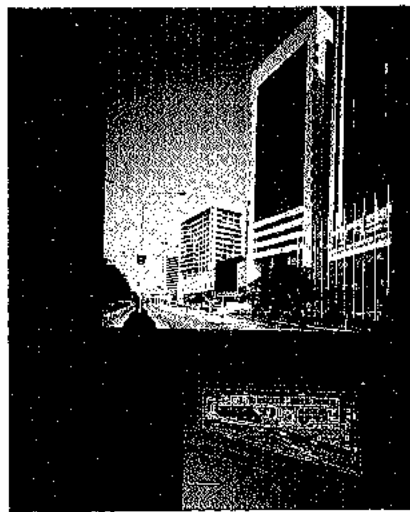
설명 : 이 건물은 자체에 쇼핑 센터를 포함하여 중심가로 부터 벗어나 에어컨 장치가 된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는 추세를 대표하는 최초의 대형건물이다. 이 건물의 주요한 관심사는 중심가와 동일한 유통구조를 사용하는데 있다. 그 후에 생긴 많은 다른 쇼핑건물과 그 건물에서 무감각한 업주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오늘날 여전히 성공적인 장소로 남아있다.

슬라이드 21

프로젝트 : 쿠알라 룸푸르 Jalan

Perumahan Gurney 의 아파트

완공연도 : 1984



Slide 16

설계자 : Kumpulan Karim Lai Akitek

설명 : 아파트의 위치와 설계상의 건물형태는 주위에 있는 rain-tree 와 조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아파트를 높이 세운것은 일층에서도 전망을 볼 수 있도록한 것이다.

Slide 7

Project : Plaza Atrium,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5

Architects : T R Hamzah & Yeang Sdn Bhd

Description : A well publicised and theorised office building, Plaza Atrium represents one of the efforts in breaking away from the rectilinear form typical of office buildings. The highly irregular floor plans and the use of multi-storey atrium void are bold features based on a concept the Architect called “valve analogy”. The atrium roof functions as a canopy providing sun shading and ventilation to the multi-layered terraces. This is in line with the Architect’s belief that in a tropical country like Malaysia, atrium space should be used inside out to fulfill sunshading and create a transitional space.

Slide 8

Project : Masjid Sultan Salahuddin

Abdul Aziz Shah (Selangor State Mosque), Shah Alam

Year completed : 1987

Architects : Jurubena Bertiga International Sdn

Description : The mosque, sited on 36 acres of landscaped area, serves as a landmark for Shah Alam. Developed on a traditional Islamic plan form, the main prayer hall in under an imposing dome 170 feet in diameter, 300 feet high, surrounded by four minarets and can accomodate a large congregation of 10,000 people. The structure is clad in natural granite and marble and the dome in vitreous enamel panels. Both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are decorated with Islamic motifs and coloured glass set in patterned grilles.

Slide 9

Project : Dayabumi Complex,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4

Architects : BEP Akitek Sdn Bhd & Arkitek MAA Sdn Bhd

Description : Probably one of the most ambitious development projects undertaken by the Malaysian Government, the Complex consists of

an office tower, a shopping arcade and the Post Office Building. The overall aesthetics of the Complex is based on elements of Islamic architecture of pointed arches and geometric pattern grilles which also serve as sunshading devices. The tower had made an identifiable presence in Kuala Lumpur's skyline. The project was constructed on a "Turnkey Fast-Track" basis by a foreign contractor.

Slide 10(2)

Project : Walian House,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4

Architects : CSL Associates

Description : With its multi-layered roofs and high roof space and timber details, this house is seen as a celebration of the Architect's exploration of the vernacular. It has a strong resonance of the country's early built form such as rubber godowns and tin dredges.

Slide : 11

Project : Restoration of Bangunan Sultan Abdul Samad,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4

Architects : BEP Akitek Adn Bhd

Description : A challenging project involving extensive structural works to adapt the historical building for new use as Federal Court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integrity in design approach stimulated the architect to incorporate various traditional Malaysian design elements.

Slide 12

Project : Taman Tun Dr Ismail Bungalows,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6

Architects : Gerak Reka Akitek Sdn

Description : An interesting interplay of pitch roof forms which gives a contrast to the usual bland repetitive housing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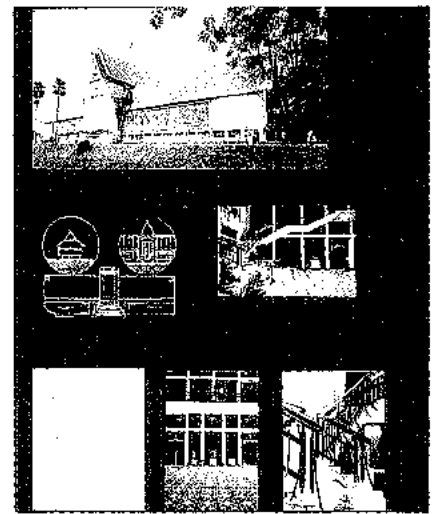
Slide 13(2)

Project : Malayan Banking Headquarters,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7

Architects : Hijjas Kasturi Associates Sdn

Description : The winning scheme of a national competition held in 1979, the design uses an analogy drawn from Malaysia's cultural artifacts as a symbolic basis for deriving built form, in



Slide 17

this case, the "Kris Taming Sari" or the knife of Hang Tuah, the Malay heroic figure.

Slide 14

Project : Railway Station Extension,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6

Architects : Perunding Alam Bina

Description : An example of a local architect's attempt to relate a fine existing colonial building for modern use. Careful detailing to blend with the Moorish style.

Slide 15

Project : Putra World Trade Centre,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5

Architects : Kumpulan Akitek

Description : A complex which houses the headquarters of UMNO, the ruling Malay political party. The main conference hall is inspired by the traditional Malay house form, which is also reflected at the foyer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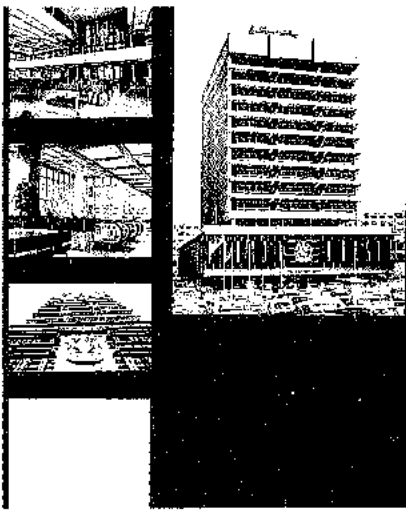
Slide 16

Project : Kompleks Nagaria,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6

Architects : Pakatan Reka

Description : This complex uses free and yet controlled adaptation of various building influences



Slide 18

bo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It has an interesting facade created by climbing stepped terraces curtain walling and colours.

Slide 17

Project : Muzium Negara (National Museum)

Year completed : 1963

Architects : Ho Kwong Yew & Sons

Description : It is the first large building to incorporate features of traditional Malay architecture particularly its roof form.

Slide 18

Project : Chartered Bank,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64

Architects : BEP Akitek Sdn Bhd

Description : This building employs a Brutalist rc post lintel frame expressed externally with glass windows to create lightness of the inner skin. The main banking hall is a two storey space with a partial mezzan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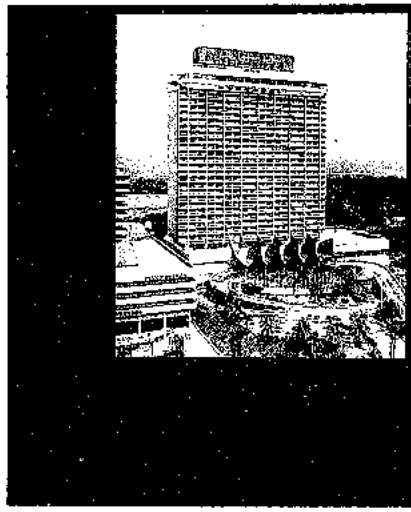
Slide 19

Project : Hilton Hotel,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73

Architects : BEP Akitek Sdn Bhd

Description : An important building, which forms the pinnacle to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known as the "Golden



Slid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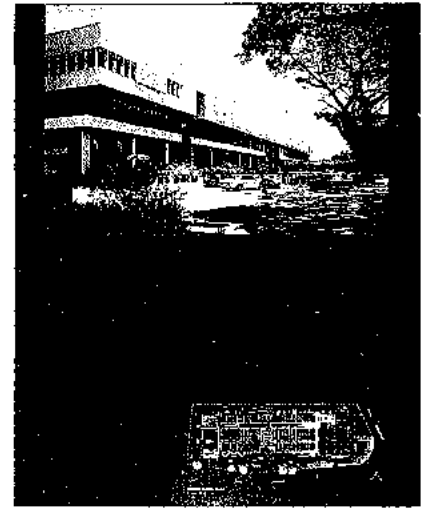
Slide 21

Triangle Area". The overall design, notwithstanding its vitality and form as international hotel, had local elements like the distinct expressive roof form at the entrance porch and the landscaped balcony setback at every guest room. The interior also utilises local materials and design motifs.

Slide 20(2)

Project : Ampang Park Shopping Centre,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73



Slide 20

Architects : Design Partnership (in November 1975 became D P Architects Pte) In association with S P Chow & Rakan Rakan

Description : This is the first large scale self-contained shopping complex representing a trend of shopp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main street shopping air-conditioned shopping complexes. The main interest of the building is in the use of a central street-like circulation pattern. In spite of the many later shopping complexes and insensitive additions to the building, it remains today a successful place.

Slide 21

Project : Apartments at Jalan Perumahan Gurney, Kuala Lumpur

Year completed : 1984

Architects : Kumpulan Karim Lai Akitek

Description : The siting of the apartment and the shape of plan form are devised to harmonise with the existing raintree. The elevating of the apartments is consistent with the architect's idea of freeing the ground floor for landscaping.



제 3 차 아시아建築士大會 開催案内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NOV. 7-11, 1988, SEOUL, KOREA

금번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본 협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제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회원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 소 개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매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의 중요한 국제행사로서, 1984년 제 1 차 마닐라 대회와 1986 년
제 2 차 쿠알라룸푸르 대회에 이어 1988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제 3 차 대회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 3 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학술토론회 및 제9 회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이사회 회의와 아시아 건축교육위원회 회의, 학생접
머리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며, 연합 행사로는 건축자재 전시회와
건축설계작품전시회 및 각국 건축사들이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건축관광과 선택 여행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기 간

1988. 11. 7 ~ 11. 11

• 장 소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 주 최

대한건축사협회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 후 원

건설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 참가자격

본 협회 회원 및 아시아 지역내에서 건축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
사와 건축관련 단체회원 및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활동에 관심있는
국내외 참가희망자

• 대회사용언어

한국어 및 영어

• INTRODUCTION

The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s the biennial conference
of 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and the
ACA-3, scheduled 7-11th November 1988, follows from the
earlier successful ACA-2 held in Kuala Lumpur, Malaysia
in 1986 and ACA-1 of Manila, Philippines in 1984. The
Thi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is consisted of the 9th
ARCASIA Council Meeting, ACAE Meeting, and the
Conference. And The Second Student Jamboree is to be
held concurrently with the ACA-3. Associated events
include exhibitions, architecture excursion and optional
tours.

• DATE

November 7 (Monday) — 11 (Friday), 1988

• VENUE

The Congress will be held at RAMADA RENAISSANCE
HOTEL in Seoul, Korea

• ORGANISER

The Congress is organised by the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in conjunction with the
ARCASIA.

• PARTICIPANTS

Architects practicing in Asia are all welcome to the
Congress. Architects from outside of the region are also
eligible to register. Members of allied professions from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are invited. Or others who
might have interests in the activities of ARCASIA are
welcome to participate in the Congress.

• OFFICIAL LANGUAGES

English and Korean

• 참가회원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쉬
싱가폴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한국
자유중국
중국

• 주 제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

공동사회에서의 건축행위는 사회구성원들로부터 발원하여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사회전체가 그들의 생활환경에 관련된 모든 존재를 위한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건축가의 역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은 물질적인 면을 초월하여 영적이고 의식적이며 또한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사회에서 건축가들은 광의의 조화있는 공동사회 생활을 건축행위의 목표로서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시아의 보다 산업화된 지역에서는 건축가의 업무 영역이나 책임이 전문화된 분야로 세분화되어 가고 고객의 층 역시 다양해짐에 따라 건축의 계획은 물리적 성능의 최대 효율이나 혹은 단순히 시각적인 외양의 세련됨을 최선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일 가치적 목표의 추구에 의해 공동사회가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속에서 건축가들은 생활환경의 시각적 측면을 번안하거나 단순히 여러 전문분야들을 교묘히 조정하는 역할로 후퇴해야만 하는 곤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건축가의 전통적 역할과 이미지는 우리의 옛 문화를 상기시키며 미래의 건축사 역할에 한 가닥 불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사회의 공동사회 정신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기술적인 면을 최고선으로 지향하고 있는 조류속에서 우리 건축사들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아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완전히 지워져 버리지 않은 이 공동사회의 의미와 정신에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의 건축가들이 공동사회로부터 어떻게 기대되고 있으며 동 시대의 생활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건축사 개개인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건축가 집단 전체에 부여된 과제인 것입니다.

공동사회에서의 건축사의 역할을 보다 확고히 정립하기 위해 건축사 역할의 사회적 차원에 더욱 많은 관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MEMBER INSTITUTES

Pertubuhan Akitek Malaysia.
The Institute of Architects Bangladesh.
The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The Sri-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The Indian Institute of Architects.
Ikatan Arsitek Indonesia.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The Institute of Architects Pakistan.
The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
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hinese Architects from Taipei.
Chinese Architects from Beijing.

• THEME OF THE CONFERENCE

The Asian Spirit: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the whole society is oriented towards architecture by the people, from the people, as well as, for all beings concerned. And each country may have had a traditional role structure of architect in its own name. Architects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are more conscious of the living community in its widest sense. Unfortunately, in the more industrialized part of Asia, the scope of work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rchitect has become fragmented into specialised fields. The strata of clients are further diverse. The extent of the building's programme is set with criteria exclusively curtailed by the maximum efficiency of physical performance or by the sophistry of visual appearances and aesthetics.

Fulfilling these might often be at the expense of the community. The profession is faced with the threat of being forced to retreat into a role of being simply a skillful coordinator of expertise and of being merely an interpreter of the visual form of the built environment. Here, the traditional role and image of architect remind us of our cultural past and may well shed light onto our professional future. This holistic community spirit require our critical re-examination.

In the brink of becoming a technologically oriented society, Asian countries need to retain and to vitalize its sense of the community and the spirit in providing a living environment to possess that which is still not yet totally faded from the Asian's mind. Asian architects need to rethink what is expected from them and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and should do for the Community of their concern. This is the Asian imperative in this period of transition. This imperative is directed not only to the individual architect but also to the profession as a whole in the region. To affirm the architects' role in the community, we need now to give greater focus to the social dimension of the profession.

GENERAL PROGRAMME

도 착 일 ARRIVAL	아카시아 이사회 COUNCIL MEETINGS		학 술 토 론 회 CONFERENCE		관 광 TOUR
11. 6 SUN	11. 7 MON	11. 8 TUE	11. 9 WED	11. 10 THU	11. 11 FRI
	DAY 1	DAY 2	DAY 3	DAY 4	DAY 5
대표단 및 학생도착 DELEGATES AND STUDENTS ARRIVE	아카시아 이사회 1 ARCASIA COUNCIL SESSION 1	아카시아 이사회 3 ARCASIA COUNCIL SESSION 3	토론회 1 주제: 건축사와 공동사회 SESSION 1 ARCHITECTS AND THE COMMUNITY	토론회 3 주제: 미래의 건축사 역할 SESSION 3 THE ROLE OF ARCHITECTS IN THE COMING AGE	올림픽 시설물 OLYMPIC FACILITIES 창 덕 궁 CHANGDUK PALACE 민 속 촌 FOLK VILLAGE
	아시아건축 교육위원회 회의 ACAE MEETING	아카시아 자문 기구회의 ARCASIA THINK TANK MEETING			
	LUNCH	LUNCH	LUNCH	LUNCH	
	아카시아 이사회 2 ARCASIA COUNCIL SESSION 2	자 재 전 시 회 개 막 OPENING OF EXHIBIT	토론회 2 주제: 건축사의 사회적 임무 SESSION 2 THE SOCIAL COMMITMENT OF THE ARCHITECT	토론회 4 종합토론 SESSION 4 WORKSHOP 결의문 채택위원회 COMMITTEE ON RESOLUT IONS	
학생샘버리 개최식 OPENING OF STUDENT JAMBOREE	환영연회 WELCOME PARTY	개회식 OPENING CEREMONY	자유시간 FREE	폐회식 CLOSING CEREMONY	

• 구성 및 일정

- 1) 제9회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이사회 회의
 - 일시: 1988. 11. 7~11. 8
 - 장소: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 2) 학술토론회
 - 일시: 1988. 11. 9~11. 10
 - 장소: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 3) 학생샘버리
 - 일시: 1988. 11. 7~11. 11
 - 장소: 흥국생명연수원 (경기도 신갈소재)
- 4) 특별 프로그램
 - 가. 건축설계작품 전시회
 - 일시: 1988. 11. 6~11. 11
 - 장소:
 - 나. 국내 우수 건축자재전시회
 - 일시: 1988. 11. 8~11. 17
 - 장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
 - 다. 건축관광
 - 일시: 1988. 11. 11
 - 장소: 올림픽 시설물, 창덕궁, 민속촌

• 학술토론회 주제, 진행방법 및 구성

- 1) 주제:
 - 공동사회를 위한 건축

• SESSIONS AND PROGRAMMES

- 1) The 9th ARCASIA Council Meeting
 - Date : 7-8, November, 1988
 - Venue : Ramada Renaissance Hotel
- 2) Conference
 - Date : 9-10, November, 1988
 - Venue : Ramada Renaissance Hotel
- 3) Student Jamboree
 - Date : 7-11, November, 1988
 - Venue : Heungkuk Life Insurance Training Centre
- 4) Special Programme
 - ARCASIA Architectural Student Design Competition
 - Date : 6-11, November, 1988
 - Venue : Heungkuk Life Insurance Training Centre
 - Architectural Material Exhibition
 - Date : 8-17, November, 1988
 - Venue : KOSAMI
 - Architectural Excursion
 - Date : 11, November, 1988
 - Venue : Olympic Facilities, Changduk Palace, Folk Village

• MAIN CONFERENCE

- 1) Theme
 - The Asian Sprit: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2) 진행방법:

학술토론회는 제4회기로 구분되며 마지막 회기를 제외한 매회기마다 2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마지막 회기에는 초청연사, 토론연사 및 대회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수석 보고자의 주관하에 그동안 발표된 논문들에 대한 종합토론을 하게 됩니다.

3) 구성

• 제 1 토론회: 건축사와 공동사회

의 장: 필립 멘도자 (필리핀)

Part I (09:00~10:30)

연 사: 크리스토퍼 배리 월슨 (영국)

토론자: 루시 캄바타 (인도)

로비 술라토 (인도네시아)

Part II (11:00~12:30)

연 사: 강홍빈 (한국)

토론자: 로치 구나라트나 (스리랑카)

다토 킹톤 루 (말레이시아)

• 제 2 토론회: 건축사의 사회책임

의 장: 김성국 (한국)

Part I (14:00~15:30)

연 사:

토론자: 판 조슈아 지 (자유중국)

에자즈 아헤드 (파키스탄)

Part II (16:00~17:30)

연 사: 존 하브라켄 (네덜란드)

토론자: 프로이란 홍 (홍콩)

도모요시 가토 (일본)

• 제 3 토론회: 미래의 건축사 역할

의 장: 슈멧 줌사이 (태국)

Part I (09:00~10:30)

연 사: 로드 하크니 (영국)

토론자: 에사 모하멧 (말레이시아)

자이암 제이프리 (파키스탄)

Part II (11:00~12:30)

연 사: 쓰토무 시게무라 (일본)

토론자: 타오호 (홍콩)

장성준 (한국)

• 제 4 토론회: 종합토론 및 결의문 채택 (14:00~17:30)

의 장: 타이 켝 순 (싱가포르)

연 사: 전원 참석

토론자: 전원 참석

2) Procedure

The Conference consists of 4 sessions and each session, except the last one, will have two presentations. The 4th Session is to be a workshop in which all the speakers, panelists, chairmen, and participants review and discuss the subject matters dealt with in the foregoing three sessions, converging to the main theme of the Conference, that is Architecture for the Community.

3) Constitution

Session 1: Architects and the Community

Session Chairman: Felipe M. Mendoza (UAP)

Part I (09:00-10:30)

Speaker : C.B. Wilson (U.K.)

Panelist : Rusi Khambatta (IIA)

Robi Sularto (IAI)

Part II (11:00-12:30)

Speaker : Kang, Hong Bin (KIRA)

Panelist : Lochi Gunaratna (SLIA)

Dato Kington Loo (PAM)

Session 2: The Social Commitment of the Architect

Session Chairman: Kim, Sung Kuk (KIRA)

Part I (14:00-15:30)

Speaker :

Panelist : Pan Joshua Jih (Taipei)

Ejaz Ahed (IAP)

Part II (16:00-17:30)

Speaker : N. John Habraken (Netherlands)

Panelist : Froilan Hong (HKIA)

Tomoyoshi Kato (Japan)

Session 3: The Role of Architects in the Coming Age

Session Chairman: Sumet Jumsai (ASA)

Part I (09:00-10:30)

Speaker : Rod Hackney (U.K.)

Panelist : Esa Mohamed (PAM)

Zaigham Jaffery (IAP)

Part II (11:00-12:30)

Speaker : Tsutomu Shigemura (Japan)

Panelist : Tao Ho (HKIA)

Jang, Seong Joon (KIRA)

Session 4: Workshop (14:00-17:30)

Rapporteur General: Tay Kheng Soon (SIA)

All Speakers . All Panelists

• 각종 연회행사 계획

1) 학생잼보리 개최식

- 일시: 1988. 11. 6(일) 18:00~21:30
- 장소: 흥국생명연수원
- 세부계획:
 - 18:00~18:10: 개회사 (조재원 학생잼보리대회 의장)
 - 18:10~18:25: 환영사 (안기태 ACA-3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8:25~18:40: 치사 (김영식 문교부장관)
 - 18:40~18:50: 축사 (Kenneth Yeang ARCASIA 회장)
 - 18:50~19:20: 각국 학생대표 소개 (학생 사회자)
 - 19:20~21:30: 만찬 및 축하공연

2) 환영 연회

- 일시: 1988. 11. 7(월) 18:00~22:00
- 장소: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 세부계획:
 - 18:00~18:10: 환영사 (안기태 ACA-3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8:10~18:30: 주요인사 소개 (송기덕 ACA-3대회 의장)
 - 18:30~22:00: 만찬

3) 개최식

- 일시: 1988. 11. 8(화) 18:00~22:00
- 장소: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 세부계획:
 - 18:00~18:10: 개회사 (안기태 ACA-3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8:10~18:25: 치사 (이현재 국무총리)
 - 18:25~18:35: 축사 (Kenneth Yeang, ARCASIA 회장)
 - 18:35~19:00: 각국 대표단 및 주요인사 소개 (송기덕, ACA-3 대회 의장)
 - 19:00~19:20: 기조 연설 (한태동, 기조 연사)
 - 19:20~20:00: 만찬
 - 20:00~21:30: 축하공연
 - 21:30~22:00: 홍보 영화상영

• SOCIAL ACTIVITIES

1) Opening of Student Jamboree

- Date : 6, November, 1988
- Venue : Heungkuk Life Insurance Training Centre
- Time :
 - 18:00~18:10 : Opening Address
Jo, Jae Won, Chairman, Student Jamboree Committee
 - 18:00~18:25 : Welcome Address
An, Kie Tae, Master Chairman of ACA-3 & President of KIRA
 - 18:25~18:40 : Congratulatory Address
Kim, Young Sik, Minister of Education
 - 18:40~18:50 : Congratulatory Address
Kenneth Yeang, Chairman, ARCASIA
 - 18:50~19:20 : Introduction of Student Delegates
Student Presiders
 - 19:20~21:30 : Dinner & Performance of Celebration

2) Welcome Party

- Date : 7, November, 1988
- Venue : Ramada Renaissance Hotel
- Time :
 - 18:00~18:10 : Welcome Address
An, Kie Tae, Master Chairman of ACA-3 & President of KIRA
 - 18:10~18:30 : Introduction of Guests
Song, Kee Duk, Congress Chairman, ACA-3
 - 18:30~22:00 : Dinner

3) Opening Ceremony

- Date : 8, November, 1988
- Venue : Ramada Renaissance Hotel
- Time :
 - 18:00~18:10 : Opening Address
An, Kie Tae, Master Chairman of ACA-3 & President of KIRA
 - 18:00~18:25 : Congratulatory Address
Lee, Hyun Jae, Prime Minister
 - 18:25~18:35 : Congratulatory Address
Kenneth Yeang, Chairman, ARCASIA
 - 18:35~19:00 : Introduction of Guests and Delegates
Song, Kee Duk, Congress Chairman, ACA-3
 - 19:00~19:20 : Keynote Address
Han, Tai Dong, Keynote Speaker
 - 19:20~20:00 : Dinner with All Delegates
 - 20:00~21:30 : Performance of Celebration
 - 21:30~22:00 : Multi-Presentation of Korea Living Treasure

4) 폐회식

- 일시: 1988. 11. 10(목) 18:00~22:00
- 장소: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 세부계획
- 18:30~18:40: 대회선언문 채택 (Tay Kheng Soon, Rapporteur General)
- 18:40~18:50: 폐회사 (안기태 ACA-3 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18:50~19:00: 축사 (Benjamin Brewer, AIA 부회장)
- 19:00~19:10: 인사 (ACA-4 개최국 협회 회장)
- 19:10~22:00: 만찬 및 축하공연

4) Closing Ceremony

- Date: 10, November, 1988
- Venue: Ramada Renaissance Hotel
- Time:
- 18:30-18:40: Declaration of Resolutions
Tay Kheng Soon, Rapporteur General, ACA-3
- 18:40-18:50: Closing Address
An, Kie Tae, Master Chairman of ACA-3 & President of KIRA
- 18:50-19:00: Congratulatory Address
Benjamin Brewer, Vice-Chairman, AIA
- 19:00-19:10: Announcement
Chairman, Host Institute of ACA-4
- 19:10-22:00: Dinner with All Delegates & Farewell Party

아시아 건축사 대회 요약 및 참가 활동

* 제1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1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1)

- 1) 기 간: 1984. 10. 24 - 10. 29
- 2) 장 소: 필리핀 마닐라
- 3) 주 제: "아시아 건축사를 위한 전략"
- 4) 주요 협의 내용:
 - 가. 본 대회는 아시아 지역내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색 및 특징적인 건축물 표현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새롭게 하였음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특성 창작 공간 구성을 재확인한다.
 - 나. 아시아 건축물 특성의 기본은 하나의 광대한 단체적 활동 아래 통합적이고 조화있는 부분으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공간내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 다. 본 대회는 새로운 기술 및 방법론이 아시아 건축 개발의 진행 과정에 하나의 도구로 개발, 이용되어야 함에 적극 동의하며 이러한 진행 과정은 문화 창작과 지역 특성의 생태학적 사실성의 인식에 의해야만 한다.
 - 라. 건축사는 아시아 사회 개발에 투철한 역군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건축사는 그 창작하는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것은 영원한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 마. 우리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활동 무대의 확장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 바. 본 대회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ARCASIA)에 의해서 가결된 운영단의 국제 윤리 규약을 정식 채택한다.
 - 사. 건축사가 사회내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위해 금번 대회사 채택된 기술 운영단의 국제 윤리 규약의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5) 참가자: 김지태 외 19명

* 제2차 아시아 건축사 대회

(2n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ACA-2)

- 1) 기 간: 1986. 10. 8 - 10. 14
- 2) 장 소: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
- 3) 주 제: "아시아에서의 전문 설계 영역 전략"
"아시아 건축에의 새로운 설계 방향"
- 4) 주요 협의 내용:
 - 가. 각 회원국 협회는 건축 영역의 마케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보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나. 국가적 차원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제3의 수준에 있는 전문 영역의 마케팅과 개업 건축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다. 건축 설계나 건설 영역의 마케팅에 있어 회원국의 사회, 경제적 요구를 관찰하여 지역간의 협력을 증진시킨다.
 - 라. 전문 분야의 규정을 검토함에 있어 국가 차원의 연구소는 지역 사회가 요청하는 사항들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가의 역할이 정도 이상으로 증대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마. 외국인 건축가의 자국내 활동을 허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행정력과 법적인 기구를 도입하여 운영하면 그 지역의 산업 발전에 이익을 줄 수 있다.
 - 바. 국가 차원의 연구소는 소속 국가의 정부가 그 지역의 전문 지식과 재능을 인정하고 활용토록 강조하여야 한다.
 - 사.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미 활동이 가능한 턴·키(Turn Key) 방식의 프로젝트나 조직화하는 전문 기술과 같은 것은 서로간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 교환등을 통하여 아시아 국가끼리 공유하여야 한다.
- 5) 참가자: 오용석 외 8명

“제 3 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Facing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김지태 / 대한건축사협회 전임회장

by Kim, Ji-Tae

실로 12년만에 160개국이 참가한 동서화합의 인류 최대제전인 '88서울 '88서울올림픽을 순조롭게 치러냈다. 우리의 능력과 자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알렸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을 만방에 보여주었다. 이제 무사히 올림픽을 끝낸 우리로서는 성숙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알차게 성인다운 국가로서의 길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 큰 잔치를 치뤘던 무드속에 국내외 건축사들의 깊은 관심사인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The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ACA-3)”를 대한건축사협회의 주최하에 서울에서 개최함에 따라 협회는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안다. 협회 창립 이래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를 주관할 만큼 성장, 발전된 것을 볼 때 격세지감을 느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과 조형창작 분야의 건축계로 보아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홀리간 사공속에 1984년 10월 제1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한국을 대표하여 참관차 다녀온 나로서는 더욱 감회가 새로운 바 있다. 그 당시에는 정식 회원국이 아니므로 참관에 그치던 우리나라가 이제 정식 회원국이 되어 (85. 11. 가입) 국제교류의 문호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 딱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아시아건축사협회 (ARCASIA)”가 지역적인 특수성때문에 범세계적인 건축관련 국제기구로서의 역할에는 못미치지만 세계건축가연맹 (U.I.A)의 후원을 받고 있는 동남아국가 (회원국: 13개국) 들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것이다. 그간 우리 건축사협회를 통하여 소개된 바 있지만 ARCASIA의 창설 기원을 기술러 올라가면 1967년 환경설계전문회의 (인도-뉴델리)에서 기구창립이 거론된바 있으며 그후 1980년에 태국-방콕회의의 결의에 따라 정식으로 발족하여 18년이란 연륜을 쌓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또한 설립목적의 첫항에서 밝혔듯이

아시아지역 각국가의 건축사협회를 통한 단합과 우의증진, 기술증진, 건축예술 문화창달, 건축교육 및 자연과학 분야에 관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제각기 다양한 문화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 회원국은 자기들의 전문적 기술을 통하여, 혹은 자기나라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문가적 관심이나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건축사의 정확한 문제점들은 물론 공동 관심사에 대한 해답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회원국들은 공동 사명감을 갖고 건축사의 권익을 위하여 교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를 앞둔 오늘에 있어 아직도 우리의 일부 회원들은 ARCASIA란 무엇하는 기구이며, 이 기구의 역할과 활동상, 회원국으로서의 이해득실 관계 및 기타 여러가지로 알고자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 물론 이에 대한 협회로서의 홍보매체가 미흡한 관계도 있겠지만 그동안 협회지를 통하여 회의 및 이 기구에 관련된 기사를 6회에 걸쳐 소개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이해되리라 본다. 나아가서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서 가압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에 따른 회의내용도 알게되리라 본다.

(84. 11월호, 86. 6, 11월호, 88. 1, 2, 7월호 등) 홀리간 세월속에 성년이 다 되어오는 80년도까지만 해도 협회차원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다시피 했으나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시대적 조류의 물결을 다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협회는 82년말 국제교류에 따른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지역적인 관계를 감안하여 우선 동남아 6개국 (대만,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우리 협회와 유사한 건축단체의 문호를 노크한 것이 교류의 효시라 하겠다. 교류가 없었던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협회는 외국 물정에 어두웠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만나 본 그들 역시 한국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란

고작 피상적인 것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에서 오류를 낳게 되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국제교류의 당위성을 실감케한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ARCASIA를 통하여 회원국 건축사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단결과 유대를 갖고 긴밀한 활동을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도 회원국이 된 이상 국위선양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더불어 우리나라 건축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도 협회든 개인이든 건축분야에 관련된 국제적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기술 지식과 전문을 쌓아 결코 낙후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금번 우리 협회가 주관하는 제3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대하여 협회 실정으로 미루어 조급하고도 무리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회원들이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ARCASIA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상 민간외교관 겸한 국가적인 차원과 우리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이 대회가 잘 치루어지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만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회에 대한 공과 노력은 훗날 평가받기로 하고 손님맞이할 준비에 우리모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 ACA - 1 한국대표단, 중앙에 金泰前會長

ACA-3 서울大會를 맞으며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 in Seoul

吳雄錫 / 本協會前任會長

by Oh, Woong-Suk



▲ ARCASIA 총회석상에서 ACA-3 서울대회
초청연설을 하고 있는 吳雄錫 前會長

지금 全世界는 國際間의
相互交流和 協力時代의
물결속에서 共存하며 앞을
다투어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속의
韓國建築의 現 位置를
알려야겠고 發展의 方向을
찾아 뒤져있는 問題點들을
國際活動을 통하여 새로운
角度에서 폭넓게 解決해
나가야 하겠다.

亞細亞地域建築士協議會(ARCASIA)는
韓國을 포함한 各亞細亞地域開發途上
11個 國家間의 建築士協會
國際協議機構이다.

그 設立趣旨는 隣近 國際間의 團合과
유대를 통한 友誼增進과
對社會地位向上, 서로의 情報資料
交換을 통한 建築文化와 技術의 發展,
各國內 問題解決, 研修 및 大學教育
制度研究 그리고 作品活動 環境改善등을
各 會員國間의 相互協力과 支援으로
이룩해 보자고 하는데에 있다.

그동안 우리協會는 歷代會長 및 任員
그리고 會員여러분의 꾸준한 努力으로
相互訪問과 交信等을 통하여 國際的인
活動을 해나왔으며 지난 ARCASIA의
第1次大會(ACA-1, 1984. 10. 25
마닐라)에는 당시 金枝泰會長을
團長으로 한 20여명의 參觀團이
參加하므로써 正會員國으로의 加入이
學論되었었다.

그후 우리協會는 정식 會員國加入
問題를 두고 得失이 무엇이며 歷史와
文化의 背景을 달리하고 있는 그들과의
和合問題 그리고 國家的인 次元에서의
政治, 經濟 및 外交的 側面의 考慮와
우리 國內問題로서 UIA와 關聯하여
國際活動窓口의 一元化等 問題가
신중히 考慮되었으나 國際化時代의
흐름속에서 孤立될 수 없으며 적극적인
主導的 國際活動을 하므로써 우리들
자신과 協會를 發展시키고 우리들의
當面問題를 폭넓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會員여러분의 뜻을 수렴하여
支部長會議과 諮問會議을 거쳐
任員會議에서 決議함으로써 正式으로
加入申請書를 보내고 加入을 하기 위한
活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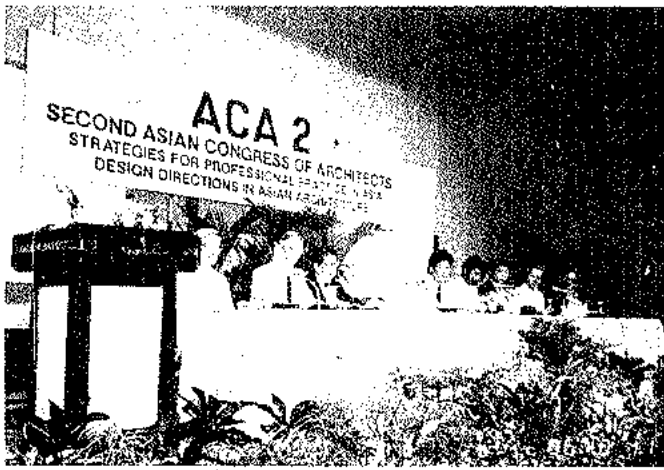
때마침 1985年 11月 18日 印度孟買
市에서 開催되었던 ARCASIA 第6次
理事會에 加入申請者의 資格으로
우리代表團一行(本人, 宋基德,

金知德)이 參加하여 理事會 席上에서
正式 加入의 뜻을 밝히고 北韓 또는
中國의 加入 問題에 대한 質問과
우리協會가 韓國을 代表하는 團體인지에
대한 確認하는 質疑를 거쳐
正式會員國(理事國)으로서 正式
加入承認 決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協會의 ARCASIA會員國 加入이
國際무대에 進出하게 된 發展的인 계기가
되어 앞으로協會와 우리 會員여러분들에게
크게 發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中國이나 臺灣이 國號使用 問題로
加入申請書를 提出한 狀態에서
滿5年이 되도록 아직도 正式 會員國이
아닌 參觀國資格으로 每年 理事會와
大會行事에 參加하고 있다고 하는 實情을
보아도 國際活動이 얼마나 政治에 민감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 實感할 수 있다.
(大韓建築士協會誌 No.201호 1985年
12월호 P.36 第6次 ARCASIA理事會
및 ACA-2 參觀記 參照)

우리協會가 會員國으로 加入된 후
처음으로 ACA-2 開催國이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986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開催되었던 第7次
理事會에서 理事國 資格으로 參席하여
諸般事項을 協議 또는 決議權行使를
하였으며 任員改選에서는 本人에게
副會長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었으나 사양했으며, 대신 ACA-3
大會와 學生 Jaboree 大會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에 力點을 두어 活動한 結果
結實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ACA-2 大會는 理事會에 이어 11일부터
4일간 祝祭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代表團一行은 本人과 宋基德,
李永一, 金知德, 朴奎水, 趙載元, 田鳳季,
金宇成씨 등 8名으로 構成되어 參加하였고
그외에 20여명의 회원참관단과 임인혁
사무처장이 자리를 같이 하였으며 학생
Jamboree 에는 學生 代表로 學生作品
優秀賞 受賞者인 최병무, 윤희준君이
作品을 展示하며 參加하였었다.



▲ ACA-2 회의장경 (전단)



▲ ACA-2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

大會期間中 會員國家 代表團員들과는 오랜 친구들을 만난듯이 즐겁게 환담하고 친숙해졌었다. 특히 우리가 準備해 가지고 간 Forum 時間에 上映된 우리나라 建築을 紹介하는 Multivision은 음아울 걸드린 토오키까지 크게 效果를 보아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이 보였다. 大會順序의 끝으로 韓國代表인 本人의 ACA-3 서울大會에 대한 案内와 人事 말씀을 하고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하고 끝말을 하자 우와와 같은 박수를 받고, 大會는 폐막되었다. (大韓建築士協會誌 No.212호 1986년 11월호 P-42 제 2 회 아시아건축사회의 記事 參照)

우리 協會도 이제는 國際化時代에 積極呼應하여 그동안 닦고 길러온 底力을 바탕으로 活動하여야 할 때가 온것 같다. 지난 1985년 3월 30일에는 日本建築士會聯合會 太田和夫 會長을 招請하여 親善交流覺書에 相互 署名하여 每年 交換訪問과 資料交換 그리고 建築法, 規定, 制度等을 比較 研究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9일에는 美國샌프란시스코에서 開催되었던 '88AIA大會에 招請받아 參席하였었으며 이어서 워싱턴에 있는 AIA本部를 訪問하여 相互關心事에 대한 協議를 하였고 앞으로 相互親善交流 할 뜻을 期約하고 많은 資料를 얻어 歸國한 바 있었다.

지난날 韓國이 中東에서 海外建設이 크게 奇與한 바 있었으나 設計活動面에서는 거의 직접 受注實績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國際社會에서의 競爭力이 없음을 實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現代建築이 外來樣式이고 그 歷史가 짧다고는 하나 항상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88올림픽 서울大會에서 우리는 全世界의 耳目을 서울에 모아 成功的으로 大會를 치름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地位를 크게 格上시켰다.

지금 全世界는 國際間的 相互交流,

協力時代의 불길속에서 共存하며 앞을 다누어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世界속의 우리들의 建築의 現位置를 알려야했고 發展의 方向을 찾아 뒤흔어있는 問題點들을 解決해 나가야 하겠다.

外國의 大學教育은 日本과 韓國만을 除外하고는 全部가 獨立된 5年制 建築大學에서 履修되며 建築士는 社會에서 最高의 待優를 받고 있으며 모두가 潤택한 生活를 하고 있는 實情이다. 東南亞 各國은 대부분이 英國系 영향權에 속해 있는 實情이며 生活水準은 香港, 싱가포르, 대만등을 제외하고는 CNP 比較面에서 韓國보다도 뒤지고 있는 實情이나 建築만은 英國, 호주등지에서 教育된 建築士들이 主軸이 되어 活動하고 있는 낮은지 훌륭한 作品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으며, 建物 하나하나를 正상을 다하여 創作해 나가고 있는 作家의 態度나 社會人의 建築士들에 대한 優待認識이나 좋은 作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法規定이나 制度等은 본받아야 할 점이 많다.

우리나라 建築法, 建築士法이나 地方條例中 問題가 되고 있는 監理方式이나 建築士處罰規準 또는 實効性없는 綜合建築士事務所制度等이나 二重規制로 Design을 粗害하고 있는 地上駐車比率等은 全世界에서 비슷한 例조차 찾아볼 수 없는 問題들이다. 지난 86年度에 經濟企劃院 公正未來委員會에서 問題視했던 建築設計人札 制度化의 事件當時 國際間的 協力으로 各國의 設計受注方式에 대한 資料等이 供給되어 解決에 도움을 주었던 인도 國際間에 協力과 支援으로 이루어진 좋은 例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協會는 建築士法에 依하여 設立된 唯一한 建築士의 모인이다. 그 法이 준 特權속에는 建築士 자신만을 위한 權益活動의 限界를 초월해서 建築士

業務와 關聯된 모든 分野에서 國家와 社會를 代表하여 後進養成으로부터 國際活動 問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奉仕해 나갈 責任까지도 결들여 있음을 알려야 할 것 같다.

이번 서울에서 開催되는 아세아建築士 第3次大會(ACA-3)에는 會員各國의 代表團은 물론이거니와 UIA會長, AIA會長, 日本建築士會聯合會會長 등 建築界의 重陣들이 大舉 參席하는 汎世界的인 國際行事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이번 大會를 成功的으로 完遂함으로써 國威를 宣揚하고 우리나라의 建築文化와 風俗을 紹介함으로써 友誼를 두터히 하고 國際間에 團合된 建築士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社會의 認識을 새로이 하여 폭넓게 누적된 問題點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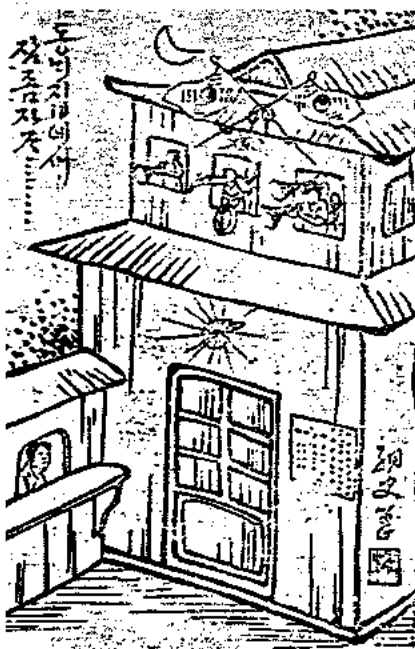
그동안 本大會를 準備해 나가는 課程에서 安箕泰 會長을 爲始한 任員, 支部長여러분과 準備를 위한 직접 活動을 擔當한 準備委員會 委員여러분의 勞苦와 會員여러분, 그리고 本大會 開催를 聲援 指導해 주신 各界人事여러분에게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本大會가 成功的으로 끝날수 있도록 여러분의 積極적인 大會參與를 부탁드리며 建築學徒 여러분의 Jamboree 參與를 期待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金晶東 /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by Kim, Chung-Dong



▲ 1909년경의 어떤 劇場의 정면그림
(李杜鉉, 韓國新劇史研究)

88. 東洋劇場

위치 / 충정로 1가 62-4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935. 11. 30
설계자 / 玉田건축사무소
시공자 / 藤澤工務所(藤澤恒夫)
건축규모 / 구조 : 원근콘크리트+벽돌조
층별 : 지상 2
대지면적 : 501 평
건축면적 : 373 평
연면적 : 평

보존상태 / 현대그림 소유

東洋극장은 20세기초의 인터내셔널 근대건축의 典型을 두루 갖춘 몇 안되는 건축물의 하나이다.

直4角形과 曲面의 수평적·수직적 처리라든가 層高를 나눈 맛과 꾸밈이 분명하다. 2개의 수평선과 격자창 그리고 지붕선, 수직선상의 3개의 原形窓도 모던하다.

이제는 門을 닫은 상태로 마치 창고같이 을씨년스럽게 충정로 언덕 위에 서있으나 일체 군더더기 없는 Facade 로 올드팬의 마음에 남아 있는 것이다.

東洋극장은 1935년 西大門 고개 바탈길에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 부지는 당시 조흥은행의 방계회사인 대창실업 주식회사 소유로서 서대문구 충정로1가 62번지 소재, 5백1평이었다. 그때의 실정으로는 극장 하나 지을만은 하였으나 비탈이 진 언덕인데다 바닥이 바위로 되어서 정지작업이 힘들게 생긴 땅이었다. 그러기에 일반 대지로는 적당치 않아 매매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¹⁾ 서울인구 40만 당시의 숙원이었던 새 극장은 協律社, 圓覺社등 한국초기의 극장이 있던 거리와 유사깊은 한 장소로 선택했던 것이다.

그 당시 이곳은 電車길도 있었고 精米所등이 주변에 서 있을 때였다. 극장의 설립자는 韓國人 무용가 裴龜子(배정자의 조카)와 洪淳彦(平壤소재 철도국직영 야나기호텔 지배인)부부였다. 와게지마라는 日本人도 참여했다고 한다.

이 극장을 설계한 건축가는 資料 未詳이라 불확실하나 1930年代 韓國에서 크게 활약한 바 있는 玉田橋治로 추정된다.²⁾

이는 東洋극장의 시설이 최신향이고 回轉舞臺, 1인용 日製 접는 의자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玉田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金美都의 논문³⁾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또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 내게 될 서류에는 극장의 모형과 구조의 약도까지 그려넣어야 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홍순언이 가지고 있던 동경

다카라즈카극장(寶塚劇場)의 사진으로 대신하였다. 그 극장이 그 당시까지 일본에서도 가장 새로운 모형의 극장이었다.……』⁴⁾

그리고 이어서, 『……극장은 시멘트 콘크리트의 2층에다 왼쪽에는 모양으로 탑을 세웠는데 이는 동경 다카라즈카극장을 모방한 것이었다. 극장 뒤에는 소위 가꾸야(樂屋)라고 하는 배우들의 휴게실 겸 분장실인 목조건물이 지어져 널따란 온돌방을 개관 준비 사무실로 쓰면서 먼저 남녀 배우를 모집, 전속극단의 조직을 서둘렀다.……』⁵⁾고 인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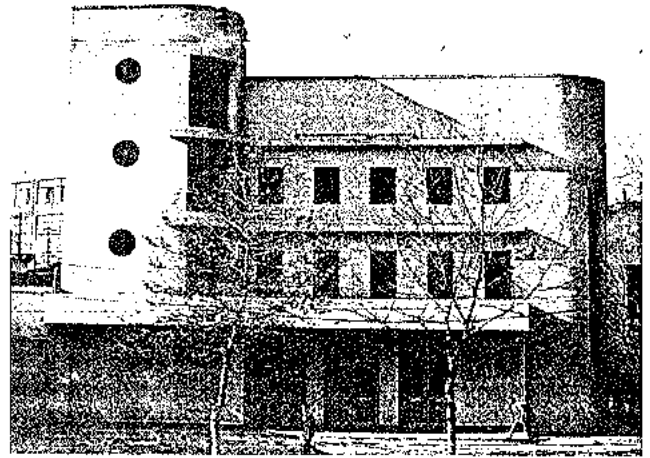
日本 東京의 寶塚극장은 1933년에 세워졌다. 東洋극장보다 2년 먼저 세워져 있었다. 東京의 지요다(千代田 有樂町)에 지금도 서 있는데 1920년대부터 크게 활약한 竹中工務店이 設計, 施工한 건물이다. 그 규모는 東洋극장 보다 2배이상 큰데(築地, 1,200坪) 외관은 초기의 국제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東洋극장에 이전된 모습 그대로이다.⁶⁾

대지면적 488평에 건축면적 373평의 2층으로 된 東洋극장은 1935년 11월 그 門을 열었다. 團成社와 同時期였다. 관객 수용능력은 648석으로 團成社의 680보다 약간 적은 정도였다.

『……객석은 1층이 일반석으로서 4백석 정도이고 2층은 2백석 정도가 일반석과 특등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당시 다른 극장들은 다다미석으로 되어 있어 신을 벗고 입장하여 방석값을 따로 내기도 하였으나



現在の 東洋劇場,
대기업이 매입했으나
되지 않고 있다.



◀ 劇場의 개략도(金美都), 위로부터 별채, 1층, 2층 평면

동양극장은 1·2층 모두 걸상을 놓아 신을
신은 채 들어갈 수 있었다. 의자는 여러 명이
함께 앉는 것으로서 등받이가 되어 있고
특등석은 특별히 폭신하고 팔걸이가 있는
1인용 의자였다. 남녀 관객은 어느 극장처럼
따로 나뉘어 앉았는데 보통 여자석이 3분의
1, 남자석이 3분의 2 정도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적으로 비율이 조정되기도
하였다.……」

朴珍은 東洋劇場을 회고하는 글에서
극장내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35년 11월말에 서울 西大門 밖
마루턱 너미監營 앞에 東洋극장이 섰다.
애초부터 演劇 專門 극장으로 설계하여
回轉 舞臺(회전 무대는 朝鮮극장에도
있었다)와 蒼空壁(호리진트)이 짧고 좁고
작았으나 소위 하나미찌(花道)라는 무대의
통로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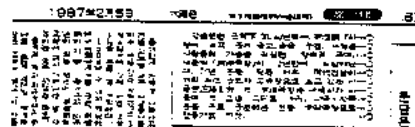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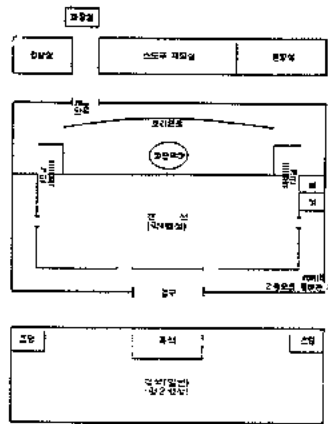
이 극장은 주로 流浪劇團의 新派劇이
土着化되는 과정에서 세워졌으며 「國境의
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어머니의
힘」, 「僧房悲曲」, 「黃眞伊」,
「明月아씨」등이 공연되어 나라 잃은 슬픈
백성의 아픔을 내내 해주기도 했다.
건물이 식민지 국가의 대중 극장적 정면을
취하게 된 연유도 거기에 있다. 古典의인
외관은 부르조아 즉 귀족적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明洞극장이나 國都극장의 화려한 장식
수법은 보는 이의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따라서 서민의 접근성에 그
意匠의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다.
寶塚극장은 그 좋은 선례가 되었던 것이다.

「……東洋극장의 연극 전성시대의 연극은
관중에게 예술적 향락과 인심의 개선과 지적
자극의 원천으로서의 하나의 敎化기관
의 문화 사업이었다. 그들의 劇運動은
자연주의적 내지 사실주의적 연출 방향에서
출발하여 魯晩主義의 준비시대였다.
기업가, 극작가, 연출가, 연기부원들은 협동
일치하여 활동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며
또한 권리이며 사명이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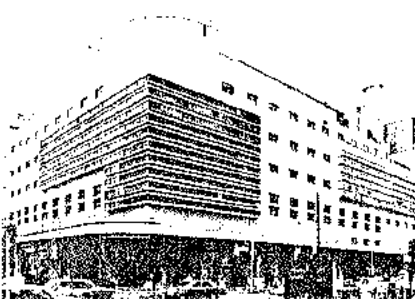
이 극장이 본격적인 영화관이 된 것은



日帝시대 新派劇의 座室 「東洋극장」 빛모습 찾는다



▲ 東洋劇場의 保存에 관한 신문기사(中央日報, 1987. 2. 5)



▲ 日本, 東京의 宝塚劇場(日本の 建築),
東洋劇場의 건축에 영감을 주었다.

6. 25전쟁 직후인 1952년이였다. 그러나
극장들의 경기가 下向曲線을 그리며
떨어지자 東洋극장도 어쩔 수 없이
재개봉관으로 전락했으며 이 건물의
이미지도 따라서 下流로 떨어져버렸다.
그러다가 1976년 3월 4일에는 그나마 극장의
화려한 간판을 내려버리고 말았다.
현재는 現代그룹의 사원 연수용 강당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이 건물의 운명은 혼란을
다투고 있다. 연극인의 요람으로 연극인의
손에 의해 다시 생명이 주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연극박물관이나 영화박물관은 그 좋은
역할이 될 것이다.

필자는 최근(1988. 7. 6~7. 28)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주로 일본각지의
근대건축의 보존과 전용에 관한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중 교토(京都)의 「東映, 太秦
映畫村」과 아노야마(名古屋 大山)의
메이지 무라(明治村) 「吳服座」는 관심깊은
대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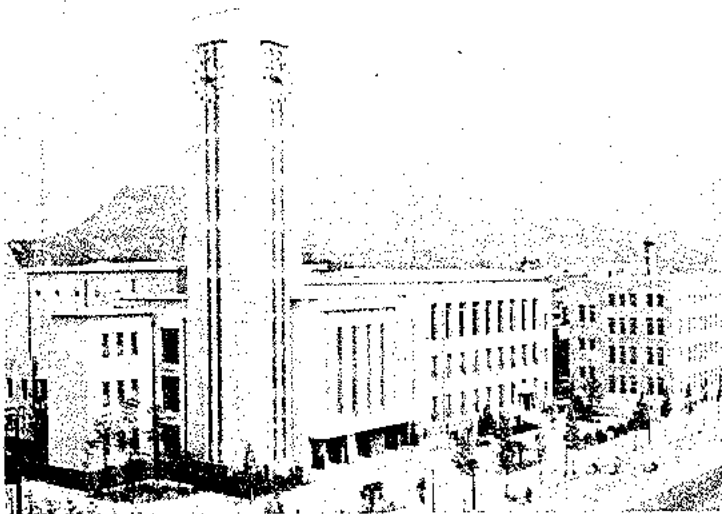
교토의 영화촌은 각 영화제작사들의
현장세트(各時代의 건물이 세워짐)라는가,
각종 영화관계 자료들이 공개되, “보고,
배우고, 즐기고, 창조한다”는 캐치
프레이스를 내걸고 영상문화의 센터화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또한 나고야의 메이지부라는 가부끼,
新派들을 공연하던 구레바자(吳服座)를
이축하여 메이지(明治) 시대의 극장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영화, 연극사도 100년이라는
나름의 역사를 철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곳에 모아 “진”하는 매체가 없어 그 전통의
현장을 살릴길이 없는 것이다. 우선
적은데로 東洋극장의 그 건물이라도 연극,
영화사적 자료를 화일하는 역할을 하게되길
기대한다.

□註□

1. 金美都, 東洋劇場의 설립과 운영,
韓國演劇, 1987. 3.
2. 玉田橋浩는 玉田건축사무소를
明洞(明治町2丁目25)에 개설하고



▲ 1935년, 府民館이 준공되었다. 時計塔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뉴멘탈하다.
오른쪽의 건물은 당시의 朝鮮日報社이다. (朝鮮と建築 1937. 9)



▲ 1960년대, 國會議事堂시절. (서울신문사)

團成社(1935), 明治座(明治座)
國立劇場, 1936), 黃金座(國都劇場,
1936)등을 설계한 바 있는 극장 건축
전문가였다.

3. 金美都, 앞글.
4. 金美都, 앞글 (朝鮮日報, 1965. 1. 31.
再引用)
5. 金美都, 앞글 (朝鮮日報, 1965. 3. 25.
再引用)
6. 日本建築學會, 總覽 日本の建築,
東京, 1987. p.33.
7. 朴珍, “東洋劇場시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中央日報社, 1977. p. 641
8. 「世界文藝辭典」, 白鐵, “洪海星의
평가”, 1955, 「서울 600年史」, 제4권,
pp. 771~772 재인용.
9. 東洋劇場은 1960년 한국정치사의 한
주역이었던 이기봉의 집과 마주한
인연으로 그 시대의 물락과정을
목격했으며, 그 혁명(4.19)의 이후 그
자신도 좋았던 시절의 극장 역할을
마감하기 시작했다.

89. 世宗文化會館 別館

위치 / 대평로 1가 3번지

착공년월일 : 1934. 7. 30

준공년월일 : 1935. 12. 10

설계자 : 萩原孝一, 土屋積

시공자 : 三木合資會社

건축규모 : 구조 : 원근원리리토조

층면 : 지하 1, 지상 3, 옥탑 1부분

내지면적 : 1,780 평

건축면적 : 584 평

연면적 : 1,714 평

보존상태 / 1980년 일부 해산

日帝는 自國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주어
이익을 보던 美國人 경영의
「韓美가스회사」를 매입해서 「日韓
가스전기회사」로 개명했다. (이후,
京城電氣주식회사).
그 회사는 서울의 전기, 가스, 전화 경영권을
독점하고는 비싼 사용료를 거둬들였다.

그들은 막대한富를 독점하고는 너무
심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 1933년 6월
“民을 위한館”을 세우기로 계획하고 있는
京城府에 건축기부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위치는 京城府廳(서울시청) 건너편으로
정했다.

이 터는 朝鮮朝 초기(李太祖)부터
興天寺라는 절이 자리잡고 있었던 곳이다.²⁾
1930年代의 서울 인구는 40만명 정도였으나
이 때까지만 해도 시민을 위한 문화, 위락
시설은 거의 없었다. 親日派, 귀족,
日本人들을 위한 고급 시설만이 한 둘
세워지는 정도였다. 말이 府民館이지
그것도 상류 계급층을 위한 시설이
주목적이었던 것이다.

京城府는 對民을 위한 강연회, 사교, 오락,
연극, 영화, 음악, 무용 등을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日本 주요 도시에 既設된 文化會館 시설을
위해 要員도 파견하고 建築界의 권위자들도
초청하여 의견 청취를 많이 했다. 그들은
東京 히비야(日比谷)에 있는 公會堂을
모델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³⁾

이 시기는 古典의 樣式 수법이 자취를
감추고 네오고딕적 수법 즉 생략된 面처리,
창문의 단조로움, 그리고 모던機能主義가
넘쳐 나가던 때였다.

萩原孝一과 土屋積의 설계⁴⁾로 1934년
7월 30일에 착공된 府民館은 1년 예정으로
건축에 들어갔고 마침 기상조건이 좋아서
순조롭게 공사가 진척되어 이듬해인 1935년
6월 1일에 定礎를 하고 그 해 12월 10일에
준공하였다.

「京城會報」에 따르면 시공은
三木합자회사가 맡았고 냉·난방과 환기
설비는 杉山製作所가, 전기 설비는
加藤상회, 무대조명설비는
川部配電氣器研究所가 각각 참여했다.
건축규모는 전체 대지 1,486평에 건평
584평, 연건평 1,780평에 이르렀다.⁵⁾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하고 塔部를
本體에 붙여서 세웠다.
모뉴멘탈한 이 수직탑은 公會堂의 상징성이

강조되어 太平路 官衙街의 進入을
암시하는 랜드마크적 요소가 되었다.
塔部는 前面 현관의 좌우 대칭축에서
왼쪽의 계단부만 들어올려 單塔型을 취하고
있다.

6.4×6.9m의 塔部는 높이 46.6m로 용도
외에 불균형된 과장법을 써서 수직선을
강조시켰는데 그 端部에 시계를 달아 놓은
것이 그 목적의 유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本體의 내부는 1,800석 규모의 3층型
大강당(301평)을 중심으로 400석의
中강당(147평), 160석의 小강당(40평)을
두어 다목적 회관의 기능을 다하게 했다.
그 외에도 특별실, 휴게실, 다다미실,
담화실, 식당, 부속실, 이발소까지 갖추어
놓았다.⁶⁾

府民館은 공연장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大강당의 색채는 물론 조명, 음향 처리를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내부와 천정의 형태,
사용 재료 등에 學理的인 수법을 도입했다.
이 건물은 준공 후 日帝 식민지의 홍보장화
되어 전쟁 말기 친일파들의 변절된 모습을
보이는 장소로 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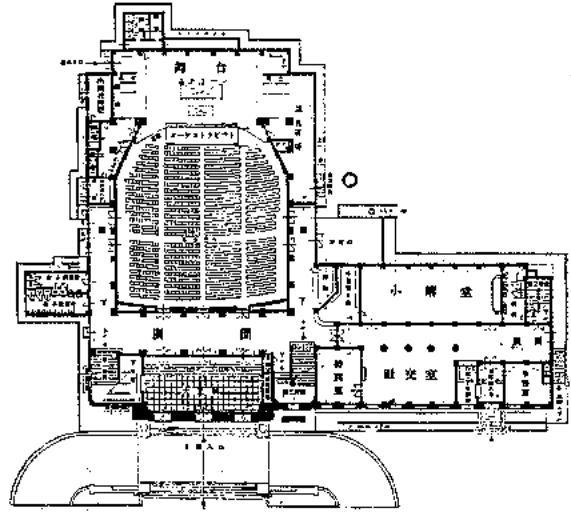
8.15해방이 되자 이 건물의 사용에 대한
문화 기관의 의견은 복잡했다. 정부가
國會議事堂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50년 美軍이 府民館을 차용해서 쓰고
있다가 철수하게 되자 연극인들은 원래의
성격대로 國立劇場으로 쓰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6.25동란이 발발하자 이
건물은 赤手下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어쨌든 이 건물에서 開會된 制憲國會는
초대 大統領을 선출하게 됨으로써 이 건물은
해방후 政治史의 한 章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이 건물이 본격적으로
國會議事堂으로 轉用된 것은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6월 3대 국회 때부터였다.⁷⁾
그 후로도 이 건물은 國會議事堂의
기능으로 轉用됐으나, 장소의
불합리성(?)과 이미지의 악화로 교전하다가
國會는 여의도 議事堂으로 가고(1975년),



▲ 교보빌딩에서 시청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다. (서울시)



▲ 신축당시의 1층 平面圖, 1975년 도로확장시(前面道路) 건물 前面部 일부가 잘려져 나갔다.

그 후 太平路 도로 확장 공사(50m 폭)로 前面部 12m를 도로로 내어주게 되었다. 1980년 7월 정문과 현관등 280평이 헐렸고 시계탑이 消防署 塔같이 그 기능을 잃었으나 그 건물의 정치성이 하도 높아 별 이미지 변화 없이 남았다.”

4. 19를 결정적으로 성공시켰던 광장은 사라졌다.

한 때 서울시는 이 건물을 칠거할 계획도 가졌으나 世宗文化會館이 세워지면서(1975.9) 그 別館으로 존치시켰다.

앞으로 있을 地方自治制에 따라 서울시議會 건물로 轉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註□

1. 계획은 1932년 11월부터 시작되었다.
2. 英國大使館 자리에는 貞陵(李太祖의 繼妃 신덕왕후 姜氏墓)이 있었고, 그 연유로 이 일대를 貞洞이라 했다. 德壽宮 부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李王家 소유였다.(原, 太平路 1丁目 60번지).
3. 東京千代田區 日比谷 공원내에 소재, 佐藤功一の 1929년 作品이다.
4. 「朝鮮と建築」, 1935. 8, 1936. 3.
5. 후에 증축, 2,440평으로 늘어났다. (『서울600年史』, 제4권, p. 450).
地下層 266평, 1층 584평, 2층 380평, 3층 370평, 옥상 43평, 탑옥 74평, 본채높이 63尺, 탑옥높이 144尺.
6. 柳敏榮, 한국극장사, pp. 90~94 (萩原孝一の 工事 보고, 1936.1)
7. 이 건물은 6.25때 폭격을 받았고 1955년 補修, 復舊되었다.
8. 현재 玄關의 위치는 건물 左側 모서리로 옮겨져있다.
9. 朴承洙, 歷史的인 건축의 再使用과 増築에 관한 연구, 서울대(碩), 1984. p. 23.

90. 團成社

위치: 수은동 58

착공년월일: 1934. 6. 15

준공년월일: 1935. 12. 21

설계자: 玉川 건축사무소

시공자/

건축규모/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층별: 지하 1, 지상 3, 옥탑 1

대지면적: 400 평

건축면적: 159 평

연면적: 400 평

보존상태/ 지하현광사 피해로 내·외부 보수

「團成社」라는 이름은 무수 株式會社 이름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開化期의 극장이름은 거의 무순社, 무순社 하는 식으로 지어졌었다.

團成社는 1900년대 全期를 겪어 오면서 韓國人과 애환을 함께 해오던 역사성이 유별난 영화관이다.

團成社의 외관은 수없이 바뀌고 고쳐졌지만 그 위치와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채이다.

『……단성사는 주지하다시피 한국 최초로 생겨난 극장은 아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협률사 다음으로 광무대가 생겨났고 광무대 개관으로부터 불과 8월 후에 단성사가 태어났다. 광무대는 1907년 5월 28일이요, 단성사는 같은 해 6월 4일이었다.……』¹⁾ 첫번째 團成社가 세워질 즈음 여러 종류의 演藝館이 생겨났는데 그 전후해서 생겨난 대표적인 연극 전용 극장은 團覺社이다. 그 외의 다른 극장들을 보면 당시에 光武臺를 비롯해서 長安社, 演興社, 團成社, 團興社, 音樂社 등등이 있었다. 이즈음의 團覺社와 光武臺는 비교적 자리를 굳힌 극장이었고, 시설이 약간 떨어지는 극장들로서는 音樂社, 演興社, 團成社, 長安社 등이 있었다.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1900년대 초기에 비교적 여럿의 극장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존 건물을 임시로 극장으로 개조해서 轉用한 것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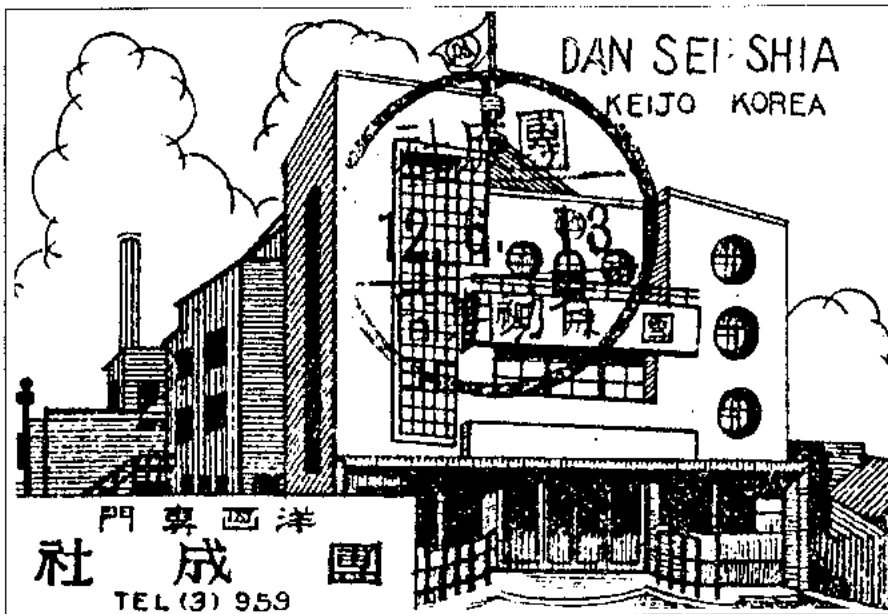
團成社는 韓末 左捕盜廳의 자리인 洞口, 즉 授恩洞 58번지 현위치에 세워졌다.”

『……그중 團成社의 건축은 세 사람의 한국인과 한 사람의 일본인의 합작회사로 되었다. 隆熙 元年(1907)에 5개월 공사로 준공된 극장이다. 무대 설비와 大道具 등속의 제작은 京城座 일본인 道具師의 손을 빌어 차려 놓았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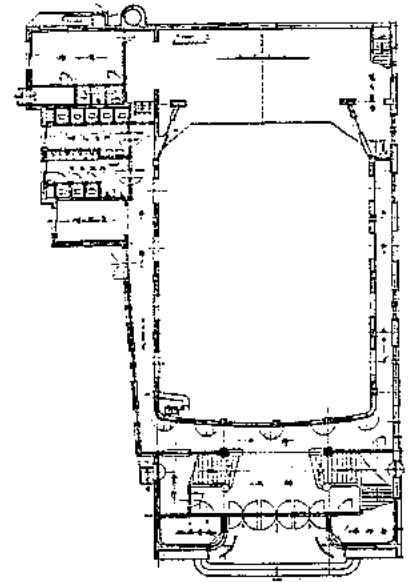
『……초창기 단성사의 건물은 사진으로나마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것을 밝힐 수 없는데 어느 기록을 보면 초창기의 단성사 건물(박승철이 1914년 9월 인수받기 이전)은 순전한 바락크식의 2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극장의 외형도 그러했거나와 내부 복조건물이 워낙 부실해서 관객이 2층에서 1층으로 굴러떨어지, 바닥은 구멍나고 관객은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고 한다. 1층에서 2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가 계단이 쭉 꺼져 관객이 뒤로 나동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말이 극장이자 그 사정은 알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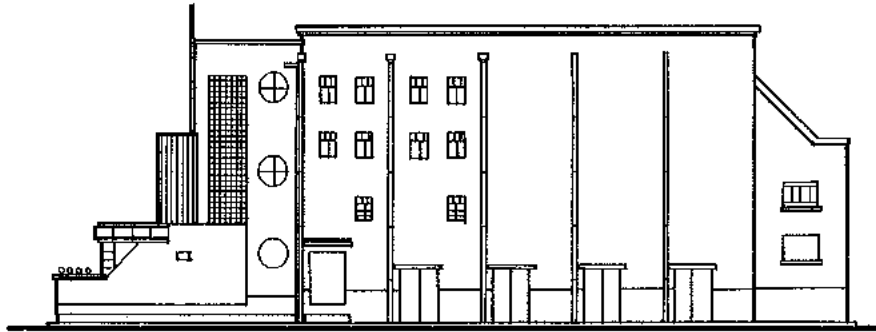
앞에서 말한 단성사의 건물은 1913년 11월 9일 새 건물의 상량식이 있음과 동시에 1914년 1월 28일 새 건물의 신축 착공식이 있었으며 이 건물은 1년여 뒤에 돌연 대화재로 건물이 불타버렸다.(1915년 2월 18일) 1만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 새로 건축한 건물이 자취를 감춘 것이었다. 건물이 불타 없어짐으로 해서 공연 단체는 구장안사로 공연 무대를 옮겨 흥행하였다. 1915년 6월 중순부터 1만원을 예산으로 책정, 타버린 건물을 모두 헐고 1918년 12월 21일 신관 낙성과 함께 본격적인 영화관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었다.……』³⁾ 連鎖劇「외리적 투구」가 이 곳에서 개봉된 1919년 10월 27일을 韓國映講史의 基點으로 보고있다.⁴⁾ 1919년은 3.1 운동이 일어난 해이므로 이 때 이 영화관은 日帝 침략자들에게 민중 慰撫의 궤계로도 설일이 시급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1923년경에는 서울에 본격적인 영화 상설관이 더 많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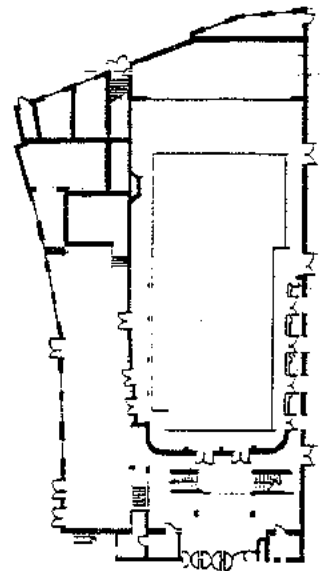
▲ 1935년 12월 21일 준공된 團成社. 그림은 1937년 6월 13일자 의 안장권 앞면 (김종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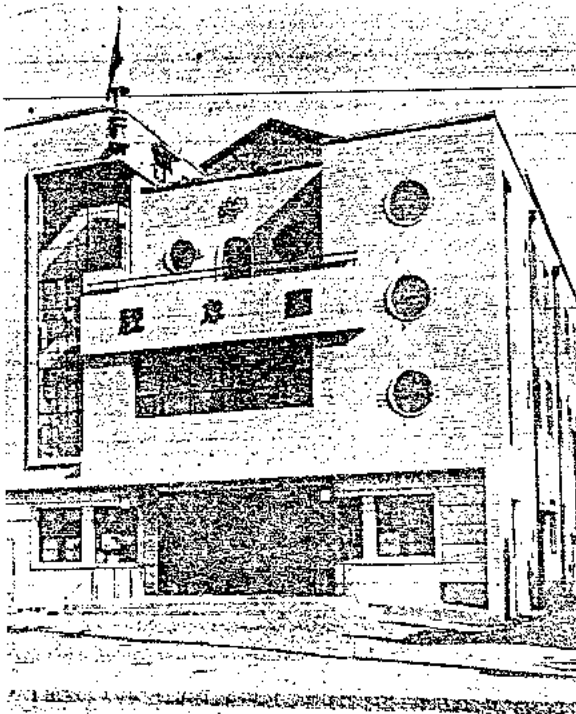
▲ 1935년대의 단성사 1층 평면도



▲ 현재의 극장 측면부 (개략실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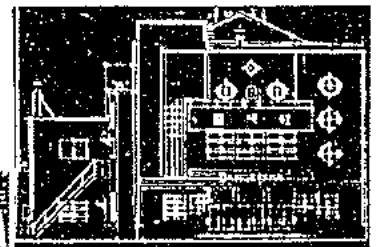
▲ 현재의 평면도. 수없이 변경되었으나 전체의 골격은 남았다. (개략실측)



▲ 준공당시의 團成社. (朝鮮と建築, 1935. 2) 1962년까지는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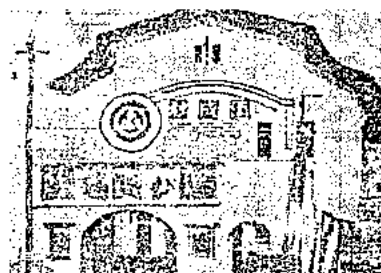


▲ 1913년대에 세워진 團成社. 화재로 소실된 모습 (1915. 2. 18) (김종욱자료)



▲ 1934년 6월 15일 착공된 團成社. 그 개략도, 正面 (김종욱)

1918년 12월 21일 세 團成社가 세워졌다. (三千里, 1933. 4)



▼ 1986년 개조되고 있는 정면부





▲ 首都극장사실 (1951. 3. 15) 군인들이 경계하고 있다. (월간조선 1988. 1)



▲ 현재의 스카라극장. 극장의 방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우선 한국인을 위한 극장들은 을지로를 중심으로 北村에 자리잡았는데, 團成社, 朝鮮劇場, 優美館, 東洋劇場 등이 그것이고 일본인들을 위한 南村의 松竹系 黃金座, 日活系 喜樂館, 帝國키네마系 大正館, 그리고 明治座들이 있었다.⁶⁾ 이 때부터 국영화를 제작하려는 기운이 도처에서 고조되었고 흥행적인 여건도 성숙되어 갔다.

朴承弼은 1924년 團成社에 촬영소를 설치하여 東亞日報社 주최인 「全鮮 여자 올림픽 대회 실황」이란 기록 영화를 제작 공개한 다음 「장화홍련전」을 “순수한 조선 사람만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제작하였다.⁷⁾

1930년대에는 韓國인이 직접 경영하여 朝鮮劇場과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며 주로 朝鮮영화를 상영했다.⁸⁾ 이때까지만 해도 극장 내부는 男女有別하였다.

본격적인 현재 규모의 團成社는 1935년에 세워졌다. (1934. 6. 15~1935. 12. 21)

설계는 玉田건축사무소에서 맡았다. 첫 團成社의 외관은 지붕선이 八字와 S자가 겹치는 曲線形이었으나 玉田은 國際主義의 樣式인 角形으로 완전히 바뀌버렸다.

3개의 단순한 圓形窓으로 수직선을 살렸는데 이는 같은 해에 세워진 東洋劇場과 유사한 테크닉이었다.

團成社와 東洋劇場은 그 후 都市形劇場의 한 典型이 되어 널리 퍼졌다.⁹⁾

2년전(1986. 8) 극장의 內·外部를 새로 보수하였으나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¹⁰⁾

團成社는 길 건너편의 피카디리 극장과 함께 오늘날 韓國의 극장 타운의 메카로 불려지고 있다.

瑞麟坊에 두었다가 甲午更張 이후에 폐지되었는데 左捕盜廳 영화관 團成社, 右捕盜廳은 光化門 우체국 자리가 되었다.

3. 安鍾和, 新劇史이야기, 1955. 柳敏榮, 「韓國劇場史」, 한길사, p. 27(再引用). 京城座는 忠武路 진고개에 있었다.

4. 김종욱, 앞글.

5. 「사진으로 본 한국영화 60년」, 映畫振興公社, 1980.

원래 이 團成社는 판소리, 唱劇등을 公演하는 演戲場으로 쓰다가 1918년 改築하여 같은 團成社라는 명칭을 쓰는 상설영화관이 되었다. (「三千里」, 1933. 4).

6. 朝鮮劇場은 鍾路 2가 파고다공원 옆, 喜樂館은 忠武路, 大正館은 草洞에 있었다. 黃金座는 國都劇場, 明治座는 明洞 國立劇場이었다.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多樂園, 1980. p. 175.

7. 「서울 600年史」, 제4권, p. 801.

8. 그 때는 無聲영화가 위주였는데 “落花流水”, “아리랑”, “開拓者”, “長恨蒙” 등이 주로 상영되었다. 그후 유니버설사와 특약을 맺고 發聲영화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이 때 들여온 영화는 미국영화, “악탈자”, “용감한 크라피스” 등이었다. (「東亞日報社」, 1975. p. 270).

9. 團成社의 관객 수용능력은 680명 정도 (「朝鮮と建築」, 1935. 2).

10. 1951년 중개축한 바 있으며 1986년 지하철 공사로 인한 균열 피해로 內·외부를 補修했다. 外部 原形은 완전히 상실됐다. (大韓建築學會, 「團成社 건물의 안전도 조사 연구 보고서」, 1984. 3. 10)

시공자 / 生田組(生田松太郎)

건축주 /

건축규모 /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종별 : 지하 1, 지상 2, 육상

대지면적 : 300 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658 평

보존상태 / 存額

스카라劇場은 舊明洞國立劇場(明治座), 國都劇場(黃金座)과 함께 같은 시기에 세워졌다.

위치를 草洞(若草町)으로 잡았기 때문에 극장 이름도 와카구사게끼(와카게끼, 若草座)라 했다.

대지 면적은 약 300평으로 道路面이 短邊이므로 劇場 前面을 大路에 접하게 했다. 건축연면적은 658평으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했다.

2개층의 관람석을 갖는 순수 영화관으로 계획되었다(대기실은 4개층).

설계는 川澤건축사무소에서 맡았다.

1935년 6월 착공하여, 그해 12월 준공했다.

6개월의 짧은 工程으로 끝냈다.

정면은 한국산의 테라조를 써서 마감했고 전체적으로는 色사멘트 몰탈을 발랐다.

마감의 치장은 비교적 단순히 했다. 공사 역시 최단시일내에 이뤄졌기 때문에, (더구나 冬季공사였기에) 마감은 졸속을 면치 못했다.

「朝鮮と建築」 잡지는 이 극장이 완료된 후 공사개요를 쓰면서, 이 공사의 不實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런 기사는 보기 드문 일인데 책임은 설계자가 아니고 공사

도급업자에 있다고 적고 있다.

사실 지상 4개층에 해당하는 극장 건물을 190일 정도에 마감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공작이다. 특히 전기, 조명, 설비등은 그

심각성이 컸던 것이다. (총공사비 218,000圓) 현재에도 관객의 입장에서 극장 2층의

말석에 자리를 잡으면 스크린과의 영사각도라든가, (급경사) 앞자리와의 높이

조절, 그리고 탁한 공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映畫館의 특색은 前面部의 半門形 돌출 평면구성에 있다. 明寶劇場의 4거리에서

劇場 건물이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註□

1. 김종욱은 「영광과 굴욕의 단성사 80년」에 단성사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적어 놓았다. (스크린, 1988. 3. p.p 314~319)

2. 조선 중기에 左捕盜廳은 서울 中部 貞善坊에 두었고 右捕盜廳은 中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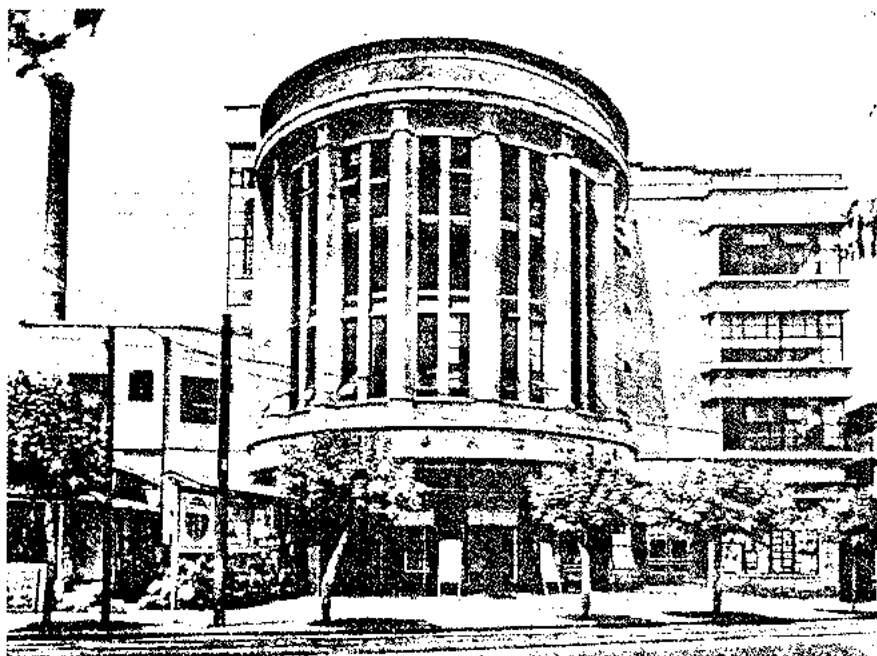
91. 스카라 劇場

위치 / 초동 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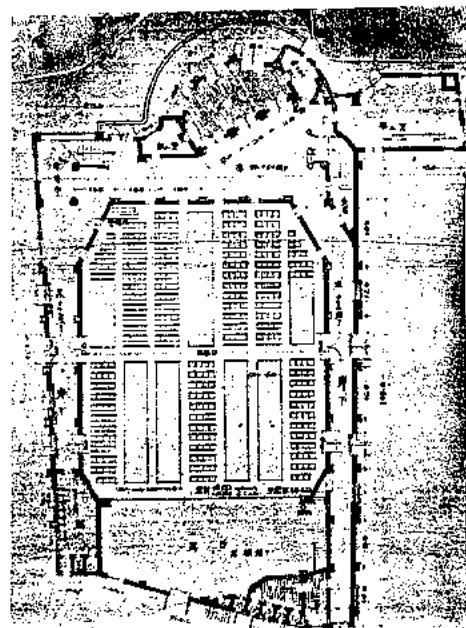
착공년월일 / 1935. 6. 20

준공년월일 / 1935. 12. 30

설계자 / 川澤건축사무소



▲ 1935년대 극장. 前面部の 半圓形 돌출부가 특징적이다.



▲ 1층 평면도. 현관부가 이름난다.

玄關部를 밖으로 내는 것이다. 이로써 劇場入口의 前室이 넓어지는 효과도 얻어냈고 단조로운 平·立面에 변화도 줄 수 있었다. 立面은 半圓形部의 외장 처리에 전력 투구했다. 굵은 Mullion 과 가느다란 Mullion 으로 面 분할을 계속했고, 층 나눔 라인은 格子式으로 했다.¹⁾ 옥상 파라펫 부분은 円板으로 덮어 지붕을 경쾌하게 했고 현관부의 캐노피 선과 조화를 이뤄냈다.

현재는 극장 간판에 가려 많은 부분의 意匠面이 감춰졌으나 전체적인 특징들은 아직 그대로이다.

현재 이 극장에서 소련영화 “전쟁과 평화”가 상영되고 있다.

□註□

1. 「朝鮮と建築」, 1934. 12.

92. 明洞國立劇場

위치: 명동 1가 54

착공년월일 / 1935. 11. 9

준공년월일 / 1936. 10. 7

설계자 / 玉田 건축사무소

시공자 / 三木合資會社

건축규모 / 구조: 철골, 원근콘크리트조

층별: 지하 1, 지상 4, 옥탑 1

대지면적: 505 평

건축면적: 317.1 평

연면적: 743.413 평

보존상태 / 내외부 개수

明洞劇場社는 明洞史이다.

明洞國立劇場이 간판을 내린 후 明洞은 많은 윌드팬의 마음에서 떠나갔다.

1960년대까지가 이곳이 문화인의 서식처로서 절정기였던 까닭은 明洞劇場이 있었기 때문이다. 明洞劇場은 明洞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며 미도파백화점으로부터

明洞聖堂까지를 한 軸으로 묶고 있다.

이 건물의 설립당시 명칭은

메이지좌(明治座)였다. 國都劇場과 같은

해에 착공하여 같은 해에

준공되었다(1935~1936).

建築家도 두 건물 모두 玉田이었다.¹⁾

府民館, 若草劇場(스카라 극장),

黃金座(國都劇場)와 함께 1930년대의

부흥을 구가하던 日本人들을 위한 위락

시설로 지어진 것이다.²⁾

시공은 三木合資會社에서 맡았다.

건축물의 규모도 國都劇場과 거의 같다.

대지 505평에 건평은 317.1평이고 연건평은 743.413평이었다.

地下 1층, 地上 4층, 그리고 屋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에 벽돌로 벽체를 마감했다.

관객 수용 인원은 1,178인으로(1층은 664인, 2층은 354인, 3층은 160인으로) 계획되었다.³⁾

明洞劇場은 압지상 4거리 부분에 위치,

양측면은 동일한 이미지로 디자인했고

모서리 부분을 정면으로 하여 5층으로

보이도록 屋塔部까지 扶壁을 세웠다.



▲ 만화에 나타난 극장 (만화기, 감격시대, 1987. 10. 16, 스포츠서울)

4角窓으로 2층을, 아치창으로 3~4층을, 그리고 前面 현관부의 屋塔 부분은 圓形窓을 돌려 창문들은 자유분방하게 뚫린 느낌이다. 처마 부분은 Cast Stone 으로 조각, 부드러운 마감을 하고 있다. 屋塔 상부는 圓形板을 올려 놓은 것 같아 전반적으로 曲線이 강조된 느낌이다. 角面이 없어 더욱 여성적이다. 前面部는 Cast Stone 조각을 수직으로 세워 올려 풍요롭게 했다. 극장은 8.15해방 후 한 때 서울시에 의해 市公館으로 접수되어 집회, 연극 등의 공연을 계속했다. 6.25 동안으로 건물은 황폐해졌으나 1952년에 거의 원형을 되찾아 개수됐다.

1957년 6월 1일부터는 國立劇場으로 되어 한국 연극 발전에 큰 몫을 해냈다.

1961년에는 또 한번 건물을 개수하면서 옥상 일부분을 증축, 지붕 처마선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후 南山國立劇場, 世宗文化會館 등이 들어서면서 明洞國立劇場은 그 역할을 넘기고 퇴장, 현재는 증권, 금융 기관으로 180도 변신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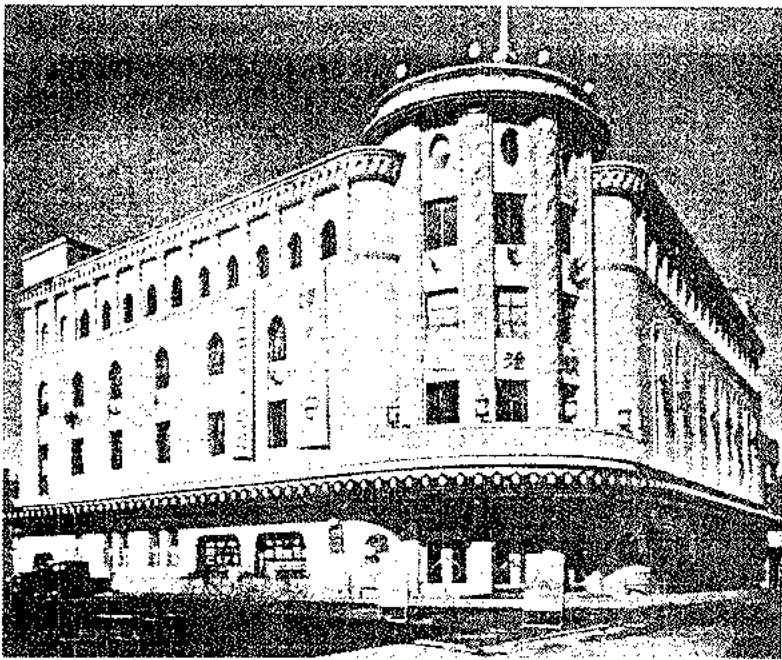
원래의 용도로 다시 전환되어

明洞國立劇場史의 한 장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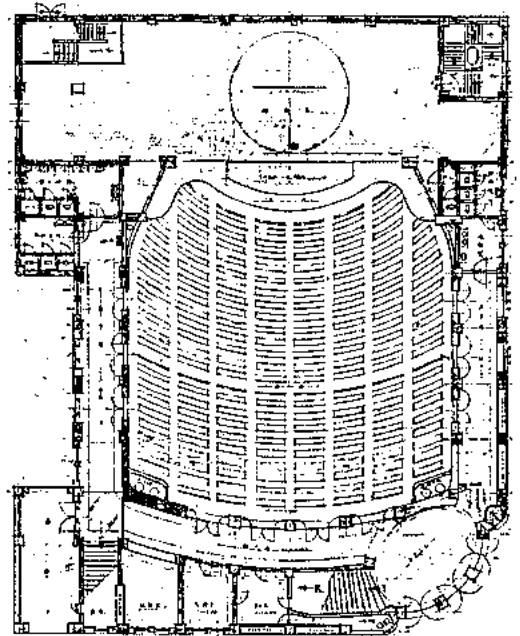
현재 중앙대학교에서 이 건물을 안수, 예술, 음악공연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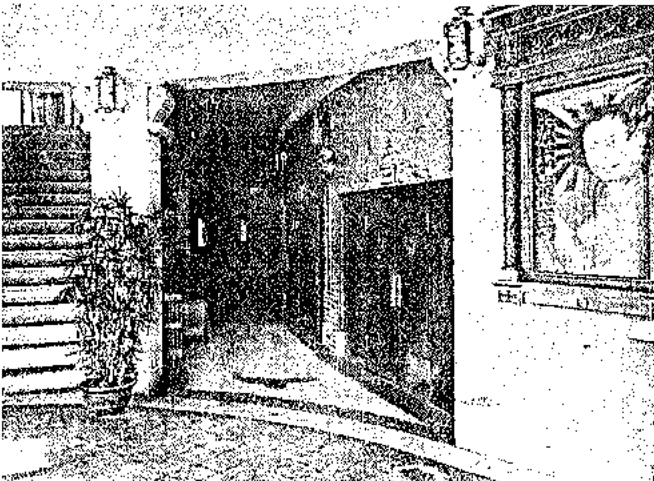
1. 玉田橋治, 日本建築上會 京城支部長도 맡았다. 그의 사무실은 明治町 2丁目 25번지에 있었다. 그는 1940년대까지 韓國에 남아있었다.
2. 明治座의 건축주는 “石橋”로서 日本 영화만 상영했다.
3. 「朝鮮と建築」, 1934. 12.
4. 대한투자금융에서 사용중, 1985년 12월 개수. (정일건축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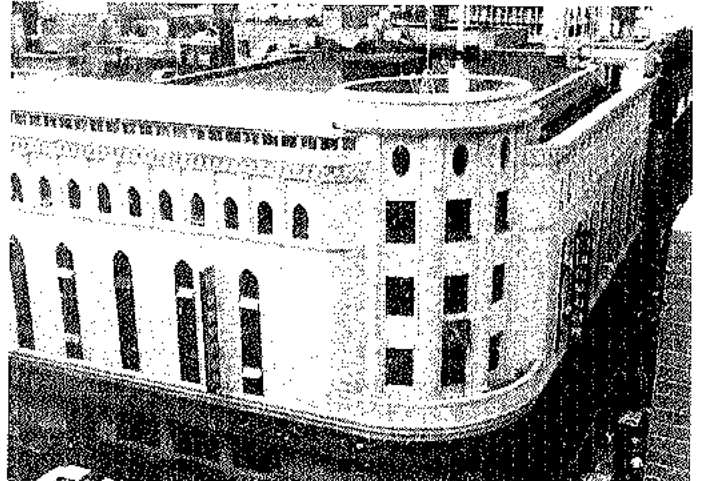
▲ 1936년대의 남만을 구가하던 극장 (朝鮮と建築)



▲ 1층 평면도



▲ 현관홀에서 1층 계단을 바라본 부분의 인테리어 (朝鮮と建築)



▲ 1985년 개수되어 금융기관으로 바꿨다.

93. 國會 第3別館

위치 / 태평로 1가 18

착공년월일 / 1936. 3. 21

준공년월일 / 1936. 10. 20

설계자 / 朝鮮總督府 官房 會計課 齋藤 係

시공자 / 石田組

건축규모 / 구조 : 비동조

층별 : 지상 1, 지상 3, 옥탑 1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144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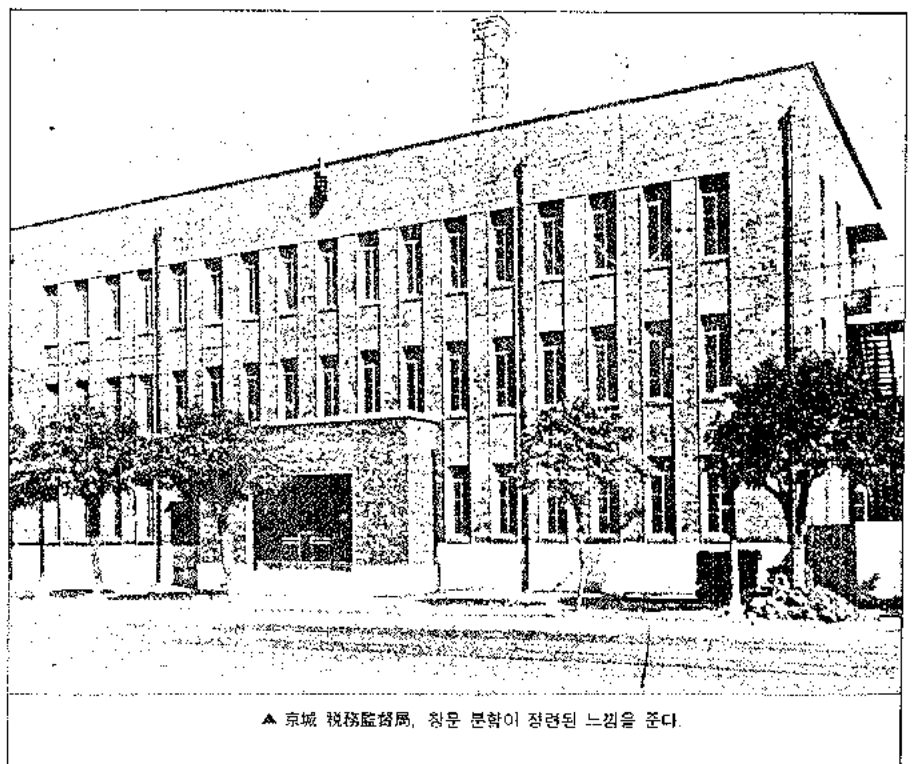
연면적 : 463.16 평

보존상태 / 1984. 6 월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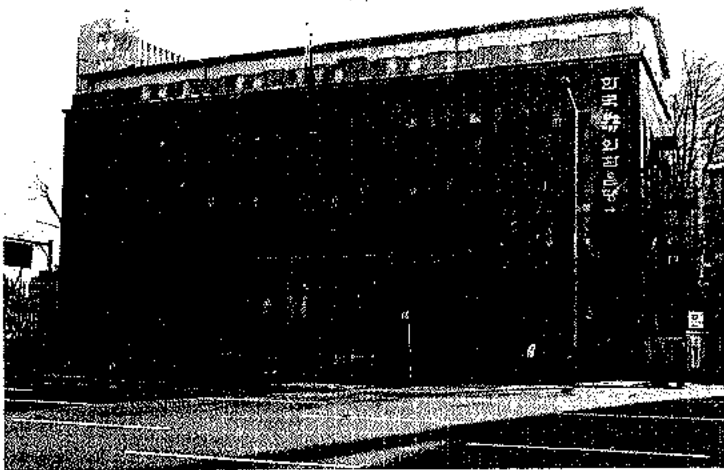
이 別館 건물은 태평로 舊 國會議事堂의 건너편에 자리잡게 된 장소성 때문에 더 유명해졌던 건물이다.

日帝下에 세워진 건물 중 기록되어져야 할 건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別館 건물을 우선 채택하여 기록하는 이유도 그 장소성과 역사성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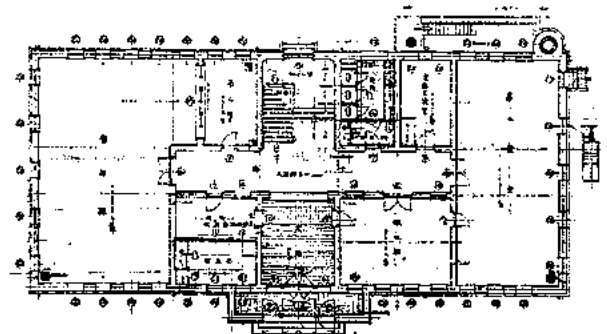
이 건물은 원래는 京城稅務監督局 청사로 세워졌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청사는 溫全한 國際主義 양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부감 없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실제 빛 감독은 朝鮮總督府 官房



▲ 京城 稅務監督局, 창문 분할이 정려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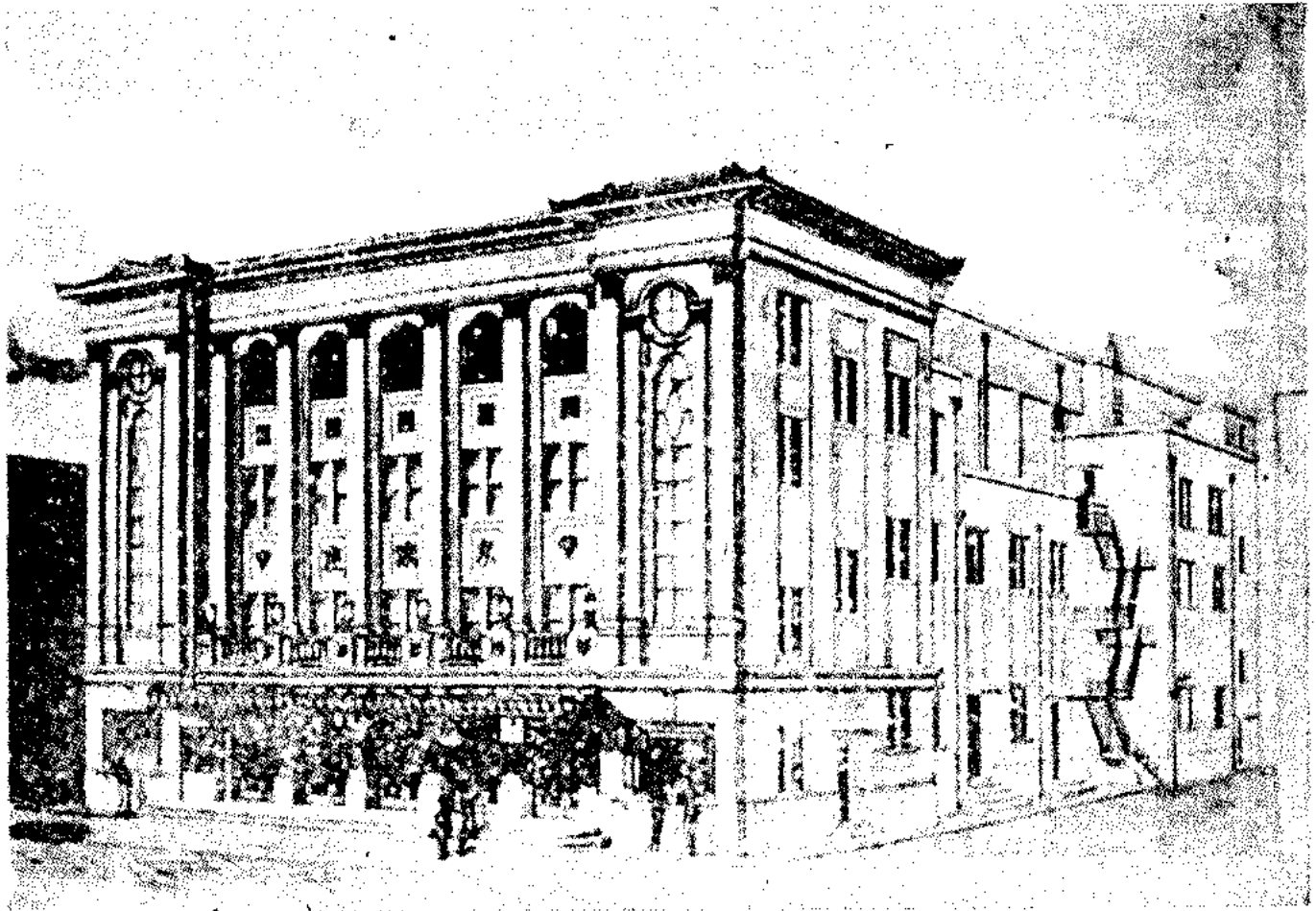


▲ 헐리기 직전의 건물. 희락된 모습이다. 1970년대의 政治史와 함께 막을 내렸다(198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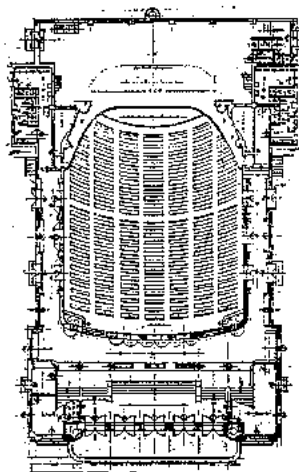


京城稅務監督局一階平面圖

▲ 朝鮮と建築에 소개된 平面圖(1934. 11)



1935년의
국도극장 투시도
(朝鮮と建築)



◀ 劇場 1층 平面圖

▶ 1936년
준공당시의 극장정면.
正面에 10개의
기둥이 특징적이며
지붕에는 기와를 덮고
치마까지 올려냈다.





▲ 1988년 개수되었다. 외관은 서양적이며 동양적이다.

會計課 營繕係에서 맡아 했다.
1936년 3월 기공하여 같은해 10월
준공되었다. 벽돌조 연건평 463.16평으로
중소규모 사무소 빌딩이다. 외부 장식은
모두 배제 되었다.²⁾ 외벽은 이 당시
유행하던 화강석과 Cast Stone 을 부쳤고
전체적으로는 타일과 테라코타로 마감했다.
건축 공사는 石田組에서 맡아 했다.
이 건물은 8.15 해방을 겪고 1984년 6월
철거 때까지도 원형을 잃지 않고 있었다.³⁾
이 청사는 共和堂 시절, 國會의
제3별관으로 轉用되었으며 그 사유 때문에
정치적 현상성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다.⁴⁾
國會議事堂이 여의도로 신축 이전되자 이
장소는 國稅審判所, 외무부 여권과,
외환은행 등에서 각각 사용했었다.⁵⁾
1984년 6월 武橋 제 12지구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됐다.

□註□

1. 太平路 國會議事堂은 舊府民館이었고, 현재는 世宗文化會館 別館이다.
2. 「朝鮮と建築」, 1934. 11.
3. 옥상에 간이식 건물이 1개층 증축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보행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의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4. 7대 會期中,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 이 건물의 特別委員會 회의실에서 共和堂과 維政會 議員만으로 3選 改憲의 길을 마련했던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안이 통과 되었다.
5. 斗山 그룹에서 매입.

94. 國都劇場

위치 / 을지로 4가 310
착공년월일 / 1935. 11. 15
준공년월일 / 1936. 11. 15
설계자 / 玉田건축사무소
시공자 / 長門組
건축규모 /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층별 : 지하 1, 지상 3, 옥탑 1
대지면적 : 600 평
건축면적 : 293.17 평
연면적 : 601.12 평
보존상태 / 원형 보존

크라식한 외관으로 영화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1930년대식 극장의 하나이다. 원래의 이름은, 黃金町 거리에 있다고 해서 黃金座라고 불려졌었다. 이 극장은 府民館이 세워진 1년 후에 세워졌는데 若草劇場, 明治座 등과 함께 日本人들이 주로 이용했었다. 당시 이 극장의 운영은 日本의 대 영화사 松竹系에서 관여했다.¹⁾ 1935년 玉田건축사무소에서 설계했다. 시공은 長門組에서 맡아 했다. 건축가 玉田橋治는 國都劇場을 설계하던 해에 明洞劇場도 함께 설계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써 대지 면적 600평에 건축면적 601.12평에 이르고 있다.²⁾ 특히 中2층을 도입, 제단과 회랑, 조명실을 두었다. 수용 인원은 1,128인으로 설계됐다.³⁾ 이劇場은 외관에 수직선을 강조하기 위해 10개의 角形 Pilaster 片柱를 세웠고 그 柱頭 부분에는 모두 정교하고 화려한 Corinthian Order 를 올려놨다.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意匠의 특성은 이 柱頭 부분과

지붕 처마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처마선은 曲線이 없이 수평적이고 chf 출이 적어 웅색한 비례감을 주고 있다. 처마밑 부분은 중도리의 장식을 강조했는데 마치 洋館의 Dentil Ornament 를 보는 기분이다. 용마루 부분에는 「치미」모양의 기와를 올려놓아, 전반적으로 東洋의 아라 보여지기는 하나 오히려 실험적이다. 國都劇場은 前面 兩側 端部를 돌출시켜 雙柱로 장식한 手法이 특히 돋보인다. 窓門의 마감은 圓形窓과 three pointed arch 창을 함께 사용, 수평선을 파도치게 했다. 日本人들은 이 건물의 양식을 “동양풍을 가미한 르네상스풍”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건물의 지붕에 日本式 기와를 입혔는데 그것은 1930年代에 크게 유행되었던 것이다.⁴⁾ 半島 Hotel(1938~1974)도 그 예의 하나이다. 지금, 멋진 큰 영화간판에 가려 건물의 가치는 감소되고 있으나 그 시대의 원형은 잃지 않고 있다. 이 극장은 1987년 말부터 객식, 음향시설들을 전면 개수하였고 1988년 1월 1일 새롭게 개관했다.

□註□

1. 原所有者는 田村三太.
2. 지하 18.22평, 1층 293.17평, 中2층(通路), 2층 181.34평, 3층 102.95평, 屋塔 5.44평 (「朝鮮と建築」, 1934. 12).
3. 1층 638인, 2층~3층 490인.
4. 綠色기와는 日本의 名古屋産을 썼다.

1988년도 建築士資格試驗 合格者發表

1988년도 건축사자격(면허) 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988년 10월 10일

건설부장관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10022	곽	경서	10443	김	형일	10869	정	운영	11418	주	수웅	12060	최	석원
10029	강	준규	10452	윤	동현	10898	장	세정	11424	손	유곤	12096	김	영
10031	이	광배	10458	이	태영	10902	정	운성	11438	장	현수	12113	나	승민
10032	김	학성	10463	이	창우	10955	한	기훈	11452	이	병일	12159	김	달위
10046	강	명웅	10483	배	성지	10962	이	관수	11481	손	신원	12173	김	사옥
10052	김	영기	10495	정	춘국	10987	하	응철	11488	김	영배	12175	박	영수
10055	김	정회	10501	임	성일	10988	유	종옥	11554	김	의열	12180	이	명섭
10064	서	병진	10512	김	채홍	11014	정	우열	11568	이	영한	12197	조	현성
10073	조	상순	10519	강	석원	11045	김	의중	11575	서	태효	12254	권	오영
10092	진	재우	10526	박	영일	11047	최	병국	11576	강	철회	12266	최	광식
10096	이	성진	10532	차	병호	11058	길	기홍	11582	하	선호	12269	김	경수
10125	하	해진	10555	장	경열	11072	김	인철	11585	우	애희	12272	민	병호
10154	박	용규	10569	황	인걸	11079	오	영균	11590	오	재승	12347	최	기철
10155	유	찬	10583	박	찬빈	11097	현	명효	11610	송	춘식	12357	이	영하
10195	김	승봉	10593	김	선창	11099	문	창희	11664	이	중원	12366	양	경석
10197	김	주석	10603	이	영숙	11111	이	강록	11670	김	택수	12367	김	덕수
10203	임	태종	10607	김	선중	11114	최	원식	11684	이	맹주	12371	이	은식
10214	심	우근	10610	김	인기	11115	윤	재현	11696	이	중석	12379	유	인호
10218	정	상환	10613	최	병웅	11122	김	수인	11714	나	한진	12396	원	명호
10257	이	찬식	10618	장	사용	11124	김	영의	11730	백	용기	12403	윤	재근
10266	김	원영	10626	박	종철	11127	이	병관	11734	이	명교	12451	이	태용
10280	황	길현	10631	김	종철	11130	최	종준	11768	박	병욱	12463	추	경호
10282	김	석	10659	이	태수	11144	김	명견	11769	정	균태	12468	임	훈제
10283	이	시홍	10666	함	종관	11179	조	경후	11790	이	종엽	12477	이	광인
10305	한	기웅	10683	변	종목	11208	정	영철	11803	정	봉현	12508	사	중기
10326	김	준봉	10692	박	창원	11210	한	진호	11841	최	광현	12546	이	상온
10335	오	경진	10700	윤	대일	11228	홍	영우	11851	심	창식	12554	이	주훈
10349	이	종택	10701	조	성달	11234	홍	찬기	11870	강	인수	12564	김	종관
10378	김	광일	10754	김	진원	11258	하	경희	11886	전	희일	12615	서	형석
10386	구	광식	10791	조	성권	11262	김	재호	11908	장	춘식	12620	김	미정
10402	이	종운	10799	김	영우	11263	이	경봉	11930	이	혁희	12633	허	성욱
10403	길	광섭	10804	주	광수	11265	김	성열	11931	김	규성	12664	양	의모
10404	최	병철	10810	이	철호	11267	주	택용	11940	이	용우	12719	이	용호
10408	강	남구	10817	장	우석	11268	안	호형	11946	장	호식	12779	이	태신
10414	권	창열	10829	오	정열	11281	구	본길	11985	권	문성	12806	표	영채
10418	박	기두	10833	김	양성	11282	강	신량	11991	박	태성	12812	임	희재
10419	주	인수	10839	이	도희	11319	오	영욱	12008	김	윤	12819	김	수덕
10423	송	철환	10841	민	윤기	11326	이	승엽	12027	백	승일	12836	권	대운
10428	박	양춘	10859	김	수곤	11350	김	장섭	12048	손	주우	12843	이	규홍
10434	박	백수	10864	신	정철	11363	조	남국	12057	최	정식	12849	이	병수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수험번호	이	름
12862	김	장수	20007	안	승석	20176	박	규용	20407	최	윤호	20592	권	영국
12869	김	정자	20008	강	실구	20183	윤	형구	20418	박	철규	20617	윤	승보
12876	이	을구	20009	허	갑구	20184	최	인규	20421	송	주봉	20622	이	병록
12881	진	병서	20013	이	병술	20186	이	병열	20427	홍	선광	20625	황	혁철
12887	김	준석	20027	김	남준	20187	문	광역	20432	김	수진	20633	권	정우
12894	조	대희	20029	류	승원	20188	최	인성	20434	이	동해	20644	고	기성
12897	김	성환	20031	이	창택	20197	김	후진	20435	최	호경	20650	박	창길
12936	한	인태	20032	조	억재	20199	강	청일	20445	송	기흥	20652	최	석천
12940	곽	문수	20034	신	용대	20206	배	준두	20446	김	전영	20668	이	동춘
13005	이	종진	20035	서	항구	20220	정	병일	20458	유	수태	20683	최	재은
13007	원	종일	20039	장	명환	20221	장	구식	20470	장	용태	20698	정	영수
13019	정	진희	20040	김	치형	20232	오	석봉	20472	김	정수	20704	강	성현
13062	홍	장표	20043	이	상윤	20233	이	종근	20477	이	근곤	20705	김	용길
13178	장	세양	20044	손	순구	20238	장	의혁	20478	김	환성	20716	김	창철
13179	임	현기	20053	강	진영	20243	진	영식	20481	천	재홍	20717	신	승우
13191	유	난형	20062	최	인표	20244	한	인수	20483	윤	철수	20718	이	진기
13227	유	장안	20065	김	주한	20247	임	형복	20489	최	부영	20729	조	경행
13230	송	충흠	20067	김	종문	20262	조	춘성	20494	여	정남	20761	안	병한
13317	유	경일	20075	정	연주	20264	김	동환	20501	이	정복	20765	함	희목
13346	김	성기	20079	임	남순	20271	윤	여근	20502	권	영구	20786	김	한진
13470	박	병욱	20081	조	강묵	20272	이	지형	20505	김	민환	20793	유	경규
13484	신	윤주	20085	이	근배	20273	최	준백	20514	신	경식	20826	김	영희
13584	한	병철	20108	아	상설	20278	오	태구	20518	정	웅규	20849	이	동주
13586	김	복섭	20110	이	우찬	20280	이	성호	20519	박	성희	20855	한	종환
13592	고	보석	20114	이	무열	20285	김	형욱	20525	정	용남	20861	전	태규
13604	이	성우	20123	소	영가	20295	신	형기	20530	노	명환	20885	박	현섭
13619	박	찬원	20125	상	정수	20302	김	도현	20531	주	응식	20886	노	영일
13758	권	기창	20126	정	하태	20327	이	상영	20532	장	새춘	20888	오	보국
13920	김	태민	20127	현	병석	20360	유	재창	20535	조	병훈	20891	곽	영식
13937	고	광석	20134	이	범열	20367	육	용근	20541	박	배춘	20897	이	태수
14113	김	위광	20139	김	석돈	20376	김	태조	20549	전	진만	20903	박	선호
14125	조	종호	20145	김	경복	20379	정	준영	20551	윤	문곤	20915	정	진환
14182	주	장호	20151	전	종한	20382	백	용기	20561	서	종불	20927	박	두규
14455	우	정욱	20155	박	모현	20385	김	수태	20566	엄	봉현	20957	문	종백
14491	송	종태	20157	홍	순영	20386	강	재용	20571	한	효동	40393	이	용병
14494	오	제호	20160	황	용연	20387	박	용덕	20575	윤	병욱			
14788	심	재환	20169	이	서관	20399	김	형문	20578	김	영철			
20002	박	찬실	20171	김	동진	20400	이	현기	20585	박	자수			
20006	박	승주	20172	윤	상기	20403	김	영준	20590	손	수일			

계 391명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76-0123~5
FAX 279-1718

제 9 회 理事會 개최

본 협회 제9회 理事會가 9월20일(화) 오후 2시부터 安箕泰 회장 주재로 상근부회장, 이사,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전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부의사항, 협의사항 등의 순서로 오후 5시 15분까지 진행되었으며 주요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의사항〉

〔안 건〕 職制 및 事務分掌規程改正 (案)

〔심의결과〕 원안대로 승인

〔배 경〕 경기도지부의 총무부 신설 요청과 관련하여 제8회 이사회에서 각 지부의 직제기준을 마련토록 한 바, 소속회원 수를 기준으로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改定案을 마련 심의에 올린 사항임.

참고/支部別會員現況(88. 7. 31. 현재)

- 서울—1292 • 부산—353
- 대구—207 • 인천—76
- 광주—109 • 경기—259
- 강원—42 • 충북—61
- 충남—133 • 전북—64
- 전남—36 • 경북—75
- 경남—125 • 제주—31

합계: 2, 863

〔안 건〕 職員退職積立金 追加精算支給

〔심의결과〕 추가정산사급으로 결의

〔배 경〕 강원지부장으로부터 본부에서

기송금한 바 있는 통합예산시행기간중의 퇴직적립금에는 가족수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추가정산요청이 있어 심의에 올린 사항임.

참고: 강원지부의 前사무국장의 퇴직금 누진정산차액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동 사항을 고문변호사에 문의하고 그 결과를 강원지부에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있음.

다음 → 지급요청사항중 퇴직적립금은 성실상 직원 개인의 저축이며 복리후생비는 그 개인 저축실적에 상응한 장려금을 보조한다는 데에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가족수당은 본질적으로 근무의 재생산을 위한 생활보장금부의 성질인 점에서 본봉의 급여와 동일한 것으로 포함되어야 함.

〔안 건〕 月定會費 未納會員 措置

〔심의결과〕 서울지부의 월정회비

미납회원에 대하여는 88년 9월30일까지 납부토록 서울지부로 하여금 독려토록 하고 9월 30일 이후에도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88년 10월 1일자로 정관제 10조 제2항에 의거 조치하기로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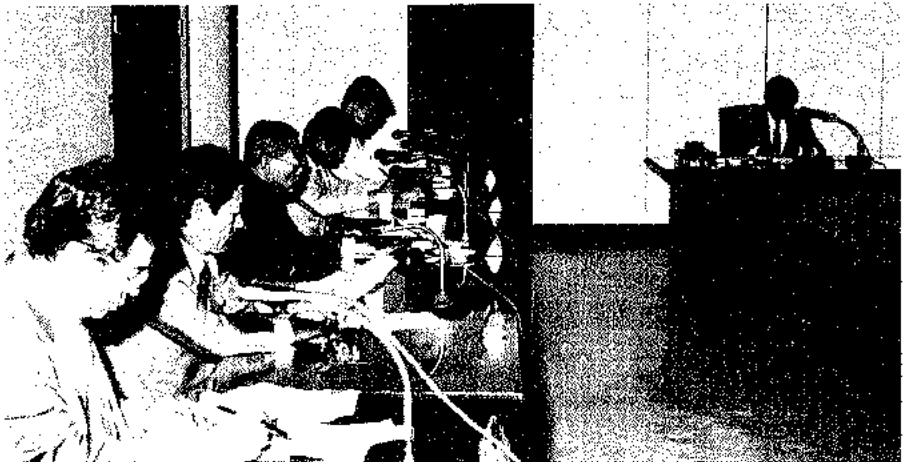
〔배 경〕 서울지부장으로부터 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월정회비 장기 미납자에 대한 조치의뢰가 있어 부의한 사항임.

〔참고〕

-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미납자...97명
- 6개월이상 미납자...68명

〔안 건〕 建築士法施行規則 및 建築士의 業務停止基準

〔심의결과〕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18조(조사 및 검사대상건축물 등)는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개정 건의하기로 결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1조(지부) 지부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사무분장은 지부에서 정한다.		제11조(지부) 좌동	
1. 서울지부에는 총무부 기술지도부를 두고 총무부에는 총무과와 기술지도부에는 기술과, 지도과를 두되 부장은 3급으로 보하고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1. 회원수가 500인 이상 되는 지부는 총무부, 기술지도부를 둘 수 있으며.....	각지부별로 직제기준을 마련 시행코자 함. (현, 서울지부 해당)
2. 부산지부에는 총무부를 두며 총무부내에 총무과를 두되 부장은 3급으로 보하고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2. 회원수가 250인 이상 500인 미만인 지부는 총무부를 둘 수 있으며.....	(현, 부산·경기지부 해당)
3. 기타지부에는 부를 두지 아니하고 총무과만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 회원수가 250인 미만인 지부는.....	(현, 서울·부산·경기지부외 전지부 해당)
		부 칙 본 규정은 198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慶北 (지부장 金永吉) 龜尾分所 敬老大會 開催

경상북도지부 구미분소는 제3회 구미문화제 기간중인 지난 9월10일, 88서울올림픽 성화봉이 행사의 일환으로 구미시 금오산 잔디밭에서 연예인들을 초청 분소관내 노인 노래잔치 및 위안공연행사를 베풀어 경로효친 양양에 기여하였다.



경로효친양양을 위한 연예인초청공연 (구미분소)

慶南 (지부장 金正洙) 職員實務教育 實施

8월13일(토) 오전10시부터 지부직원 4명과 8개분소 직원 8명등 12명에게 1988년도 정기총회에 대비한 감사지침시달 및 직원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988년도 정기감사에 대비한 직원실무교육 실시 (경남지부)

협회 사무자동화 활발

본 협회는 오는 11월7일부터 시행되는 ACA-3 서울대회를 대비해 문서전용 워드프로세서인 삼보컴워드 GT를 지난 11월 구비하여 사무자동화에 한발 더 내디디게 되었다.

87년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본협 사무자동화 추진계획으로 현재 본부에 전산시스템과 FAX, TELX 등을 가동중에 있으며 각 지부도 계획을 수립, FAX 망을 구축중에 있다.

본협회 사무자동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시스템

- 본채 : 삼보트라이퀘 286 I 대 (87년 7월 설치)
삼보트라이퀘 286 III 대 (88년 6월 설치)

- 프린터 : 삼보트라이퀘 LQ-1500 I 대 (87년 7월 설치)
 - 마우스 : PC Mouse 1대 (88년 8월 설치)
 - 워드프로세서 : 삼보컴워드GT 1대 (88년 10월 11일 설치)
- ### 2. 전산 전담요원 1인
- ### 3. 주요 전산처리 업무
- 회원관련 자료처리 : 회원 신상자료, 회원 등록 변동자료, 사무소관리, 행정처분사항, 전입·전출 관리, 휴·폐업 관리 등
 - 건축사 보수교육
 - 건축사지 우송관리
 - 설계도서 통계처리
 - 건축사 연금회비자료처리
 - 88년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통계처리
 - 각종 문서작성 등.

4. 통신장비

- 팩시밀리 : 신속한 문서우송을 위해 전국지부에 설치중에 있다.
본부 : 코리아 제록스 7030
02) 568-8823 (87년 12월 설치)
지부 : 정부 053) 422-9828
충북 0431) 55-9151
충남 042) 254-2441
전북 0632) 85-1875
- 텔렉스 : 국제 교류업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KIRRA K 33550 (87년 7월 설치)

※앞으로도 본 협회는 지속적인 사무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사무자동화,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각 지부의 산신하도 계속 추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각 회원 사무소의 산신화를 위한 정보자료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웨어, 관련자료 등의 정보자료를 조직, 협력 전산실을 정보자료실화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다.

姜大雄 前會長 逝去



本協會의 제6대 會長을 역임하신
姜大雄 前會長이 68세를 一期로
9월13일 오전10시 미국 LA市 自宅에서
逝去하셨다.
姜大雄 前會長께서는 본협회 창립직후인
1965년 11월, 서울특별시지부를 창립하여
초대 支部長職을 맡으셨으며 난립되어
있던 建築界의 정리와 倫理問題의
淨化에 진력하신으로써 이후 회원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발전의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基礎를 다지셨다.
1967년 9월에는 本部 理事로 選任되어
企劃委員으로서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政府綜合廳舍의 建立을
外國建築技術에 의존하려던 政府 의도에
대하여 大統領 면담을 시도하면서
저지시키려던 활약을 비롯, 보조원
수령교부제도 실시, 사무처 기능 강화 등
당사의 任員陣과 함께 눈부신 활약을
벌이셨다.
1971년 10월에는 本協會 제6대 會長으로
피선, 이때 시도지부가 각기 다르게
사용하여 오던 印章과 각종 書式을
통일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協會 배지를 새로 創制하였으며 정부에서
시도하던 특정용역입자 육성방안을
백지화시키는 등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관익신장을 위해 시대한 업적을 남기셨다.
美國으로 이주하시고사는 美淵를
中心으로 활발한 建築活動을 통해
國威를 宣揚해 오셨으며 在美建築士와의
架橋役割을 솔선 담당해 주셨고 韓國의
訪美 建築士들에게 案内를 도맡아

奉仕해 주셨다.
지난 85년 10월에 있었던 本協會의
20周年 紀念行事時에는 來韓하여
本協會를 방문, 번듯하게 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모습에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감격하셨으며, 歸美하시서는 美洲
建築技術情報의 實實的인 窓口役割을
해주시는 등 物心兩面의 支援을 다해
주신으로써 각별한 紐帶下에
本協會 發展과 會員業務를 爲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本協會에서는 姜大雄 前會長의 平素
이같은 勞苦와 協調에 感謝드리기
위하여 그 時機와 方法을 생각해 오다가
뜻밖의 臥病 消息을 接하게 되어 뒤늦게
나마 서둘러 그간의 고마우신 뜻에 만의
일이라도 報答하고자 빠른 時日안에
健康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快癒를
빌면서 誠金을 모아 病床慰問을
추진중이었는데 미처 위문을 드리기 전에
別世하시고 말았다.
본협회에서는 선생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建築士會館에
9월15일~17일까지 빈소를 차리고
會員들에게 분향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예를 드리고자 정성을
다하여 차린 빈소인데도 고별을 드려야 하는
슬픔과 영정만을 차릴 수 밖에 없는
허전함이 더욱 목을 메이게 하고 눈물지게
할 따름이었다. 久遠한 冥界의 福을
누리시기를 삼가 비는, 會長을 비롯한
任員陣 및 會員들의 애절한 祈願이 빈
하늘에 메아리 칠 뿐이었다.



정회원



安政煥
1944. 4. 8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삼풍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783-8344



閔丙旭
1951. 11. 1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공간구성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4-3
245-6813



許瑞龜
1957. 3. 1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공간구성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4-3
245-6813



李光佑
1955. 4. 22
서울 철도고등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준마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31
540-5311



吳壬錫
1942. 10. 3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4-4
546-5381



李炳吉
1952. 6. 23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머릿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3-19
562-9507



安光男
1942. 10. 7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마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13-3
434-0892



金永根
1953. 12. 9
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연일건축사사무소
인천시 서구 연희동 530-6
528-0388



李漣萬
1952. 10. 3
한양대, 동대학원 건축공학
건축사사무소 대릉
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91-16
47-4331



金成根
1950. 11. 22
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동방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419-5511



朴鍾和
1944. 12. 2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삼공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2-6
584-1010



李柱煥
1954. 4. 16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청송종합건축사사무소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334-5
432-7627

준회원



李澤一
1949. 8. 27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파라디이스투자개발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6-210
277-0181

張容澤
1938. 6. 28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문화방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789-2912

大都市綠地地域 등에 대한

土地去來許可・申告制擴大實施

許可・申告制의 擴大實施

- 건설부는 8. 10 부동산투기 억제조치의 일환으로 대도시 녹지지역과 일부 개발예정 지역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토지투기를 강력히 억제하고 지가를 안정시키고자 전국의 1특별시, 4직할시, 8도의 27시 42군 49구(8,683km² 전국토의 8.76%)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9,336km²(9.4%)에 대하여 허가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 이와 아울러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강원도 동부지역 등 6시 11군(7,264km²)을 새로이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전국 72,504km²(73%)에 대하여 토지거래 신고제가 실시하게 되었다.
- 또한 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허가제 실시 주변지역과 수도권·중소도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감시 감시구역으로 지정·특별관리하고 이들 지역중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 확대실시의 배경
 - 지가 및 거래동향
 - 금년들어 전국의 지가는 '87 하반기 이후의 상승세가 2/4 분기까지 지속적으로 급등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이는 국제수지 흑자 규모확대에 따른 통화증가와
 - 이에 따른 시중의 증대된 유동성 자금이 올림픽이후의 물가불안 심리로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었고,
 - 또한 서해안 개발계획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이와같은 지가상승세를
 - 도시규모별로 분석하면, 서울등 6대 도시의 지가상승이 전국의 지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상업·공업지역보다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녹지지역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음.
 - 녹지지역의 지가상승은 실수요보다는 투기적인 가수요에 의하여 토지가 거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 6대도시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거래신고중 녹지지역의 토지거래신고가 52.4~8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한편, 경제기획원·건설부·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지역의 지가동향을 보면, 금년들어 일부지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토지투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참조)
 - 확대실시의 필요성
 - 이와같이 녹지지역과 개발지역등에서 발생한 토지투기는 가수요에 의한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 주택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일반서민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생산의 기본요소인 지가가 상승하면 물가를 인상시켜 경제안정 기반을 교란시키고
 - 지역개발사업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소득분배 구조를 왜곡시켜

-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킴은 물론 기업의 생산 시설에의 투자나 연구·개발의욕을 저해하여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정부는
 - 지가상승·토지투기로 인하여, 절약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근로소득자·기업가·일반서민 등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을 외지인의 토지투기로부터 보호하며
 -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의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일부 부동산투기자들의 허황된 행위를 봉쇄하는 한편
 - 궁극적으로는 물가요즘세 심리를 진정시켜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안정 기조를 다져나가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 기대효과
 - 이와같이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실시되면
 - 실수요자간 거래이외의 투기적인 거래는 동결될 것이며,
 - 일부 녹지지역·개발지역의 지가상승세가 중단되어 지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 투기적인 거래규제로 정상적인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 궁극적으로는 올림픽이후의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리라는 기대심리가 분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허가제실시에 따른 투기억제 효과는
 - 허가제실시지역의 주민, 시·군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서
 -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등을 고려하여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2. 확대실시의 내용

- 허가제 실시지역의 선정기준
 -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불편과 행정수요 증가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 역	지 목	지 가 (천원 / 평)			상승율 (%)	
		88. 1. 1 (A)	88. 7. 1 (B)	88. 8. 10 (C)	B / A	C / A
서울·강남 일원동	塋林	1,400	1,900	2,500	35.7	78.5
		70	150	150	42.8	114.2
전남 순천 조례동	田畵	71	130	140	83.1	97.2
		69	120	135	73.9	95.7
전북 완주 봉동읍·삼례읍	田林	15	45	50	200	233
		20	45	50	125	150
경남 마산시 가포동	林	5.6	8.6	8.8	53.6	57.1
경북 포항시 장성동	田林	90	150	150	66.7	66.7
		30	60	60	100	100
제주시 연봉	田林	50	132	139	164	178
		50	110	120	120	140

최소화하면서 투기억제 효과를 최대한
제고시키기 위하여

- 행정구역과 용도지역별 지가상승 및
투기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 관계기관 합동 현지조사 결과 및
「地自體」의 의견을 참작하여
-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 2/4분기 지가동향 조사결과 전국평균의
배 이상 상승한 지역 (연간·반기·분기중
하나 이상) 과
- 합동조사 결과 지가가 급년들어 급격히
상승한 지역들이며,
- 토지거래가 활발한 녹지지역 및
-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들은
- 서해안산업기지·택지개발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과
- 고속도로건설예정지·농공지구 주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다.

○ 실시지역

- 이와같은 기준에 따라 새로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 서울등 6대도시 녹지지역 등 1특별시·
4직할시·8도의 27시·42군·49구의
8,683km²으로써 전국토의 8.76%에
해당하는 지역이며 (도표참조)
- 지난 '88. 2. 15 지정한 653km²를
포함하여 총 9,336km²의 (9.4%)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게 되는
것이다.
- 한편 건설부는 허가제의 실시로
토지투기가 이전 (확산) 될 우려가 있는
허가제실시지역 주변지역, 수도권·
중소도시의 녹지지역을 「토지거래감시구역」
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할 계획이다.
- 감시구역내의 지가 및 토지거래동향을
「土開公」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등이 매주·매월 단위로 집중
조사하여,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실시하고
- 감시구역내의 토지거래중 투기성 거래는
세무서에 통보하여 자금출처등의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 (총괄)

구분	행 정 구 역	면적 (km ²)
총 계	1特, 4直, 8道 (49區, 27市, 42郡) 6 대도시 녹지지역, 41읍, 72면, 213동	8,683.18 (8.76%)
서울	22구 녹지지역	257.53
부산	11구 녹지지역	305.26
대구	6구 녹지지역 북구 관음동 등 6동	312.52
인천	6구 녹지지역	102.82
광주	4구 녹지지역 서구 쌍촌동 등 24동	464.56
경기	성남시 분당동 등 7시, 6군 (7읍, 2면, 64동)	584.36
충북	충주시 달천동 등 1시, 5군 (1읍, 9면, 3동)	670.98
충남	대전시 녹지지역 등 1시, 5군, (4읍, 9면, 3동)	824.47
전북	군산시 내흥동 등 1시, 4군, (4읍, 4면, 5동)	462.18
전남	순천시 풍덕동 등 3시, 1군, (2면, 10동)	125.22
경북	포항시 학산동 등 5시, 10군 (12읍, 17면, 31동)	1,770.49
경남	창원시 남산동 등 7시, 10군 (12읍, 29면, 67동)	2,483.60
제주	제주시 도시계획구역 등 2시, 1군, (1읍)	319.19

토지거래감시구역

강원도	강릉시·동해시·태백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명주군· 삼척군 전역
전라북도	정주시·정읍군 전역
전라남도	곡성군·신안군 전역
	승주군 승주읍·황전면·월등면·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 영광군 백수읍·홍농읍·불갑면·군서면·군남면·염산면·법성면·낙월면 장성군 장성읍·진원면·남면·동화면·황룡면·서삼면·북일면·북이면· 북하면
경상북도	울릉군 전역

토지거래감시구역

계	수도권·중소도시 녹지지역, 8도 13시 12군, 6,072.36km ²
수도권	녹지지역
중소도시	"
경기	안양시 등 2시 60.56km ²
충남	서천군 등 2군 553.34km ²
전북	군산시·옥구군 211.92km ²
전남	순천시 등 2시 174.77km ²
경북	포항시·영일군 968.27km ²
경남	창원시 등 5시 7군 3,301.55km ²
제주	제주시 등 2시 1군 801.95km ²

-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허가제 확대실시와 병행하여
 - 지가동향 조사결과 토지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6시11개군 7,264km²을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다.
 - 이번에 신고구역이 추가지정됨으로써 이미 지정된 54시 104군 (65,240km²)을 포함할 때 60시 111군 72,504km²(전국의 73%)에서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되게 되는 것이다.
 - 허가·신고대상면적
 - 허가제가 실시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는 모두 시·군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바,
 -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로 선량한 거래가 불편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교적 소규모면적의 토지가 거래되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허가대상거래면적은 신고대상면적수준으로 완화하였으나,
 - 최근 토지투기가 주로 농지·임야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구역외의 임야·농지등에 대하여는 법정면적으로 결정하였음.

신고대상 토지규모

지 역		면 적
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330m ² 이상
	공업단지	1,000m ² 이상
	녹지지역	660m ²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	농 지	5,000m ² 이상
	임야 및 초지(草地)	10,000m ² 이상
	기 타	1,000m ² 이상

허가대상면적 *허가대상면적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후 시·군에 신고해야 함

구 분	용 도 지 역	허가대상면적 (법정)	허가대상면적 (조정)
도시 계획 구 역 내	전용주거·상업	200m ² 초과	330m ² 초과
	준공업·생산녹지	200 "	600 "
	일반주거·준주거 용도미지정구역	90 "	270 m ²
	전용공업·일반공업	330 "	990 m ²
	보전·자연녹지	600 m ²	660 m ²
도시 계획 구 역 외	농 지	1,000 m ²	1,000 "
	임 야	2,000 "	2,000 "
	기 타	500 "	500 "

- 신고제가 새로이 실시되는 지역의 신고대상 토지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 지정기간
 - 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지정기간은 3년간이며 (신고구역은 5년간)
 - 건설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의 토지거래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 3. 향후 조치계획
 - 건설부는 허가제 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허가제 실시지역내 주민이 학자금 조달등 긴급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도하려는 경우 이를 「토개공·지자체」등이 매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시·군·구·읍·면·동에 토지거래허가제 상담창구의 설치와 담당공무원의 증원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치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으로 특히 실수요자의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허가제를 운영해 나갈 것이다.
 - 또한 허가제 담당공무원에 대한

허가업무처리 요령등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허가업무처리상황을 파악·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4. 토지거래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 건설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일정면적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허가제실시로 외지인의 토지투기현상이 근절되므로써 허가제 지역내 주민은 투기가격이 아닌 정상거래가격으로 토지를 사고 팔 수 있어 실수요거래의 경우 보호를 받게되는 것이며,
- 시·군에서는 일정면적이상의 토지거래 허가신청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일체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다.
-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쌍방이 공동으로 계약전에 시·군에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기하여야 한다.
 - 시·군에서는 허가신청서 접수후 25일내에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수 있으며, 그 토지가 공동사업계획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선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불허가 처분받은 자의 권리구제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후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시·도에 설치된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잘못된 경우에는 시정받을 수 있으며, 불허가처분된 토지는 시·도지사가 매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서 사법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 허가증 없이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고
 - 또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기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가격 - 거래예정금액 ≤ (표준지가 × 120 / 100) + 당해 토지의 취득관리비의 원리금 • 취득목적(얼거된 것에 한함) - 자기의 주거용 택지 - 주민의 복지, 편익시설용 토지(시, 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확인) - 구역내 농·어민의 농·축·임·어업용 토지 - 수용이 가능한 공공사업용 토지 -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 시행중인 사업의 확장등에 필요한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일상생활 및 통상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 이용목적이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계획 또는 자연환경보전상 적합 • 그 면적이 이용목적에 적합 |
|---|---|---|

토지거래허가제·신고제 비교

구 분		신 고 제	허 가 제
1. 대상지역		신고구역	규제구역
2. 지정요건		• 투기적 거래 성행우려 • 지가의 급격한 상승우려	• 투기적 거래 성행, 성행 우려 • 지가의 급격한 상승, 상승우려
3. 지정절차		•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 • 건설부장관 지정·공고	좌 동
4. 신고(허가신청) 대상권리		• 소유권 • 지상권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임차권
5. 신고(허가·신청) 대상면적 규모 ※ 지정시 3배의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도시계획구역내(법정기준) - 주거, 상업: 330㎡ 이상 - 공 업: 1,000㎡ 이상 - 녹 지: 660㎡ 이상 • 도시계획구역외 - 농지: 5,000㎡ 이상 - 임야·초지: 10,000㎡ 이상 - 기타: 1,000㎡ 이상	• 도시계획구역(법정기준) - 주거전용, 상업, 준공업, 생산녹지: 200㎡ 초과 - 주거, 준주거: 90㎡ 초과 - 전용공업, 공업: 330㎡ 초과 - 자연녹지: 660㎡ 초과 • 도시계획구역외 - 농지: 1,000㎡ 초과 - 임야: 2,000㎡ 초과 - 기타: 500㎡ 초과
6. 심사기준	가 격	(표준지가 × $\frac{120}{100}$) + 취득관리 비용 ※ 기준지가에 지가변동을 등을 참작하여 산정	좌 동
	토 지 이 용 목 적	•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에 저촉여부 • 공공시설계획, 주변환경보전상 적합여부	좌 동 “ • 규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거래여부 - 거주용 주택용지등에의 적합여부 - 복지, 편익시설 여부 - 농업, 축산물등에의 이용여부 • 기 타 - 규제구역 지정당시의 사업여부 - 지역사회발전에의 기여여부 - 공공사업에의 저촉여부 등
7. 심사후 가능조치		• 권 고 - 토지이용목적, 거래예정 금액의 변경 권고	• 거래예정금액의 변경 권고 • 불허가처분 - 거래계약의 무효(물권 변동 효력없음) ※ 이의신청가능
8. 처 벌		• 6월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國土利用管理法中改正法律案

■ 제안이유

그간 실시해 온 토지거래신고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신고제 유희지조치 및 선매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토지투기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토지거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계조치로 규제구역의 지정요건을 신고구역의 지정요건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함(안 제21조의2 제1항).
나.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자가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도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제4항).
다. 유희지의 매수협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도지사의 확인(미리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을 받으면 매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2 제4항).
라. 유희지의 소유자가 개발·이용계획대로 개발·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대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대리하여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3).
마. 규제구역에서 계약예정금액이

표준지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등을 선매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4 제1항).
바.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신고가 있는 경우로서 선매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선매권자가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그 협의 불성립시 도지사의 확인(미리 토지이용 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을 받으면 매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공탁에 의한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의 특례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21조의14 제4항 내지 제9항).
사.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한 거래계약 예정금액을 공공용지의 매수·수용사 보상액 산정에 참작하도록 함(안 제21조의16).
아.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체결한 계약은 등기가능한 날로부터 1월내에 등기하도록 함(안 제21조의17).
자. 토지이용상황, 소유관계등을 건설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거나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차.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금액을 종전에 위반행위별로 정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거래대상 토지의 금액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3조).

제21조의7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신고구역중에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많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토지거래와 지가관리기관에게 그 지역안의 지가동향과 토지거래현황을 특별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10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희지임을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았거나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거나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성완료된 토지로서 주거용·사업시설용 기타 이에 준하는 용도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용도에 제공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제21조의12 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4항, 제5항과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제21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계획서를 제출한 유희지를 그 계획서에서 처분하기로 정한 기간까지 처분하지 아니한 때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협의·매수할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인식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지사가 그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유희지의 매수금액의 지급과 등기에 대하여서는 제21조의14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매권자”는 “협의·매수할 자”로 보고, 그 매수금액은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 ⑦ 제2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설부장관은 제21조의7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또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이 예정되는 구역(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등으로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구역 또는 용도를 구분하여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구역은 규제구역의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21조의5의 제목“(이의신청)”을 “(행정심판)”으로 하고, 제1항중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를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로, “1월내”를 “60일 이내”로, “이의를 신청”을 “행정심판을 제기”로 하고, 제2항중 “이의신청을”을 “행정심판의 청구”로 하며, 제3항중 “이의를 신청”을 “행정심판을 제기”로 하고, “2월”을 “60일”로 한다.

제21조의7 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흥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13 (유흥지의 대리개발자의 지정 등) ① 제21조의1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하지 아니한 유흥지와 제21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유흥지를 그 계획서에서 개발·이용하기로 정한 기간까지 개발·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도지사는 그 소유자에 갈음하여 개발·이용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이용할 자(이하 “대리개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대리개발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개발자 지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 대리개발자를 위하여 그 토지의 개발·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대리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사용료를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대리개발자의 개발·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대리개발자의 이용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⑦ 제6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대리개발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물의 매수를 촉구할 수 있으며, 그 촉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14와 제21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14 (선배) ① 도지사는 제21조의3

제1항 또는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이나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제21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대리개발자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나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 안에서 그 계약예정금액이 제21조의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배권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배권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배권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제21조의3 제1항 또는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 허가신청이나 거래계약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선배권자는 토지소유자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회가 저류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배권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그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확인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1조의3 제5항 또는 제21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선배권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의 범위내로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배계약이 성립된 경우의 매수가격은 그 계약예정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그 금액의 수액을 거절하거나 기간내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함으로써 매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⑨ 선배권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배권자지정통지서와 매수금액의 지급증명서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갈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거나 당해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가의 안정에 기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의16 (계약예정금액등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또는 가격이 제2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취득·관리에 소요된 비용액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하되, 그 허가신청, 신고 또는 매수계약성립일로부터 매수 또는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기간의 지가변동율을 합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등의 계약예정금액
 2.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토지등의 계약예정금액
 3. 제21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가격
 4.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선매토지의 매수가격
 5. 제2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의 매수가격
 제21조의17을 제21조의19로 하고, 제21조의17과 제21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17(등기)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거나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거래한 토지등의 등기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의18(채권의 발행)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1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매수와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선매의 자금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이의신청)”을“(행정심판)”으로 하고, 제1항중“이의를 신청”을“행정심판을 제기”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부장관은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필요한 경우에 토지이용현황·토지소유관계 기타 토지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토지소유자·관리자 기타 권리자로 하여금 자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표준지가의 100분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표준지가의 100분의3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중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1조의17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의무를 위반하는 때1월이 경과되는 기간에 대하여 표준지가의 1000분의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2회이상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이를 공제한다.

부 칙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新·舊 條文對比表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 (규제구역의 지정)①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무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의2 (규제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제21조의7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또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이 예정되는 구역(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등 으로서 토지의 무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역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구역 또는 용도를 구분하여 규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구역은 규제지역의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토지이용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을 받은 토지이용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되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생략)	행정심판을 제기..... ②.....행정 심판의 청구를..... ③.....행정심판을 제기한.....60일..... ④(현행과 같음)
②~⑦(생략)	②~⑦(현행과 같음)	제21조의7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	제21조의7 (토지등의 거래계약 신고)
제21조의5 (이의신고) ①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처분내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21조의5 (행정심판) 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60일 이내에	①~③(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	①~③(현행과 같음) ④.....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법률에 의하여 당해 유휴지를 수용할 수 있다. 제21조의 13(매수유휴지의 이용) 제21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1조의 13(매수유휴지의 이용) 제21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1조의 13 (유휴지의 대리개발자의 지정등) ① 제21조의 1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하지 아니한 유휴지와 제21조의 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유휴지를 그 계획서에 서 개발·이용하기로 정한 기간까지 개발·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도지사는 그 소유자에 갈음하여 개발·이용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이용할 자 (이하 “대리개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대리개발자와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개발자 지정의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때에 대리개발자를 위하여 그 토지의 개발·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자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대리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사용료를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대리개발자의 개발·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대리개발자의 이용기간은 민	제21조의 14 (선매협의) ① 도지사는 제21조의 3항이항 또는 제21조의 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법협계약허가신청이나 토지등의 법협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 (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매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선매자는 당해 토지소유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법 제2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⑦ 제6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자상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대리개발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 자상물의 매수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최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의이 변신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 14(선매) ①..... 공공단체 (제21조의 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대리개발자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 매나 제21조의 2항1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규제구역안에서 그 계약예정금액이 제21조의 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 (이하 “선매권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선매권자 선매권자 토지소유자는 제21조의 3제1항 또는 제21조의 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법협계약허가신청이나 법협계약신고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선매권자는 토지소유자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④	제 3 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수에 관한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매권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그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수 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확인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 1항제 2호의 동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선매권자지정통지서와 매수금액의 지급증명서 또는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같음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 1항제 3호의 동기 및 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⑤	도지사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이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21조의13의 규정은 선매한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⑩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한 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을 도모하거나 당해 토지등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가의 안정에 기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⑥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과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1조의 3 제 5 항 또는 제21조의 7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16 (토지분할의 제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 16 (계약예정금액등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또는 가격이 제21조의 4 제 1 항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취득·관리에 소요된 비용액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으로 하되, 그 허가신청, 신고 또는 매수계약성립일로부터 매수 또는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기간의 자가변동율을 곱하여야 한다.			
③	선매자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 금액이상으로 하되 제 21조의 4 제 1 항제 4 호에 규정된 범위내로 한다.	⑦	선매권자..... 제 3 항의..... 경우 그 가격은 제21조의 4 제 1항제 1호에 규정된 가격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계약예정금액의 범위내로 하고,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의 매수 가격은 그 계약예정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제21조의 4 제 1항제 1호에 규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4 제 1항제 1호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1.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토지거래계약을 받은 토지등의 계약예정금액
(신설)		⑧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그 금액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기간내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함으로써 매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한 토지등의 계약예정금액
(신설)		⑨	선매권자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						3. 제21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유류지의 매수가격
									4.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선매토지의 매수가격
									5. 제2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의 매수가격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21조의17(등기)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 계약허가를 받거나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거래한 토지등의 등기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		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소제}
(신설)		제21조의18(채권의 발행)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1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유류지의 매수와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선매의 자금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7(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발생 또는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토지등의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제21조의19(권리·의무의 승계)			(신설)				②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표준지가의 100분의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심판) ①.....	 행정심판을 제기할 ②(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상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 1~3. (현행과 같음)
②(생략)		제23조(행정심판) ②.....			1~3. (생략)				4. (소제)
제28조(지가변동조사등) (생략)		제28조(지가변동조사등) ①(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5~7. (현행과 같음)
(신설)		②건설부장관은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토지이용상황·토지소유관계 기타 토지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토지소유자·관리자 기타 권리자로 하여금 자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7. (생략)				② 제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표준지가의 100분의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33조의2(과태료) ① 제21조의7제4항 또는 제29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제31조의2(벌칙) ①.....			제33조의2(과태료) 제21조의7				② 제21조의17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의무를 위반하는 때 1월이 경과되는 기간에 대하여 표준지가의 1000분의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2회이상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과태료는 이를 공제한다.

無識한 「매스콤」과 弘報

嚴泰雄 / 京逸建築士事務所 代表

現代社會에서 「매스콤」이 무식하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같은 소리이며 語不成說이라고 할 것이다.

「매스콤」은 깊은 知識과 洞察力으로 社會를 리드하고 市民의 良識으로서 눈과 귀와 코가 되어 열고 닫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無識하고 偏狹하다. 더우기 建築分野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얼마전 本協會 主催 會員研修會에 出講한 建設部 李某 課長은 講論에서 業務次 모처를 가다가 自動車 안에서 라디오를 듣자니까 내용중 建築上란 名詞도 몰라 建築設計士 云云 하더라면서 建築士들이 自身의 弘報에 얼마나 돌 소홀했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자신의 P.R.은 자신이 하는 時代라는데 알아주지만 바랬던 우리의 安逸함도 自責은 하지만 해도 너무했다. 의사, 변호사 말고도 우리 建築士 歷史보다도 짧은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기술사도 特許代行業者나 稅務處理人으로 誤報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時事性이나 紀念性이 깊은 劃期的인 建築作品이 竣工되었다는 記事를 보면 집중할구는 規模, 用途, 施工會社 工期 혹은 建設基金造成 經緯 歷史的 意義등 잡다한 것은 밝히면서도 設計한 作家(建築士)가 누구라는 것은 빠지고 만다.

그렇다면 美術作品을 記事化하는데 蔑호로 大作이며 製作費가 廣大하고 材料는 어떠한 特殊性이 있고 이미지가 어떠한 영구불멸의 作品이라고 세밀한 報導를 하면서 畫家의 이름을 빼었다면 무식한 행위로 되지 않겠는가?

音樂, 演劇, 文學 모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럴수는 없을 것이다. 유독 建築만이 浮대됨을 받는 것인지 매스콤의 無識인지 우리의 弘報 부족 탓인지 한심스럽다.

그러나 建物이 火災를 당하거나 붕괴되거나 즉 建築造形物이 不幸을 당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設計者가 제일 먼저 論議되고 (設計 하자가 아닌 경우도) 歷史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大書特筆되고 잘잘못 以前에 구속 운운까지 記事化 되고는 하니 이러한 無識과 오류, 아이러니가 時代의 거울이며 經世의 勸戒인 매스콤이 할 수 있는 無知일까 묻고 싶다.

獨立紀念館이 長時間 國民의 行事로 募金되고 史上初有의 紀念館으로 竣工直前까지는 國民(돈을 낸 主人)은 어느 建築士의 作品이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화재가 나자마자 國民들에게 누구의 作品이라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양 알려주는 아량(?)을 매스콤은 베풀어 주었고 代表的인 音樂 홀도 준공된 音響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할 때에야 설계자가 누구였다고 알려주는 현상이고 보니 마치 建築作品은 問題가 야기되어야 作家가 부각되는

不運의 신세인가 보다.

얼마전 C新聞 文化部長 尹某氏가 計劃記事에서 “두 올림픽 建築家를 생각하며”라는 좋은 글을 揭載해 주어 그 반가움이나 고마움은 形言할 수 없었다. 너무나 긴 가뭄에 목마른 建築士에게 반가운 단비였기 때문이다. 물론 金重業, 金壽根, 兩 大家 先輩님의 痕跡이 크고 千壽를 하지 못한 아쉬움의 배려였겠지만 우리도 애석함이 너무 컸기에 감사한 마음 表現할 길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度外視에 대한 투정과 또 기왕이면 보편적인 內容보다 두 建築士의 作家性이나 作品性을 결드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동량주니까 꼭꼭까지 달라는 格일까? 이러한 동량도 자주 주어 목마는 우리의 목을 주겨주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도 자신의 弘報(個人, 協會)에 힘을 써야 되겠다. 더우기 이번 本會주최 아카시아 總會나 建築家協會의 레저 스포츠 관광시설 세미나 양대 國際建築 行事가 있으니 적극적인 매스콤의 協助와 關心 弘報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 바로잡습니다 □

본지 9월호(8809호) “일하며 생각하며”란에 게재된 金永奭 회원의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시행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題下의 글중 p. 78 좌측단 20행 “건축법 제6조의 공사감리자로서의...”는 “건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 건축사법 제2조의 공사감리자로서의...”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同誌 p. 63~p. 77에 게재된 설계경기 기사중 일부 책자에서 인쇄 및 제책과정중 페이지가 뒤바뀐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잘못된 책자를 받으신 회원님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 편집자주 -

1988년 8월분 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87년도 8월분 4백95만7천42㎡ 보다 36% (1백80만7천8백87㎡) 증가한 6백76만4천9백29㎡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1~8월분 합계한 전년 누계 3천4백72만3천1백31㎡ 보다 41% (1천4백34만1백79㎡) 증가한 4천9백6만3천3백10㎡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지난 7월분 4백83만7천23㎡ 보다 39.9% (1백92만7천9백6㎡) 증가한 6백76만4천9백29㎡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況)

(연면적 기준)

(단위:㎡)

지부별	구분	87년도	88년도	비율(%)
증가지역	부산지부	408,037	765,732	88
	대구지부	302,631	378,346	25
	인천지부	211,986	550,855	160
	광주지부	97,177	147,586	52
	경기지부	831,859	1,390,289	67
	충북지부	130,887	265,166	103
	충남지부	290,957	383,455	32
	전북지부	215,876	218,650	1
	전남지부	123,592	498,356	303
	경북지부	257,738	314,937	22
감소지역	서울지부	1,142,219	1,003,085	-12
	강원지부	167,015	127,318	-24
	경남지부	710,403	660,415	-7
	제주지부	66,665	60,739	-9

全國圖書申告概況(種別前月 對比狀況)

(연면적 기준)

(단위:㎡)

종별	7월분	8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819,148	1,179,790	360,642	44
다세대주택	296,265	408,998	112,733	38
연립주택	82,537	232,630	150,093	182
아파트	782,524	1,765,695	983,171	126
근린생활시설	1,051,879	1,108,294	56,415	5.4
종교시설	35,842	48,268	12,426	34.7
의료시설	55,241	23,166	-32,075	-58.1
교육연구시설	193,567	168,172	-25,395	-13.1
업무시설	213,926	238,729	24,803	11.6
숙박시설	101,165	245,171	144,006	142.3
공장	709,856	976,595	266,739	37.6
기타	495,073	369,421	-125,652	-25.4
계	4,837,023	6,764,929	1,927,906	39.9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8月分)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전수	동수	연면적	전수	동수	연면적	전수	동수	연면적	전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298	2,354	937,684	194	206	65,401	0	0	0	2,492	2,560	1,003,085
부산지부	1,426	1,659	712,806	324	354	34,196	42	47	18,730	1,792	2,060	765,732
대구지부	720	805	328,810	538	564	43,678	22	22	5,858	1,280	1,391	378,346
인천지부	690	725	528,273	62	62	15,287	25	25	7,295	777	812	550,855
광주지부	378	400	125,506	92	96	18,758	7	7	3,322	477	503	147,586
경기지부	2,510	2,766	1,203,082	244	269	128,760	50	50	58,447	2,804	3,085	1,390,289
강원지부	403	457	100,859	114	121	24,742	13	14	1,717	530	592	127,318
충북지부	491	580	224,505	136	152	31,798	36	47	8,863	663	779	265,166
충남지부	803	832	322,208	56	56	56,405	26	26	4,842	885	914	383,455
전북지부	312	330	175,803	93	94	41,273	10	10	1,574	415	434	218,650
전남지부	400	477	462,201	164	195	32,140	7	7	4,015	571	679	498,356
경북지부	607	689	252,112	167	185	55,396	14	14	7,429	788	888	314,937
경남지부	1,433	1,666	556,504	519	581	99,437	21	21	4,474	1,973	2,268	660,415
제주지부	189	203	55,214	25	25	5,525	0	0	0	214	228	60,739
합계	12,660	13,943	5,985,567	2,728	2,960	652,796	273	290	126,566	15,661	17,193	6,764,929

支部別 全國圖書申告現況(1月~8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20,297	20,936	9,410,364	1,644	1,722	678,207	0	0	0	21,941	22,658	10,088,571
부산지부	9,870	11,375	3,773,144	2,702	2,991	456,228	398	418	133,325	12,970	14,784	4,362,697
대구지부	5,737	6,278	2,037,591	3,947	4,152	306,452	229	229	67,372	9,913	10,659	2,411,415
인천지부	4,278	4,497	3,188,065	346	379	173,975	138	139	48,904	4,762	5,015	3,410,944
광주지부	2,946	3,054	1,219,548	584	622	215,054	53	56	15,903	3,583	3,732	1,450,505
경기지부	16,796	18,075	7,663,008	2,032	2,245	1,128,943	417	417	309,960	19,245	20,737	9,101,911
강원지부	2,994	3,393	993,641	712	849	206,277	123	124	36,136	3,829	4,366	1,236,054
충북지부	3,584	4,069	1,452,756	990	1,083	344,882	117	129	25,181	4,691	5,281	1,822,819
충남지부	5,776	5,918	2,658,499	938	938	440,701	512	512	131,199	7,226	7,368	3,230,399
전북지부	2,383	2,575	1,300,433	637	657	245,754	144	144	32,488	3,164	3,376	1,578,675
전남지부	3,263	3,773	1,656,724	1,005	1,226	385,497	52	52	20,276	4,320	5,051	2,062,497
경북지부	5,032	5,662	2,241,600	1,387	1,627	849,091	146	147	61,411	6,565	7,436	3,152,102
경남지부	10,090	11,714	3,597,568	3,517	4,191	1,023,861	193	202	72,375	13,800	16,107	4,693,804
제주지부	1,518	1,684	416,780	189	189	43,962	2	2	175	1,709	1,875	460,917
누 계	94,564	103,003	41,609,721	20,630	22,871	6,498,884	2,524	2,571	954,705	117,718	128,445	49,063,31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8 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6,742	6,947	1,094,827	1,185	1,202	79,703	44	44	5,260	7,971	8,193	1,179,790
다세대주택	1,867	1,951	394,707	352	355	13,369	7	8	922	2,226	2,314	408,998
연립주택	78	134	232,581	2	2	49	0	0	0	80	136	232,630
아파트	109	562	1,749,192	13	17	8,446	4	12	8,057	126	591	1,765,695
근린생활시설	2,622	2,670	969,386	490	498	99,535	107	112	39,373	3,219	3,280	1,108,294
종교시설	65	75	37,972	25	25	9,838	4	4	458	94	104	48,268
의료시설	6	6	5,634	7	11	16,799	5	5	733	18	22	23,166
교육연구시설	52	78	114,359	40	43	52,996	5	5	817	97	126	168,172
업무시설	100	105	200,372	62	68	33,666	5	5	4,691	167	178	238,729
숙박시설	112	151	216,047	49	51	17,553	12	12	11,571	173	214	245,171
공장	382	629	725,731	198	323	207,270	27	30	43,594	607	982	976,595
기타	525	635	244,759	305	365	113,572	53	53	11,090	883	1,053	369,421
합 계	12,660	13,943	5,985,567	2,728	2,960	652,796	273	290	126,566	15,661	17,193	6,764,929

用途別 全國圖書申告現況(1月~8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51,170	52,791	8,044,385	8,730	9,141	574,343	398	398	29,122	60,298	62,330	8,647,850
다세대주택	10,376	10,881	2,207,861	2,038	2,062	91,343	48	51	5,002	12,462	12,994	2,304,206
연립주택	469	892	1,140,130	25	31	17,788	1	1	232	495	924	1,158,150
아파트	775	3,288	10,442,509	93	190	317,751	7	15	9,812	875	3,493	10,770,072
근린생활시설	21,976	22,319	8,717,671	3,944	4,015	882,421	1,115	1,125	325,175	27,035	27,459	9,925,267
종교시설	522	596	347,493	341	373	123,206	27	27	6,871	890	996	477,570
의료시설	62	67	196,801	79	85	63,434	17	17	4,839	158	169	265,074
교육연구시설	303	414	687,426	437	487	595,500	94	96	98,730	834	997	1,381,656
업무시설	834	894	1,707,322	458	499	280,280	50	50	34,637	1,342	1,443	2,022,239
숙박시설	1,175	1,266	1,236,970	372	387	235,152	86	87	58,024	1,633	1,740	1,530,146
공장	2,703	4,540	4,795,619	1,715	2,761	2,224,643	260	277	219,452	4,678	7,578	7,239,714
기타	4,199	5,055	2,085,534	2,398	2,840	1,093,023	421	427	162,809	7,018	8,322	3,341,366
누 계	94,564	103,003	41,609,721	20,630	22,871	6,498,884	2,524	2,571	954,705	117,718	128,445	49,063,310

한국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는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기법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오랜 경험 및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구조물 안전도 검토상 문제가 되었던 실제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 내부결함 및 철근 배근상태 그리고 기타 구조 해석상 필요한 제반 자료를 첨단 장비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을 통하여 저렴한 검사비용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업 무 내 용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검사

- 조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 장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철근 탐사

- 철근위치 및 방향
-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직경

콘크리트 비파괴결함 탐사

- 균열심도 • 열화심도
- 화상심도 • 동상심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계측

(STRAIN GAGE 계측)

- 균열폭 변위
- 구조물 기울기 변위
- 침하변위

정밀 진동시험

- 바닥진동
- 지반진동

대 상 건 물

- 신축건물
- 증축예정건물
- 화재·동해건물
- 용도변경건물
- 부실 시공건물

한국콘크리트 비파괴검사
K C N 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1 은성빌딩 503호
PHONE: (02) 922-8994, 대구 (053) 93-0188